

美 京 大 同 窓 會 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usa@ameritech.net
website : http://www.sn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 총무 : 具璟會
편집인 : 金正守

2002년 12월 28일

월간 106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冠岳의 正氣를 로키산맥에 콜로라도 지역동창회 발족

1월 26일 창립총회

회장 **金奉銓**(공대 68입) 동문
콜로라도 주에서 최근 40명의 동문들의 명단이 확인되고, 이 중 20명의 동문들이 11월 17일 첫 모임을 갖고 지역동창회를 결성하였다. 콜로라도 주에 거주하는 원로 선배님은 박성주(공대 기계공학과 47년입) 동문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아래의 동문들이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회장: 김봉전(공대 공업교육학과 68년입)
총무: 김명호(의대 69년입)
재무: 최덕상(농대 농경제학과 73년입)
감사: 유광현(문리대 불문학과 58년입)

이 날 총회에서 다음 모임을 1월 26일 일요일에 갖기로 하고 그 동안 동창회 회칙 및 동문명부를 정비한 후 성대한 창립총회를 갖기로 하였다. 콜로라도 지역 동창회는 인근지역인 뉴멕시코 지역, 와이오밍 주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참석을 환영한다 하니 이 소식을 보시는 동문들은 김봉전 콜로라도 주 서울대 동창회 회장께 연락을 바라고 있다. <연락처> 金奉銓 회장 : 6033 S. Akron Way Englewood, CO 80111/ (H) 303-779-4631, (C) 303-229-3332, (O) 303-623-1900

先驅者 여성공학도들 여섯번째 모임

재미工大여자동창회 후배 동문들을 찾습니다

재미 공대 여자동창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Pennsylvania 주에 있는 Seven Springs Mountain Resort에서 신성식 동문(14회) 주관으로 모임을 가졌다. 공대 여자동창회는 1988년 Niagara Falls 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가진 이래 회원들이 교대로 주관하여 지금까지 미네아 폴리스, 덴버, 디트로이트, 보스턴 등지에서 모임을 가진 이후 이번 피츠버그의 모임은 여섯번째이다. California, Minnesota, Ohio 와 Michigan 등지에서 일곱명의 동창 (14회부터 23회) 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였다. 마침 피츠버그 근교 Seven Springs 가 위치한 Laurel Mountains 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때였고 Resort 에서 주최하는 Autumnfest 는 풍성한 음식과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때 아닌 비때문에 골프는 하루밖에 못했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Somerset 의 United Flight #

33 Memorial Site 와 Frank Lloyd Wright 의 cantilever 건축인 Fallingwater 등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다음의 모임은 2004년 봄에 San Diego 에서 가질 예정이다. 현재 공대여자동창회는 16명의 자랑스러운 한국의 先驅者 女性 工學徒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배 동문들의 연락을 환영하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Mrs. Chulhee Chun (金哲姬, 화학과 63년졸)
29062 Laurel Valley Dr.
Vista, CA 92094
Phone: (760) 630-7410
E-mail: chun_ck@yahoo.com

<사진 하단 오른쪽> 피츠버그에서 모인 재미공대여자 工學徒들. 왼쪽으로부터 金菊花(공대 14회, 화학과 60년졸), 金哲姬(17회, 화학과 63년졸), 申城植(14회, 화학과 60년졸), 高혜영(23회), 李秀子(20회, 섬유과 66년졸), 李星淑(14회, 섬유과 60년졸), 文一志(18회, 원자력과 65년졸)

<사진 하단 왼쪽> 미대륙 서부를 개척하는 콜로라도의 동문들. 11월 17일 콜로라도 동창회 발기대회에서. 왼쪽 왼쪽부터 경제학(사대 지구과학 73입), 김명호(의대 의학과 69입), 윤종오(문리대 해양학 69입), 박성식(의대 의학과 73입), 이재호(공대 금속 78입), 류광현(문리대 불문 58입), 이은상(문리대 국문 70입), 김종정(의대 의학과 56입), 임단일(의대 52입), 이명수(문리대 수학심리 66입), 정세영(사대 수학 72입), 이승복(공대 금속 78입), 아래줄 왼쪽부터 김대전(공대 전자 62입), 김봉전(공대 공교 68입), 정화용(사대 사회교육 61입), 왕경자(음대 중등교육 54입), 고영자(의대 간호학 71입), 배병욱(음대 기악 58입), 박성주(공대 기계 47입), 김길향(약대대학원 69입).

이용락 회장 텍사스 지역동창회 미주 의대동창회 순방

이용락 재미서울대총동창회 회장(공대 53년졸)은 12월 8일 달라스의 북텍사스 지역동창회(회장 李秉規, 약대 61년졸)의 초청으로 송년총회에 참석하는데 이어 12월 21일 오후 6시 뉴저지의 대원식당에서 열린 미주의대 동창회(회장 鄭丁壽, 의대 62년졸)의 초청으로 송년 총회에 참석하여 동창회의 활발한 활동을 격려하고 참석한 동문들과 재미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교환(交驩)하는 기회를 가졌다.

북텍사스 동창회의 송년회는 80여명의 동문가족들이 참석하였는데, 이병규 회장은 지난 1년간 지역동창회를 활성화시킨 공로로(재미동창회보 104호 및 105호의 달라스 지역소식 참조) 지역동창회는 회장의 1년임기를 규정된 회칙

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이병규 회장의 連任을 가결하였다.

이용락 재미서울대총동창회장은 이병규 회장에게 "북텍사스 지역 동창회를 역동적인 조직으로 이끈" 공로로 재미서울대총동창회가 수여하는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미주의대 동창회 송년총회에는 200여명의 동문가족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회장은 미주의대 동창회보인 "시계탑"의 발간, 의대동문들의 지역동창회를 통한 활발한 봉사활동 등에 대하여 축하와 치하의 인사를 하였고 재미서울대 총동창회를 위하여 미주의대 동창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였다.

목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논고 - 3편
-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24편

癸未年 새해를 맞이하며

추경하는 서울대학교 선구배 동문여러분께
은경하는 서울대학교 선구배 동문여러분께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여
귀동문 가내에 모두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크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용락 (공대 53년졸) 드림

2002년 세모에



재미동창회 종신이사회 네명의 동문 참여

금회계년도에도 아래와 같은 네분의 동문들께서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미주관악후원회의 종신이사로서 참여하였다. 특히 吳仁錫 동문(재미총동창회 명예회장)은 두번째의 종신이사회비를 보내어 재미서울대동창회보가 하

루속히 안정적인 재정기반 위에서기를 희망하였다. 종신이사회비는 각 구좌당 3천불이며 당회계년도의 경상지출재원으로 사용되지 아니며,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의 안정적인 발간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별도 적립되는 기금의 재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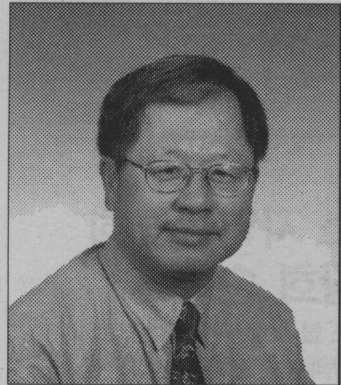
니다. 미주관악후원회의 발족이후 현재까지 24명의 동문들께서 出捐하신 종신이사비 6만 9천불이 별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1명분은 재미총동창회 5대 집행부로부터의 인계인수가 완결되지 않아 아직 적립되지 못하였음). 재미서울대 총동창회는 재미서울대동창회보의 지속적인 발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誠金을 보내주시는 동문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종신이사회비납부자
李龍洛(공대 53년졸, 시카고 지역동창회,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盧明鎬(공대 토목공학과 65졸, 남가주 지역동창회), 吳仁錫(법대 58입, 뉴욕지구동창회, 재미서울대학교 명예회장), 朴允洙(문리대 48입, 워싱턴 DC지역 동창회,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초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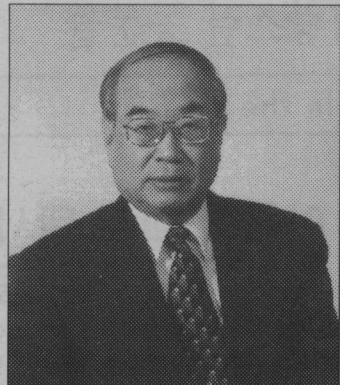
제 5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 추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林光洙, 공대 52년졸)는 제 5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각 지역동창회나 동문들께서는 이웃에 있는 동문들 중에서 母校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단체를 추천하여 2003년 1월 31일까지 서울총동창회의 관악대상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孫一根, 법대 64년졸)로 추천서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관악대상은 3개부으로 나누어 참여상, 협력상, 영광상 수상자를 결정하여 시상하게 된다(공고문 참조).

관악대상 후보자 추천요강
◆구비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접수마감일: 2003년 1월 30일
◆접수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위원장(손일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전화:02-702-2233/5, 팩스:02-703-0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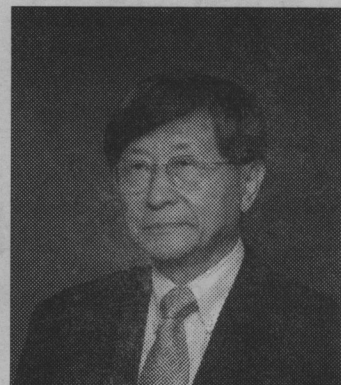
盧明鎬(공대 토목공학과 65졸, 남가주 지역동창회)



朴允洙(문리대 48입,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초대회장)



吳仁錫(법대 58입, 재미서울대학교 명예회장)



李龍洛(공대 53년졸,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在美서울대 同窓會報 발간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금년도 美 洲 冠 岳 後 援 會 理事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서울대 총동창회는 금년 6월로 지령 100호를 기록한 재미서울대동창회보의 중단없는 발간을 전체동문여러분들과 함께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美 洲 冠 岳 後 援 會 理事로 참여하셔서, 주소가 확인된 미주지역과 캐나다 및 서울 총동창회의 동문들에게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의 발간과 배포를 지원하고 계시는 아래의 同門들과 지역동창회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차고 격조있는 동창회보 발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28일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美 洲 冠 岳 後 援 會 理事會 理事명단(2002년 7월 1일-2002년 12월 28일까지 참여자)

◆일반이사◆

서동영(사범대 60입), 제영혜(가정대 71입), 정원훈(상대 38입), 정유석(의대 58입), 김용학(법대 70입), 소진문(치대 58입), 장기남(문리대 62입), 최호승(사범대 58입), 전현일(농대 62입), 강영국(수의대 67입), 송순영(문리대 52입), 구경희(의대 59입), 시카고지역동창회, 한재은(의대 59입), 이용락(공대 53졸), 엄무광(문리대 61입), 허운행(사범대 57입), 권승림(공대 52입), 김용진(문리대 48입), 김상순(상대 67입), 현재원(공대 60입), 정정수(의대 56입), 윤상래(수의대 62입), 강경식(문리대 55입), 오길평(치대 61입), 이준행(공대 47입), 김상각(상대 57입), 이운순(의대 52입), 김용재(의대 60입), 최영태(문리대 67입), 이진구(농대 60입), 이재덕(법대 60입), 한창섭(문리대 57입), 김기태(의대 58졸), 정승규(공대 60입), 조대현(공대 57입), 박창만(공대 56입), 권철수(의대 68입), 조지아지역동창회, 오덕점(의대 58입), 이상봉(문리대 65입), 이상문(상대 57입), 휴스턴지역동창회

◆종신이사◆

노명호(공대 61입), 이용락(공대 53졸), 오인석(법대 58입), 박윤수(문리대 48입)

모교 음대 연주단 켄자스 공연 녹화물 구입신청 받음

하트랜드지역 동창회(회장 이상문, 상대 57입)는 지난 8월 17일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여 하트랜드 지역동창회가 두번째로 가진 켄자스시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비디오와 CD로 제작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노력한 김호원 동문(하트랜드 지역동창회 이사장)은 타지역에서 이 음악회를 관람하지 못한 동문들의 많은 요청이 있다면, 비디오와 CD를 제작하여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보 발간기금으로 기부할 뜻을 밝혀왔다. 그런데 켄자스시 공연은 8개도시, 9번의 연주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시설(미주리 대학교 음악대학

정규공연장)에서 관악의 후배들이 연마한 탁월한 기량으로 보여준 '신선한 관악산의 화음과 정기'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320여명의 동문과 지역 음악애호가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은 바 있다. 이 공연의 녹화 비디오와 CD를 구입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사무국(주소 동창회보 1번 상단참조)으로 구입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판매가격은 CD와 비디오를 각각 우송료를 포함하여 20불로 예정하고 있다.

2003년도 미주의대 동창회 장학생 선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에서는 2003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동문 자녀 및 동포 학생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대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각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동포 자녀 및 유학생, 서울대학교와 서울의대 동문의 자녀로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 ▶분야: 의학, 과학, 경제, 법률, 문학, 신문방송, 예술분야 및 체육특기자 등 전공분야
- ▶모집인원: 5-6명
- ▶구비서류: 신청서(동창회 사무실에 비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지필소개서, 추천서 2통, 단체장 추천서(단체 또는 협의회 추천서)
- ▶신청마감일: 2003년 3월 31일
- ▶접수 및 문의처: SNUCMAA of North America/142-04 Suite 10U-A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전화 718-888-2622, 팩스 718-888-260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장학위원장 한 기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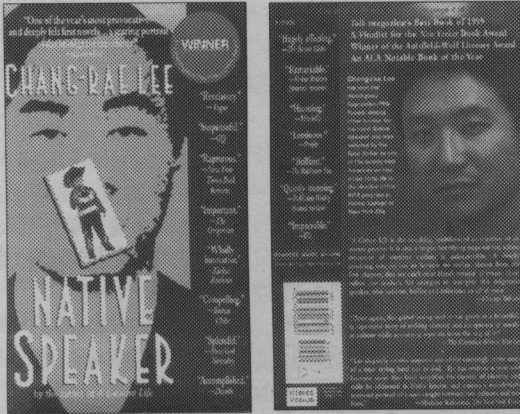
時調 6수

<創作詩>

미주한인청소년재단 창립 10주년기념 이민문학 독후감 현상모집

◇올해의 독후감 대상 작품◇

- ◆Chang-Rae Lee, Native Speaker, New York Riverhead Books, 1995, 349면
- ◆Chang-Rae Lee, A Gesture Life, New York Riverhead Books, 2000, 356면



미주 한인사회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전수하면서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 있는 미주 한인청소년 재단이 2003년이면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본 재단에서 창립 1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청소년 에세이 공모전을 확대하여 '이민 문학 독후감'을 현상공모 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 주류 문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코리아인 아메리칸들을 미래의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소개함과 동시에 그들의 작품 속에 녹아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코리아인 아메리칸의 정서를 접하게 함으로써 세대차와 생각의 차이를 극복해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해당작가와와의 대화모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대상: 미주지역 거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생
 - ▶응모방법: 프린스턴대 이창래 교수의 '네이티브 스피커'나 '제스처 라이프'를 정독한 후 독후감을 작성, 본 재단으로 우송 또는 이메일 바람.
 - The Korean-American Youth Foundation
 -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 E-mail: koreanamericanyouthfoundation@yahoo.com
 - ▶독후감 작성언어: 영어(한글은 제외)
 - ▶응모기간: 2002년 11월 1일-2003년 2월 28일 사이
 - ▶심사방법: 사계의 권위자들에게 위촉 심사한 후 결과발표
 - ▶시상내역: 고등부 당선작 1편-\$1000, 대학부 당선작 1편-\$1000, 대학원 당선작 1편-\$1000
 - ▶당선작 발표: 2003년 4월 세계일보 지상
 - ▶시상식: 2003년 5월 재단 창립기념식에서 가행 예정
 - ▶전화: 718-768-1264 팩스: 718-768-0254
- 주최 미주한인청소년 재단 / 후원 세계일보 / 협찬 고려서적

동주가 모래람서

朱耀翰(1900-1979)

동지가 모래람서 실비가 온단 말가
오늘은 아침부터 함박눈이 퍼붓는다.
천막에 들치는 바람이 얼마나 더 시리리오

오백리 긴 전선이 눈바다가 되었겠지
천미터 솟은 봉을 길 헤치며 오른다지
온돌에 불때고 앉아 더욱 간절하여라

집 떠나 셋째겨울 오늘 어디 누웠느냐
누이들 동생들은 방학이라 손꼽는다.
맘놓고 자라들가니 보람인줄 알아라.

소식이 없는 것은 별고없는 까닭이라
큰소리 장담하고 불끄고 눈감으니
생각만 밤하늘에 떠서 천릿길을 가노라.

찬달이 높았으니 고향생각 절로 나뉘
옛사람 울고 남아 식었음도 하다는
매양에 가슴 즐리이니 울다 웃다 하노라

다락에서 찾은 것이 내가 쓰던 모자더라
훗날에 와서보면 그때 시절 생각나리
눈 위에 달빛어린 밤을 새워볼까 하노라.

친구 어머니를 문상(問喪)하고

문복남(文人, 南海 尙州浦 거주)

송탄 경기병원 아산위로 시름 한움큼 전
겨울 새 한마리 허공 위를 맴돈다.
영안실 3호실에 빛바랜 흑백 사진으로 남은
친구 어머니를 올려다본다.

고운 새색시에서 평생 고단한 몸 마음껏 누이지 못했을
고덕 좌신기 아나으로 한 평생 짝이던 무개를 이제는 훌훌 놓고
북망산 어느메쯤 가시고 계시 친구 어머니를.

나를 보면 수줍게 웃어주던 기슭이 얼골은
어미웠은 새끼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허허롭게 앉아 있다.

구멍뚫린 가슴이야 시간으로 메워진다지만,
한없이 따듯했던 어머니 등지 속을 어찌 잊으리.
모락모락 데워진 국물에 쓴 소주를 들이키는 좌신기 어른들의

허연 머리위로 화투짝에 늘린 슬픔 한덩이 떨어지고,
받은 만큼 돌려 주고 싶은 자식들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어머니들 북망산에 자리 잡으려 가신다고 휘이 휘이
떠나는 우리 나이 사십. (2002년 12월 20일자)

<편집자 주> 주요한의 시조는 시카고한인사회복지회 창립 30주년 기념 朱耀翰 詩選(2002년 12월12일) 14면과 16면에서 전재. 아래 사진은 "인터넷 한국"을 상징하는 남해안 尙州浦의 한 동호인께서 주셨습니다.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 | |
|-------------------------------|----|
| 동지가 모래람서/주요한 | 3 |
| 친구어머니를 문상하고/문복남 | 3 |
| 광고국장을 찾습니다/강영국 | 1 |
| 사랑의 醫術/홍건 | 5 |
| 동창회 문화유감/오태희 | 6 |
| 서울대학교를 위한 변명/방준재 | 6 |
|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도네가와 수수무 /김일훈 | 7 |
| 수석졸업보다 소중한 것들/김명자 | 8 |
| 나의 스승/조순 | 9 |
| 모교정년퇴직 교수 17인 | 10 |
| 철학도의 일생/JOHN RAWLS | 11 |
| 바람직한 한국의 대통령/ 조익현, 백준철 | 12 |
| 수수께끼 같은 복핵담화/하영선 | 13 |
|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미국의 對北韓 정책/美國時論3편 | 13 |
| 외교문서의 정신에 대하여/김용구 | 15 |
| 유전자 단위로 밝혀진 위암 원인/배석철 | 16 |
| 기독교인과 성경/김종원 | 17 |
| 찍는 점 하나로/이태상 | 19 |
| 약대 동창회 유럽 여행기/고강희 | 20 |
| 서울대 개혁의 과제/유근배 | 23 |

변화하는 세계, 발전하는 韓國

送舊迎新의 달에 文筆과 論考란의 글과 자료들은 여전히 戰雲이 감도는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서 한국의 발전을 내다보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母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미 동창회가 문제점으로 파악한 母校의 우수한 신입생 선발 방안,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의 예로부터 창의적인 學者의 길, 사회의 棟樑이 될 인재를 기르기 위한 재미 동문들의 자녀 교육 경험, 평생을 母校에서 봉직한 스승들, 기억에 남는 나의 스승상 등으로 母校를 한국의 최고 대학으로부터 세계적인 선진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일에 있는 제 16대 대통령 선거는 權威主義 정권 아래 이루어진 허울좋은 選舉와는 달리 평화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당선자 盧武鉉 후보에게 축하와 아울러 발전하는 한국을 이끌 현명한 지도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善戰하였으며 당선자와는 다른 분명한 政策 代案으로 한국정치발전에 기여한 우리 同門인 李會昌, 權永吉 후보에게 갈채를 보내고자 한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민족의 자주외교 역량의 발전을 위하여 생각해볼 문제,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정신문화를 高揚하기 위하여, 서구문화의 본거지를 紀行한 뉴욕 약대 동문들, 서구문화와 한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독교를 바로 알기 위하여 기독교인에게 성경은 무엇인가? 한국의 토착 종교인 東學의 근본원리를 논술한 우리 동문들의 玉稿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우리 동문 필자들의 다양한 주제의 글을 모아 풍요로운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를 만들고자 한다.

同窓會報 廣告局長을 찾습니다

강영국(수의대 67입, 재미서울대동창회보 광고위원장)

< I >

歲暮에 나의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 질문을 여기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웃사촌간의 慶弔事를 나누는 서울대 지역동창회들 말고 또 다른 서울대인의 조직이 필요한가? 둘째는 미국에 사는 우리가 매달 "卒業證明書"를 다시 받을 이유가 있는데 "재미서울대 동창회보"란 것을 힘겹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설립 12년만에 다시 존립의 위기에 처한 듯한 재미서울대총동창회와 재미서울대동창회보가 처한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의 재미총동창회의 방향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한 동문으로서의 所懷를 적어 나의 자기반성과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펴려하고자 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대거 확장된 이민사회 붐을 타고 미주 곳곳에서 서울대 지역동창회가 속속 조직되고 운영되어 오다 10년 남짓한 성숙기를 거친 뒤엔 결국 미국 정치의 본고장인 Washington D.C.에서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란 전체의 이름을 걸고 일단의 그룹이 출범하였다. 이때는 미주 지역 서울대 동문의 숫자가 제대로 파악된 것도 아닐 뿐더러 지역별 동창회의 여론이 수렴된 것도 아닌터라 단지 몇몇 소수 지역 대표 동문들에 통보를 하고 발기 총회를 거쳐 정관을 만들고 회장을 뽑고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조직의 운영은 임원진이나 소수지역에서 출현한 財源의 의존할 수 밖에. 그러다 동문과 교포들의 규모에 있어 수적 경제적으로나 故國을 향한 정서면에선 남가주를 능가할 수가 없는지라 결국 본부가 LA로 넘어가서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되었으리라. 그런데 경제적 열쇠를 쥐는 "理事會"가 신문발간을 하게되니, 기실 <재미 서울대학교 總同窓會>는 아무 할 일이 없이 뒷짐지게되고, 동창회보의 편집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坐視 할 수 밖에 없었으리라. 당시로서 총동창회가 지역 동창회들과 다른 것은 오로지 신문발행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이사회에서 쥐고 있으니 동창회장의 자리는 잠잠해 말해 그야말로 名譽職 그 자체가 아니었던가?

韓人社會에서 많은 교포단체가 대개 그러하듯이 어떤 단체長職을 맡는 사람의 위치는 교포사회에선 아무런 가치나 기능이 없다. 본國과 연결될 때엔 代表性을 인정받고 본국에 들어가 명함을 내어 밀 때에 그야말로 숨어있던 가치가 빛을 발한다. 성공한 재미동포로 가는 곳마다 빛이 반짝이기 때문이다. 잘만하면 본국에서 한 자리를 할 수도 있고 또 크마한 사업체도 하나 연결질 수 있는 기회도 올 지 모르지. 이런 同胞들을 "해바라기" 닮은 일관단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失禮일까?

그런데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일이야 하든 말든 美州에서의 유력한 사람들의 큰지막한 한 조직의 長의 명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음을 모르고, 오직 일꺼리만을 찾다보니 유일한 사업인 신문만들기를 놓고 理事會와 한편 힘겨루기를 벌인 모양이다. 그런 뒤에 여론의 대세는, 會長이 어디까지나 실무책임자니 총동창회에서 동창회보 발행을 맡고 理事會는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라는, 그야말로 "곳이나 보고 돈이나 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 같다. 基金모금 때문에 힘겨웠고, 그 힘겨움의 댓가로 行世하지 않았던가? 行勢할 수 없는 판에 힘겨운 자금조성만 떠맡는 것은 정신나간 일이 아닌가? 그래서 理事會의 잠적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그렇지 않아도 한인사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크고 작게 수없이 돈이

뜯겨 나가는데 그 지역의 유지들이 우리 동문들이 "총동창회 이사"로 영입되어 돈줄로만 작용하기가 싫은 것이 교포 1세의 老齡化현상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듯 싶다.

두 조직간의 힘겨루기에서 "영광의 승리"가 가져다 준 결과는 년 예산이 십 오만불이 넘는 經費 뭉치뿐이었다. 총동창회장은 제한된 숫자의 임원진과 함께 년 예산 십오만불 이상이 소요되는 동창회보 발행사업을 운영하려니 부득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재력가가 그 짐을 짊어질 수밖에. 일면 이 현상은 상당히 바른 방향이라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韓人僑胞社會의 行態論에 의한다면, 같은 노력과 금전을 투자할 경우엔 "理事會"의 이름보다는 總同窓會長이란 명함을 내어 밀었을 때에 훨씬 강한 빛이 발휘 될테니까 말이다.

혹자는, "대학 동창회가 무슨 名士會모임이냐? 학교 다닐 때엔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녀석이 훗날 좋아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설치게 하면 안되지. 절대 그럴 수는 없다. 모든 교포단체가 다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더라도 우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만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모두가 참여하는 풀뿌리 정치"를 시도하자, 앞에서 설치는 소수대신에 정미주에 산재한 모든 동창회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일해가는 동창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라고 반박할 지 모르겠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순수하고 어리석고 다른 면으로는 숭고하고 이상적인 시카고 지역 동문들의 발상이다. 移民 一世代의 韓國同胞社會 체질에 故國으로 귀주는 경향이 있다면 故國과 끈끈히 연결된 強度나 "韓國식 정치스타일" 있어서는 시카고는 LA나 New York 동포사회를 능가할 수 없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아무리 민주주의 풀뿌리 기반을 닦아 두더라도 재미총동창회 본부가 타지역으로 넘어가면 하루 아침에 "한국 스타일"로 변모하고 말 것이라는 것은 나만의 가우일까? 나는 시카고에 뿌리를 내렸고, 이곳 생활에 익숙했기에 물론 시카고 스타일을 찬양한다. 그러나 본인은 다른 조직 운영방식도 존경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고 싶다.

특히 비영리 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조직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이라던 여럿이 하려도 힘겨운 일을 혼자서 아니면 극소수가 같은 質과 量의 일을 무시하 꾸러 나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찬양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그결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조직의 長으로서의 名譽를 그 대가로 얻는 것은 利己적인 인간사회의 자연법칙일 지 모른다. 물론 비영리 단체 그 자체를 자기 명예획득의 수단으로 濫用하는 우리 동문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며 비영리 단체나 조직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奉仕와 犧牲이 거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겠는가?

< II >

한번 한번 미주사회의 각계 영역에서 성실하고 열심으로 살고계시는 우리 동문들에게 이런 말은 큰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다. 학교 점수에 민감했던 서울대학교 출신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자칫 학교 성적의 優劣을 사회생활로 연장하여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잡재의식으로라도, 運이 따르지 않아 직위나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고 때엔 인간의 존엄성 자체마저 깡개치고 숨어사는 "敗人정후"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러한 廢通者나, 敗人정후 또한, 黃金萬能主義나 職位萬能主義의 "우상숭배"의 또 다른 표현은 아닐까? 라고 자문 한다.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내가 나온 나의母校와 동창회에 너만큼은 보탬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몫을 하리라" 라는 參與者의 자부심과 "너야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傍觀者의 무관심을 평가하여 어느 것이 진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자세인가? 라고 묻는다면 말하리라. "成功"에는 한가지 기준도 없거니와 꼭 성공한 자만이 동창회를 위해 일한다면 가장 최고로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테고 동창회는 혼자서 꾸러 나가야 한다는 怪論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동창회는 母校를 졸업한 業 때문에 떠나있지 참여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運命的인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參與라는 의식 자체가 우리 동창회의 미래의 성격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學敎는 人生을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참여하는 民主市民이 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직위나 가진 지식도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본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모두 富를 누리야 한다는 사고 역시 立身揚名이라는 儒敎 사상의 산물이라. 그 사상 때문에 아직도 韓國은 일시지옥과 치맛바람과 직업귀천사상이 팽배하여,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非人道的의 차등사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수입이 있어도 어떤 이는 풍부하고 어떤 이는 항상 飢餓이 살아가는 이유는 인간생활이나 성품이 만가지 다른 이유에서이지 그자의 능력 때문으로만 볼 수가 없다. 한 연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회 생활에 IQ는 4-20%의 영향을 미치고 EQ가 80%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정말 서울대학교 출신들은 자각해야 할 일이다.

지금 재미서울대 총동창회는 어떤 지경에 있는가? 나는 최근에 구성된 광고위원회에서 광고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도 전무함에도 광고위원장이라는 책임을 맡게 되어 동창회를 가까이서 보게된다. LA나 NY에서 동창회를 꾸러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을 때는 재정도 충족하고 내용이 어찌됐든 아무런 문제없이 "신문"이 잘 발간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막상 가까이서 보니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財政부더 심히 쪼들리고, 수준 있는 원고도 부족하고, 임원구성조차 쪼들리니 모든게 설상가상인 듯 하다. 연료하신 會長님은 겁없이 총대를 메었으니 밤잠 설침은 당연지사라 치더라도, 우리 동문들의 지적 수준과 글자에 합당한 내용을 가진 불만한 동창회보 "知性人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어 보자고 뛰어들어 타자수 한 명 데리고 晝夜로 고심하는 후배 편집인은 매우 어리석은 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뒷짐지고 있는데 한 두 사람이 희생한들 무엇이 되겠는가?

질천여 우리 재미동문들이 일상의 바쁜 중에도 조금씩만 참여 의식을 발휘한다면 재미서울대 총동창회는 미주사회에 삶의 뿌리를 내린 우리 동문들과 교민들을 위한 보다 뜻있는 사업을 펴는 조직이 되고 우리 "재미서울대동창회보"는 더욱 내용있고 의미있는 지면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내가 참여해 도울 수 있는 일로, 반권이 있으면 허영계 비워놓는 것보다는 남들이 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족한 글이라도 보내서 멀리있는 동문들과 글로서 대화하며, 내가 모든 이의 구독료를 다 감당해 내는 天福을 타고나진 못했지만 내 구독료를 빼고 보내다 運이 없는 다섯명 정도의 어느 동문들의 일년치 구독료는 내가 감당하는 작은 일들로 어려운 짐을 진 분들을 도우려 했다. 그러나 나의 작은 노력만으로는 태부족이다. 32명이 나와야 하는 신문의 한 모퉁이를 메우거나 십오만불이 필요한 동창회보 발행 예산에 내가 내는 삼백오십불이 무슨 감

당할 수 있었는가? 나는 "名士집단"엔 처음부터 관심이 없다. 내 일상생동한 돈이 남아 돌아간직은 한번도 없다.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위해선 사업 방향이 올바른 것이라면 참여하는 정신은 잃지 말아야 하고, 만약 추진되는 사업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조용히 걸어나가고 만다. 나의 고민은 동창회라는 조직은 내가 걸어나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내 등어리에 "SNU" 도장이 찍혀 있고 이 도장은 내 죽음까지 따라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검증고사나 할 걸 그랬나?

우리 동문 모두는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원들을 가진 재미서울대동창회는 "내 없다고 서울대동창회에 무슨 일이 생기겠나?"라는 방관자적인 분위기의 지배 속에 그 존립은 이제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무분별한 "世界化"의 이름하에 우리 정신문화의 귀한 유산을 비하하는 풍조 속에서, 비록 삶의 뿌리는 미국 땅에 두었다더라도 모두가 자기분야에서 하나의 식견을 가진 우리 동문들이 쌓은 지식과 경험을 우리 말로 된 정연한 글로써 나누고, 나와 우리친구와 우리의 자제들의 소식을 나누는 알차고 격조있는 "재미서울대동창회보"를 만들어보는 일에 興趣를 제기할 동문들은 없을 것이다.

우리 동문들이 조금만 참여의식을 보여준다면 "韓國의 最高大學"으로부터 "世界의인 先進大學"으로 변신하고자 하는 母校를 도울 역할을 결집하는 재미동창회가 되고 미주 한인100주년이 되는 금년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민사회에 우리의 글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지켜가고 교민사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7000여 재미 동문 중에서 학생들을 빼면, 실제로 크거나 작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상주하는 동문은 5000여명이라고 한다. 이 사람들이 나누어 보는 년 십오만불의 동창회보 발행예산을 우리 동문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서울대 졸업생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미국에 와서 사는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일년에 서울대동창회보 "구독료" \$60을 돈이 없어 못내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연민의 과정을 극대화해서, 만약 지금까지 내도 안내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구독료"를 못 낼 형편의 동문이 전체의 반에 이룬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되는 동문이 일인당 한 동문 몫만 더 내어 주면 소요경비 \$150,000 (60X2500=150,000) 이 된다. 그런데 지난 한해 동안에 동창회 신문의 32면 지면 중의 얼마나 많은 면이 구독료 및 운영비 모금문제로 할애되었던가? 많은 동문들이 이러한 신문 편집에 열정을 느끼고, 또 공식 비공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날린다.

< III >

LA 스타일이든 시카고 스타일이든 우리는 총동창회 운영과 신문 편집에 필요 충분한 예산을 위해 정당하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조만간엔 총동창회의 존속은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는 실무진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는 미주에 사는 모든 서울대 졸업생의 책임이다. 작년회계연도에 1,391명의 동문들이 일인당 50불씩 \$71,458의 구독료를 보내고 129명의 뜻있는 분들이 낸 \$56,970의 "미주관악 후원회 이사회비"의 성금으로 간신히 동창회보를 중단없이 발행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금년도 구독료정정서가 나간 후 한달만에 700여명의 동문들이 구독료를 납부하자, 어느 동문은 이제 관악후원회비가 필요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죽 좋으랴?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문들이 적어도 2,500명은 동창회보에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어야 한다.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강 밖의 불구경인 듯 싶

다. 결국 현재 상태에서 동창회보에 관심을 두는 동문들의 수적 한계에서 실무진들은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한 듯하다.

첫째는 지금까지 동창회보에 애정을 가진 독자들에게 \$10씩 더 부담을 지워 구독료를 60불로 인상하였다.

둘째는 商業성 광고를 실어 광고료로 영구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광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분수없는 내가 광고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 전무한 채 "광고위원장"이라는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나는 밤잠을 설치며 다시 생각해 보니, 능력없이 소임을 맡은 듯 하다. 參與를 내세우며 아무데나 덩법덩법 달려드는 내 성격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신문 구독료 안내들 동창회보는 받아볼 것이고, 지역 동창회 이사회비도 몇 번만 안내면 거기서 빠질 테고, 관악 후원금도 내몰리라 하고, 신문의 공간이 백지든 이빨 빠지든, 실무진이야 지쳐서 파김치가 되든 말든 自業自得으로 치부하면 될 텐데 말이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동창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 돌려버리거나 (무관심파), 동창회 일이나 名士들이나 하는 짓이지 나 같은 俗物이 감히 그런데를 (자기비하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서 고생하는 일이지 뭐 (비이양파), 그뿔잖아도 바빠 죽을 지경인데 별게 다 속을 썩이네 (내비하파), 내 전공 그룹에 내는 돈도 빼듯한데 별 볼 일 없는 총동창회 일로 왜 열올려 (전문지파), 관혼상제나 상부상조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전국 동창회가 무슨 소용있어 (지역파), 가정-직장-교회 세 곳이 삶의 유일한 노선인 사람(교회파), 신용기록에 빨간 줄이 가지 않는 어떤 채무도 지지 않는다(실속파), 나는 더 이상 세상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으니 제발 가만히 내버려둬 줘 (업세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왜 떠맡아? (성공파)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들같이 初志一貫 무관심으로 나갔다면 나는 이런 능력 밖의 일을 맡은 분수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꼭, 큰 트럭 바퀴에 대고 시원스레 관망하고 있는데 그놈의 트럭이 앞으로 주욱 빼어 달아난 순간의 그런 황당함 말이다. 그래서 나도 이대로 당하고 살 수만 없다. 내가 들어 동창회의 장래를 맡아먹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본인은 아래와 같이 유능한 廣告局長을 찾아보고자 한다.

광고국장을 찾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재미서울대동창회보의 광고효과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현재 실제 배포부수가 5,000여부가 되고, 그것은 광범위한 北美州 전체의 동문과 본국의 총동창회의 유지들에게도 보낸다. 독자적인 대부분의 동문들은 상당히 수준 있는 생활권에 있으며, 특수 월간지이기 때문에 일반 신문처럼 한번보고 버리지 않고 장기 보관하는 장점이 있다. 전국을 상대하는 사업이나 전문지종은 광고효과가 엄청나리라 믿어진다. 또 광고 효과는 본국까지 파급될 것이다.
2. 시적이 좋아야 끝이 좋단 말이 있듯이 전문적인 광고를 공부하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시작해야 장기적인 동창회 운영 자금 조성과 보다 발전하는 동창회보의 발간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3. 현재로 비영리 단체로서 운영에 필요한 기금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지속적인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4. 광고수입으로 동창회가 자립이 되면 동창회 사업이나 실무진의 구성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진정한 능력의 소유자가 일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필자 연락처 708-599-4800)

同門탐방

사랑의 醫術을 베푸는 기독교인

洪建(의대 70년졸) 동문

基督敎의 사랑의 정신으로 醫術을 베풀어 세계의 오지(奧地)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동문이 있다. 洪建(의대 70년졸) 동문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로서 지난 여러 해 동안 醫療宣敎에 참여하였다.

그 동안 남미의 페루, 베네주엘라, 혼두라스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두 해에 걸쳐 진료해왔다. 2001년도에는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와 인도의 나가랜드를 방문하여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기독교의 福音을 전하는 宣敎활동을 하였다. 그는 물이 부족한 사막의 나라 모리타니아에는 기생충병, 소화기 질환, 많은 전염병, 빈혈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이 치료하였고, 히말라야 산맥의 高地地帶에 위치한 나가랜드에는 소화기, 호흡기 질환과 기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가지고 간 의약품을 나누어주었다. 인도에 갈 때에는 의과대학에 다니는 아들 Joe와 3명의 의대생과, 홍 동문이 이사로 수고하는 복침례교 신학생 두 명이 의료선교단을 이루어 다녀왔다. 낮이면 진료실을 운영하여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아침에는 예방 의학 강의, 저녁에는 부흥집회를 통하여 선교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지냈다. 두 주간의 봉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Joe를 비롯하여 모든 의대생들이 앞으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여 더욱 뜻 깊은 선교여행 되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Peru를, 그리고 9월에 Chile를 다녀왔다. 이번 여행에서도 의료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돌아 왔다. 이번에도 그의 활동사항은 홍 동문이 근무하는 병원(Little Company of Mary Hospital) 뉴스레터에 보도 되어 병원의 동료들이 헌 옷과 장난감을 모아다주고, 또 의사나 간호사들이 의료선교에 대해서 문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그는 내년도에 봉사활동을 할 선교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가능하면 4월에 Mongolia를 가려고 하고 또 Mexico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洪 동문은 자신이 臨床을 다루는 의사가 아님을 안타깝게 여기고, 앞으로 은퇴를 계획하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동문 중에서 임상 의사 선배님들이 이 의료 봉사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洪 동문은 또한 美術에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 있어 선교지에 갈

때마다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니며, 이국적인 풍경과 색다른 의상을 입은 원주민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와 글과 그림들을 합쳐서 작은 책으로 묶어서 선교여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곤 한다. 그리고 3년 전 그루터기란 개척교회를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워 참된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을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다. 여기 그의 아름다운 미술작품이 곁들인 洪 동문이 근무하는 병원의 소식지를 전제한다. <편집자는 洪 동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신 조대현 동문(전 시카고 지역동창회장)께 감사드립니다>

의료 선교일지 <1>

Dr. Hong Returns From Two Missions

Kuhn Hong, M.D., a Little Company radiologist, travels to different countries each year to help the needy as a medical missionary. This year, Dr. Hong went on back-to-back missions in May and June.

The first trip took him to Mauritania in West Africa,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all of Africa. He worked in a clinic run by the city of Nouadhibou, treating more than 600 patients in one week. Many of his patients suffered from gastroenteritis, parasites, infectious disease, anemia and malnutrition. There is a critical shortage of water in this desert country, which contributed to poor hygiene and all kinds of infection, including fungal skin disease.

Dr. Hong was grateful to bring medical supplies donated by many organizations, including King International Benevolent Fund, MAP International and International Aid. He brought boxes of used glasses, clothes and toys as well. One of the worst cases he saw was a boy with a neglected burn—a week-old dressing covered the infected skin. Dr. Hong cleaned the wound, applied antibiotic 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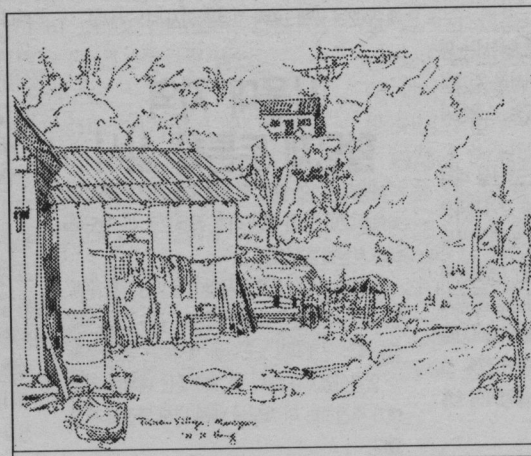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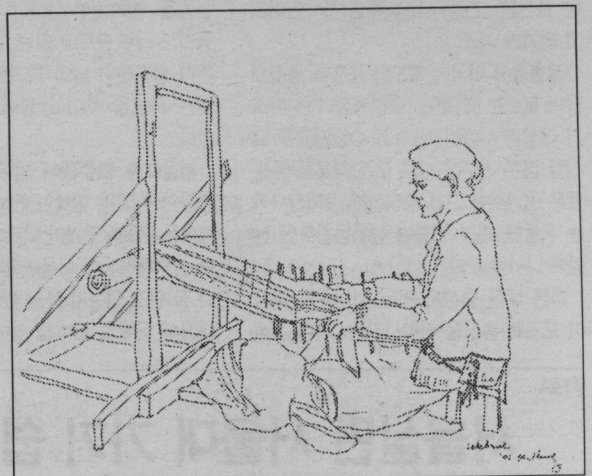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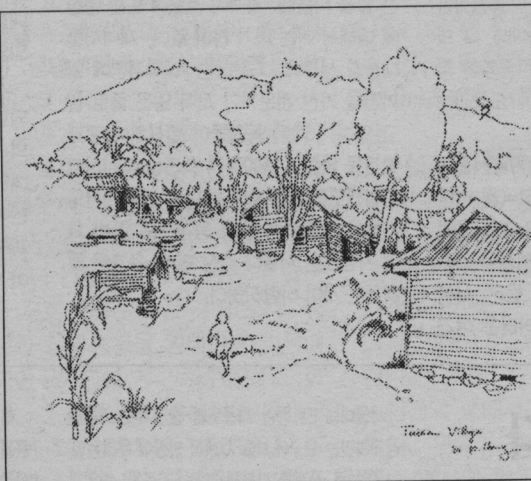


ment, gave Ampicillin, and changed the dressing every day. The lucky boy had a complete recovery after a couple of weeks of intensive, loving care.

Just days after his return from Africa, Dr. Hong received a frantic call from his son, Joseph, who is in medical school at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in Fort Lauderdale, Fla. Joe, a qualified EMT Technician and a previous mission volunteer, worked at Little Company's Emergency Department before going to medical school. He and his classmates organized a medical mission to India, but

found that the faculty member who was to lead the mission could not go due to scheduling conflicts. Joe asked his father to recruit any physician to go on the mission and supervise the team of students. Dr. Hong discussed the request with his associates and volunteered to go himself. He made arrangements to have associates take his calls. Dr. Hong, four medical students, one college student and two seminary students went to Nagaland, India, on June 2, only nine days after returning from Africa! Nagaland is locate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India,

<사진맨위> 진료중인 Dr. 洪. <사진 아래> 진료 현지에서 닥터홍이 그린 풍물들.



ear the Himalayan Mountains, and is inhabited with primitive tribes called "Naga." The team worked in the mountainside, where there was no running water, electricity or telephone service available. They treated more than 1,700 patients in 10 days of their medical clinic.

At the end of the short trip to India, all the medical students committed to become full-time medical missionaries after graduating from medical school. It was a nice answer to Dr. Hong's prayer. The students want to go on another medical mission trip in the next year, to continue their interest. Dr. Hong hopes to accompany them on another of their missions.

We thank Dr. Hong, and his fellow missionaries, for being living examples of the mission of the Hospital. <자료원: ROUNDS, Evergreen Park, IL, Little Company of Mary Hospital, July 20, 2001, P.2 >

< 선교여행에 같이 동참하여 수고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동문은 630-654-31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투고요청]

母校 신입생은 어떻게 선발해야 할 것인가?

[투고요청] 재미서울대 동창회보는 104호 1면과 105호 6면에서 보도한대로 모교 정운찬 총장이 지난 8월 13일자 기자회견에서 밝힌 신입생 지역할당제 선발방안에 대한 정총장의 복안(腹案)을 듣기 위하여母校에서 제정한 기자회견을 계획하며 이에 대한 동문들의 설문조사 등을 모으고자 한다.

현재母校는 한국의 최고대학으로부터 세계적인 선진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당면하고 있다. 즉 수도권과 대도시의 과밀화된 인공과 사회, 경제 및 문화 자원의 집중에 따른 도시와 지방간의 현격한 격차, 중고교 입시 準化 제도의 실패와 일부 사회계층에 편향된 무분별하고 그릇

된 '세계화' 풍조에 따라 유행하는 조기 유학 및 신생아 출산을 위한 해외여행풍조 등으로 한국은 敎育제도의 전반적인 空洞化를 초래하는 '이상한 나라'(장동만 동문)가 되어 가고 있다. 남에게 뒤지지 않는 자녀 敎育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려야 한다는 학부모의 강박관념에서 나온 天文學的인 私敎育 비용은 사회전반에 잠재적인 부정부패 요인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이미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말썽 많은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대학의 신입생 선발정책마저 관여하는 敎育정책 資源부의 통제로 모교는 우수 학생을 선발할 자율적 입시 제도를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이번 '신

입생 지역할당제' 논란에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사태를 감안하면母校의 신입생을 어떻게 모집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수한 人才를 선발하는 방법인가? 모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敎育제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미(焦眉)의 과제가 우리 동문들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재미 동창회보는 재미 동문들의 의견을 집약하여母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柳 기획실장이 제안한 鄭秉勳 總장과의 기자회견을 2월 중에 갖고자 한다. 이 기회를 통하여 鄭 總장의 '입시지역할당제' 구상뿐만 아니라 현재 좁은 관악산 아래 전체 단과대학이 거의 집중되어 창

의적인 젊은이의 상상력을 기르기 어려운 포화상태가 된 교정, 소위 '대학원 중심 敎育'이란 한국의 敎育인적정책에 큰 짐을 짚어 가로말야 내실있는 대학원 敎育을 시행하기보다는 한국의 최고대학이란 성가(聲價)에 따라 관악산에 몰려드는 보통인재들, 모교출신들이 기피하는 희망 없는 대학원 敎育의 場으로 되어 가는母校를 세계적인 선진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하는 동량(棟樑)과 창의적인 學者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회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재미동창회보는 모교의 敎育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鄭 總장의 복안(腹案)을 듣고 토론하여 재미

동문들의 관심사와 경험을 모교발전엔 반영할 기회로서 이 기자회견을 활용코자 한다. 여러 동문들께서는 모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총장에게 질문할 설문과제(設問課題)를 1월 31일까지 보내주시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데 경험이 있으신 동문들께서는 太平洋을 넘어 진행할 이 회견에 기자로 초빙하시거나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교를 고양하는 건인차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재미서울대 동창회의 목적을 구현하는 길이며 이번 신입생 지역할당제 논란이 제기한 意義가 될 것이다.

< 23명의 '母校개혁의 과제' 참조 >

서울대학 신입생 선발제 논란에 관하여

同窓會文化 遺憾

오태희 (64년 의대졸 Yale 의대교수)

정운찬 총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지역할당제 도입 의사를 발표하자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104호에는 뉴욕일원의 60세 이상의 재미동창들이 하나같이 지역할당제를 극구 반대한다는 기사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105호 (11월)에는 유근배 모교 기획실장이 총장을 대신하여 김정수 편집인 앞으로 서신을 보내 지역할당제에 대한 해명을 하고 이에 대한 한창섭 동창의 기고문을 실었다. 나는 지역할당제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바가 없어 논평할 수가 없고 사실상 그럴 자격도 없다. 다만, 지난 10월과 11월에 출판된 재미동창회보에 실린 기고문을 읽고 나서 재미동창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몇 가지 피력한다. 우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이라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거칠은 표현은 진정 서울대출신의 언어나고 믿기가 어렵다.

◇정총장이 미국의 제도와 문화를 몰라도 많이 모르는 것 같다. ◇정총장이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할당제를 고집할 경우 미주에 사는 모든 서울대 동문들은 골기하여 그를 총장직에서 퇴진시키는 운동을 벌여야 하며 뉴욕동창회가 선봉에 나서야 한다.

다른 대학 출신도 아닌 서울대출신 이 모교의 총장을 비하시키는 이런 감정

적인 표현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음은 선후배의 서열이 군대 계급 같은 동창회의 선배의식이 잠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여담이지만, 신입총장이 선출되자, 아니 그 친구가 몇 년도 출신이야, 그런데 벌써 총장이야 하고 선배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운찬(상대 70년졸) 총장은 후배라도 한참 후배이며 역대 총장 가운데 가장 연소한 총장이다. 만일 신입 총장이 대선배였다면 이런 발언은 아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못 하였을 것이다.

각설하고, 선배라는 이유 하나로 총장이 하는 일에 관여할 수는 없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학전형 지역할당제를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본국 동창회도 아닌 재미 동창회가 나서서 총장을 사퇴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니 내가 동창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내 의견이 중요하면 남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미 동창회원이 모를리는 없다.

서울대학 교수들이 법에 따라 선출한 총장인데 거의 반세기 전에 고국을 떠난 재미동창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열을 올리는 선후배들에게 서울대학의 현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서울 대학이 국제화 시대를 맞아 어려운 여건

에 부대끼고 있으니 보기에 민망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재미동창회가 선출한 총장도 아닌데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선출되었으니 믿어야 하고 도와주는 것도 동창회의 임무이다. 더구나, 청와대 비서관이나 교육부의 입김에 서울대학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말에 선거를 통하여 차루어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다. 그가 서울대학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누가 대통령에 선출되든 서울대학총장이 청와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한국의 실정으로는 아직도 시기상조이다. 신입생 지역할당제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안건이 아닌가? 재미 동창회가 열을 올린다고 총장이 당장 그만 둘 일도 아니다. 동창회의 여론을 수렴해서 총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고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다. 누가 나서서 총장과 전화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할당제를 포기하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이 더 있는가? 거듭 말하지만, 나는 모교의 총장이 하는 일을 비평할 자격이 없으며 또한 총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재미서울대동창 선후배 가운데는 대학경영에 일가견을 가진 전문가가 적지 않은 줄도 알고 있다. 이런 동창들이 합심하여 모교 발전을 위하여 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신입생모집절차 뿐만 아니라 제반 건의 사항을 제출하여 본국 동창회와 함께 과연 자랑스런 서울대 출신답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대학교를 위한 변명

방준재 (의대 63년, 청소년 재단 회장)

"가슴마다 성(聖)스러운 이념을 품고"로 시작되는 서울대학 교가를 부를 기회가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1970년 졸업 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치 이민 온 후 애국가를 부를 때와 같은 감회다. 그것은 대학시절이 갑작스레 다가오는 추억 때문일 것이고,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향수일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 인생의 황금시절, 그 잃어버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것이다.

열 여덟에 시작된 대학시절은 난생 처음 고향을 떠난 해이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향수, 그것의 시작이었다. 무엇인가 자신을 감싸고 붙드는 안온함과 따스함이 없어지고 낯설고 물심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려는 정신적 공허감과 실패에 대한 공포감 속에 방황의 계절이 시작되었던 시절이기도 했다.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자유이 요구되던 시절이었고 사랑이 싹트고 사랑의 애뜻함 속에 가슴 저미던 세월이 대학시절이 아니었던가. 자신은 누구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고뇌의 세월과 젊음의 구가 속에 '삼머세트, 모음'이 있었고, '헤르만 헤세'가 인생의 길

잡이를 해주던, 하나의 자기탐구 기간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母校 서울대학교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를 않는다. 진보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분배 위주 개념을 여기까지 적용하려는 지 서울대학 폐지론을 거론하더니 어느 교수는 신문칼럼에서 '쓴소리'인지 밥먹고 할 일 없어 지껄이는 쓸데 없는 소리인지 서울대학 동창회 폐지론까지 거론하더니 이제는 입학전형에서 지역할당제까지 들먹이고 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

누가 서울대학 입학을 막았는가? 아무도 없다. 자유경쟁을 거쳐 선택되는 자, 실패하는 자, 그러다가 재수, 삼수를 거쳐 다시 선택의 길을 나서는 인생의 한자 관문에 지나지 않을 텐데 누가 그 관문을 막았는가? 누가 공평하지 못한 불평등의 기회를 주었는가? 없다. 이제는 어차구니없는 서울대학교 폐지론이나 동창회 폐지론 같은 억지주장은 건너치우고 기회의 박탈감이 있다면 그 박탈감을 준 자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것은 결국 서울대학교를 위한 변명 이 아니라 왜곡된 현실에 대한 항변이다.

資料

서울살면 서울대 가기 쉽다

지역할당제 도입을 검토중인 서울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들의 출신지역별 통계를 공개했다. 특히 출신지역별 비율이 실제 시군도별 수험생 비율과 상당히 차가가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지역인재를 고르게 육성하려는 지역할당제 취지가 더욱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서울대가 1일 발간한 '2000~2001 서울대 백서'에 따르면 2001학년도신입생 4537명 중 41%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영남지역 출신이 28%를 차지했고 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 11%, 대전을 포함한 충청지역 9%,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역 8%, 강원도와 제주 등 기타지역 3% 순이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의

시군도별 일반계 고교 3년생 숫자통계에서는 영남지역이 32.1%로 가장 많았고 △서울 25.3% △경기지역 20.5% △호남지역 11.7% △충청지역 8.0% 순이었다.

출신지역 비율과 실제 시군도별 고3년생 비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곳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서울은 실제 수험생 비율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에 합격한 반면 경기지역은 수험생 비율보다 적은 수가 합격했다. 또한 이날 함께 공개된 2000학년도 신입생의 출신지역별 비율에서도 서울이 40%로 가장 높았고 △영남지역 27% △경기지역 11% △호남지역 10% △충청지역 8% △기타 4% 순이었다.

서울대는 그 동안 시군도별 출신지역 비율을 공개하려는 요구에 대해 사회적 과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자료원: 매일경제 2002년 12월 1일자 고성훈 기자 보도 전제)

서울대 '지역 할당제 토론회' 실시

서울대는 3일 교내 문화관에서 정운찬 총장의 지역할당제 도입 발원 이후 처음으로 이 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역할당제 실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대 교수들은 지역할당제의 구체적인 도입안을 제시하는 등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타 대학 교수들은 대체로 서울대가 추진하는 이 제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 대학 교육학과 윤정일 교수는 "최근 4년간 16개 시도지역중에서 전국평균 이하로 서울대 신입생을 낸 지역이 11개나 될 정도로 지역 별 편차가 크다"면서 "국가의 균형발전과 균등한 敎育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할당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전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전국 232개 시군구별로 신입생이 없는 지역이 4명, 신입생이 1명밖에 없는 지역에 3명 등 할당인원을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지역적으로는 해당지역 거주 6년 이상을 요구하고 재수생을 제외하고 지역내 고교장 추천시간의 경우로 선발해야한다" 덧붙였다.

지연대 김희준 교무부장은 "지역할당제로 정원의 10%정도를 선발한다고 가정 할때 수시모집에서는 국제대외 수상경력만으로 지역별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고 정 시모집에서는 내신이 아닌

수능성적 우수자를 지역별로 선발하면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 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려대 사범대 박도순 학생은 "지역할당제는 긍정적인 제도지만 학벌주의와 서울대 우월주의의 또 다른 표현방식이라는 관점도 있고 사회적 경쟁을 과도하게 촉발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지역할당제는 기본 철학에는 공감 이 가지만 시행과정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수원대 강인수 교수는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할당제 보다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 낮은 지역의 학교별 할당제나 더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미국 세인트모리스대의 조시화 교수도 "지역할당제의 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敎育불평등을 보상하는 것이라면 성별, 계층별 불평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 2002년 12월 3일자 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보도 전제)

도네가와 수수무(利根川 進)박사 日本노벨科學者들 -1

김일훈(의대 57년졸)

日本の 科學立國

3년 연속이다 금년에는 2인이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낸 일본열도는 현재 흥분에 휩싸여있다고 들린다. 너무나 부러운 일이다.

경제대국일본은 1949년 유가와(湯川)의 노벨 물리학상수상이래 과학상 9개(물리학상 5개와 화학상 3개 그리고 의학상 1개, 문학상 2개와 평화상 1개는 별도)를 받게되어, 이제 그들의 소원이던 科學大國의 기반을 견고하게 확립해가고 있다.

일본과학이 한때 미국과 유럽에 뒤쳐졌던 이유를 "일본인의 창조력 결여"라고 단념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이를 부정하는 학계와 언론의 "자기비판"역할도 컸었다고 전한다. 즉 그들은 "원래 창조력이 결여된 국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창조적 연구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창조성을 살리는 사회환경과 교육연구시스템에 좌우되며, 일본은 이러한 창조성을 높이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면서 교육연구환경의 혁신을 위해 끈질긴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2001년에 이미 정부로 하여금 GDP의 1%를 과학기술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으로 노벨과학상의 연속배출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세계 제12위 경제강국 한국은, 선진국 OECD 30개국 중에서 노벨 학술상(문학상 포함)을 받지 못한 두 나라중의 하나(다른 하나는 터키). 낙후한 이웃나라 중국, 인도 파키스탄도 일찌감치 노벨 과학상으로 빛을 내고있다.

노벨 평화상은 1970년대 이후 주로 후진국인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경향인데, 그나마 한국도 한자리 차지했으니 다행한 일이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기회의 나라"로 알려진 미국에 사는 필자 주변 동양인을 관찰해보자면, 한국인 1.5세대가 다른 동양계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며 우수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우수한 한국인이 아직 노벨 학술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순전히 교육연구시스템 등 잘못된 여건과 의식구조 탓일 것이며, 필자는 일찍이 여기에 대한 소견을 본지에 쓴바있다(참조: www.issuetoday.com 검색에서 "노벨 과학상과 문학상은 언제쯤 가능한가?" 에 내용).

한국에서 정부독려와 국민계몽

을 위한 학계와 언론의 체찍질도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도 않다. "노벨과학상을 우리나라도 받아야한다"는 훌륭한 신문논설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문 다음 장에는 전통치료법과 대문짝 만한 보약광고가 동시게재 되고있다. 言과 行이 상반된 사실이다. 科學立國은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영도력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의료분야를 두고봐도 한국현실은 130년 전의 일본정부의 현대화 노력과 비교해서 한심할 따름이다. 일본은 명치유신 때부터 정부 주도하에 과학일변도로 의학현대화의 토대를 잡아, 현재 "세계 제1장수국"이라는 국민건강을 누리고 있다. 현재 방황하고있는 한국정부의료정책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2백여년 전 우리의 자랑스런 선각자 연암 박지원(朴趾源)선생은 캄캄한 쇠국 조선 과학(의학)의 후진성을 한탄하며 낯선 중국 땅에서 야만국 일본서 출판했다는 화란의학서적에 주목하여, 그것을 찾아 북경시내를 헤매었다는 고사가 있다.

국민보건 백년대계를 염려하며 조국근대화에 공헌하고자 조선유학자들이 떨시했던 왜놈에게서 배우겠다는 그 애국심에 우리는 다만 머리가 숙여질 따름이라는 기사를, 필자는 오래 전에 소개한바 있다(참조: 대한의사회 의협신보 www.kma.org 검색에서 "김일훈 칼럼-28"에 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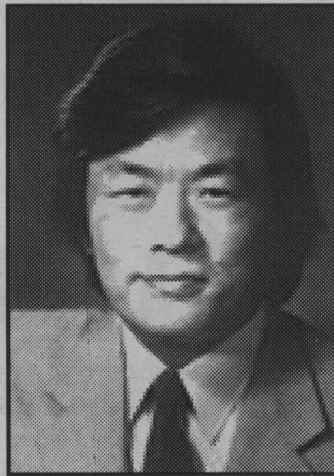
일본의 정객과 일반인의 언동은 알미워도, 대다수 일본학계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는 점을 필자는 평소 느껴왔으며 사실이지 일본학자나 문화인들 가운데 공정하고 양식(良識)있는 친한(親韓)인사도 많다.

예를 들어 일본에 사는 일본인과 한국계교포인구비율은 200대1에 불과한데도, 일본에서 으뜸가는 문학상 "아쿠타가와 상"수상자 비율은 지금까지 30대1이며 한국계가 훨씬 높다(120명의 수상자중 한국계는 4명이며 1971년 李恢成, 1988년 李良枝, 1997년 柳美里, 2000년 玄月 등이 수상함).

2002년도 품배기 노벨 과학상을 자랑하는 일본의 역대 노벨 과학자들의 면모와 그네들 철학을 엿보기로 하며, 먼저 의학상수상자부터 찾아본다.

醫學賞의 도네가와 박사

도네가와 수수무(利根川 進 1939년 생)는 현대의학의 첨단이



라 할 면역학유전분야에서 "항체의 다양성생성의 유전학적원리(The genetic principle for generation of antibody diversity)발견으로 1987년 일본인최초의 노벨 의학상을 탔다.

교도대학 화학과졸업(1963년) 후 대학연구소에 잠시 적을 두었다가 도미하여 San Diego의 UCSD에서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을 연구했다. 노벨상수상작품은 미국 아닌 스위스의 Basel Institute of Immunology에서 이론 연구업적이다.

현재 미국 MIT 교수로 재직중이며, 수상당시 면역학연구를 해온 도네가와, 그 후 흥미분야가 달라져 최근 10년간은 뇌과학(腦科學)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과학자 도네가와가 걸어온 학문의 길은 좀 복잡하다. 대학입시에 한번실패 후 교도대학 화학과에 입학했으며, 졸업후 바로 대학의 분자생물학연구실에 들어갔다.

20세기 생물학의 최대발견은 유전자 DNA의 구조발견이며 이 발견은 분자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낳게되었고, 그것이 확대되어 "생명과학의 세기"라 일컫는 21세기로 이어지고 있다.

도네가와와 연구의 출발점부터 세기의 첨단과학에 투신하려고 결심했으며, 졸업2개월 후 담당교수의 권유로 미국행을 하게되었다.

교수가 하는 말이 일본의 연구소 프로그램은 보잘 것 없으니, 충분한 연구생활을 원한다면 미국대학연구기관에 추천해주겠다고 했다. 그 결과 UCSD에서 분자생물학연구를 하게됐으며, 5년 뒤 1968년 Transcriptional control of phage lambda 라는 논문으로 Ph.D. 학위를 받았다.

1969년에 노벨 의학상수상자(1975년)며 세계적인 암 바이러스 권위자 Dulbecco 박사가 있는 유명한 Salk 연구소(소아마비 Salk약진발명향 곳)에 취직이 되었다.

(주: NIH에서 아직도 활발한 연구생활 하고있는 필자의 대학동문 임종식 박사도 암 바이러스 전

문가며, Dulbecco 에 버금가는 많은 업적을 내고있음을 알린다).

도네가와와 Fulbright 장학금 비자로 미국서 연구생활(1964-1970)을 즐길 수 있었으나, 비자 규정상 박사학위취득 1년 반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해야만 했다. 이 때 그는 일본으로 귀국이나? 아니면 타국(캐나다나 유럽)행이나? 를 두고 고민하고 망설였다고 전한다.

먼저 일본대학의 지기에 편지하여 지방대학조수자리 하나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답변은 민간회사(이름 없는)에 자리가 있으니 우선 그곳에 취직했다가 때를 기다리라는 소식이었다. 장차 노벨상 수상자에게 대학조수자리 하나가 없었던 것이다. 자연과 학연의 줄이 없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산골에서 조교수채용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흥미가 없었다.

여담이지만 여기서 필자는 1960년대의 한국현실을 생각해본다. 1983년 미안마의 평군에서 순국하신 민병석선생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대학 교직원 가운데 드물게 미국일류대학병원에서 내과수련을 마친 그가 귀국해보니, 취직할 곳이 없어 6개월간 무직자로 보냈다는 사실이다. 나중에 민선생은 연세대에 자리를 얻게되며 그때 그의 기쁨은 한량없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훗날 그는 한국장기이식의 개척자가 되어 한국의학현대화에 크게 공헌했다.

이야기를 되돌려, 실의에 잠긴 도네가와에게 희소식이 날라 왔으니 Dulbecco 박사가 주선하여 스위스의 신설된 면역학연구소(Basel Institute of Immunology)에 자리가 생긴 것이다. 그곳은 세계적 제약회사 로슈(Roche)가 투자하여 설립된 권위 있는 면역학연구소며, 마침 Dulbecco가 고문직을 맡고있었다.

면역학에 문외한인 도네가와와는 그 연구소에서 일할 자신이 없었지만 용단을 내려 그곳으로 갔다. 그 자리에 가기로 결심한 이유로 "Dulbecco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의 말에 OK 해버렸다"고 솔회한다.

인생의 중대사는 갈림길이 좌우하니, 도네가와와 면역학으로 얻은 노벨상의 영광은 바로 그 자리를 얻게된 행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일본에 직장을 얻어 귀국했다더라면 오늘의 노벨상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됐을 것이다.

1971년 31세의 도네가와와 스위스의 Basel 연구소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도네가와 팀은 연구에 도취되어 세월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으며 애당초 비자목적으로 2년간 예정했던 스위스 생활이 잠깐사이

에 10년(1971-1981)이나 흘러갔다고 그는 회고한다. 이 10년간 연구수확이 노벨상수상대상이 되는 "면역생체의 다양성발현기구의 해명"이라는 획기적인 업적이 되어, 드디어 1987년 수상하게되었다.

외부로부터 생체에 병원균과 바이러스 등 침입자(항원抗原)가 있을 경우, 이를 쳐서 없애는 단백질(항체抗體)을 만드는 '면역반응'이라는 '방어시스템'을 생체는 구비하고 있다. 도네가와와는 1970년대에 급속도로 발전한 유전자공학 기술을 구사해서, 복잡하고도 해명이 힘든 면역반응을 주도하는 '임파구'의 성질을 연구한 선구자가 되었던 것이다.

스웨덴왕립연구소는 그의 수상 이유로 "도네가와와는 일련의 탁월한 실험을 통해서, 어린 세포가 항체를 생성하는 'B임파구'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흩어져있는 항체의 유전자가 어떤 모양으로 재구성되는가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세계에서 이 분야연구를 완전 선도해 왔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의 연구를 평가기를 "백년에 하나 나올 정도의 큰 업적이다"고 했다.

'마음'의 科學的解明

1981년 도네가와와는 MIT 암 연구센터의 교수로 초빙되었으며, 현재 그곳에서 새로운 분야라 할 "뇌의 과학"을 개척중이다.

인간의 기능에는 육체기능과 마음기능의 두 가지가 있는데, 현대 과학으로 육체기능은 해명되어가고 있으나 마음의 기능은 아직 미지세계에 속한다. 정신의학계에서 과학적 방법에 입각한 심리학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석해명하고 있다고 하나, 과학적 방법이 결코 과학 자체는 아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능'을 과학으로 해명하려는 도네가와 박사의 철학을 소개해본다.

17세기 프랑스 철학가이자 과학자인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마음의 현상은 자연과학연구로 설명될 수가 없다"고 했지만, 도네가와와 여기에 도전하여 "마음의 기능도 자연과학으로 설명가능 할 것이다"는 전제하에 여기에 대한 연구에 나서고 있다.

인간의 뇌(腦)는 10의 12자승(自乘)개의 뇌세포로 형성되어있고, 이 숫자는 우주의 별 숫자와 비슷하다고 한다. 인간의 마음은 하늘의 기라성처럼 복잡다단하고 불가사의한 것이니, 인류의 미스터리 바로 대우주의 짜임과 소우주(小宇宙)인간의 마음의 기능인 것이다.

<6면에 계속>

자녀교육경험기

首席卒業보다 소중한 것들

김명자(문리대 62년입)

미국서 자식들을 기르다보면 학교를 통해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당면하게 된다. 특히 나와 우리 애들의 기억에 남을 이룬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하면 전 미국 수준에까지 올라가고 큰 각광을 받게 된다. 동양 학생들 특히 한국 학생들 간에는 수석 졸업생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정말 National level 의 지도자 부분에는 별로 없다는 것을 느낀다. 대개 일주일간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 Washington D.C.를 가게 되며, 모든 경비는 주체 측에서 부담한다. 날고 기는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 배우고, 논쟁하고, 이미 성공한 훌륭한 사람들의 연설을 들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다.

그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자면 Presidential Scholar, Century III Leadership, Boys' State, Boys' Nation, Girls' State, Girls' Nation, Colonial Dames of America Essay Contest, Academy Decathlon, History Contest 등을 들 수 있다. 피아노와 성악 등 음악을 잘해도 Local, State, Regional (7-8 states), National 도 갈 수 있고, 많은 특별 활동에서 뛰어난게 잘하면 National Winner 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오마하에도 동양인들이 제법 있지만, 30년 전 우리 가족이 아빠가 보스턴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끝내고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인이 20여명 있었을까, 정말로 하얀 동네였다. Mall에 가면 어린 애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뒤따라오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희끗희끗 우리를 쳐다보던 시절이

있기에, 애들이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당하지나 않나 선생들이 우리 애들을 제대로 취급해 주는지, 오랫동안 두 눈을 부릅뜨고 귀를 곤두세우면서 신경을 쓰고 살아야 했다. 공부 잘하고 말썽 없는 학생이라 항상 선생들의 칭찬을 듣는 것은 당연한 듯 했지만, 그래도 안심 할 수가 없었기에 나는 학교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했고, PTA모임에는 말도 다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빠짐없이 참가했으며, 기금을 모으기 위한 일에는 남보다 앞장서 과자를 구어다 기부하고 그 후에는 그것을 돈주고 사왔으며, 강당에서 피자를 팔기도 했고 애들 반의 대표엄마가 되어 Halloween 과 Valentine's day 에 파티도 해 주었으며, 그 잘난 영어 실력을 가지고 남편의 도움까지 얻어 가면서 미국 엄마와 같이 PTA 신문을 만들기도 했다.

그래도 내 판에는 서울대를 나왔다는 자존심이 있었기에, 말과 습관을 잘 몰라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알잡아 보이게 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 믿었고, 봉사를 잘 함으로써 좋은 인상을 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다. 아들이 Boy scout 의 캠프를 가면 아빠가 제일 먼저 나서서 학생들을 데려다 주었고 딸이 Girl scout 캠프를 가면 내가 따라가 텐트치는 것을 돕고 모닥불을 피워 hot dog도 구웠고, 알지도 못하는 노래들을 배워가면서 camp fire 에 둘러앉기도 했다.

물론 아들과 딸이 공부와 피아노에 월등히 뛰어났고, 아빠가 의사인 덕인지 내가 염려하던 인종차별 같은 것을 겪어보지 않고 살 수 있었으나, 가끔 학부형들로부터



터 오는 눈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시기들이었다.

고등학교 Junior 때 Century III Leadership 에 응모할 학생을 선생들의 추천으로 대 여섯명 뽑아서, 주최측에서 時事問題의 시험이 있었고, 50문제 중 하나만 틀린 아들은 당연히 자기네 학교를 대표할 수 있었다. 저녁이면 항상 보는 Local News 와 ABC News, 그리고 신문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 때 쯤에는 그동안 쌓아올린 이력서가 2면이 될 정도였고, 학교 성적과, 교장과 상담선생의 추천서, 그리고 다음 세기에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점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가를 나열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런지 등의 논문을 쓰는 것이었는데, Nebraska 주의 450여 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10명의 학생들이 결선자로 뽑혀, 주 정부 소재지인 Lincoln에 가서 여러 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면접 시험을 치뤄야 했다. 심사원들은 각계 각층에서 나왔고 연령도 다양했는데, 대학교수, 의사, 법률가, 대학생, 고등학교 선생과 학부형들이 포함되었다.

몇 일 후 교장 선생의 축하 전화로 내 아들과 Lincoln의 여학생이 뽑힌 것을 알았다. 판 것들이야 말로 다 실력으로 했을 테지만, 면접 시험에서 몹시도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는데,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고마웠다. Shell Oil

Company가 후원자로서 모든 경비를 부담했고 역사 깊은 Williamsburg, VA에서 전국에서 모인 100명의 Elite들이 일주일간의 모임을 했는데, 다음 세기의 지도자가 될 학생들이라, Program 이 찬란했고 호화스러운 호텔에서, 유명한 큰 회사 사장들, 중요한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의 연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 대통령 Clinton도 16살 때 Arkansas주 대표로 뽑혀 Kennedy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 TV에 나오는 것을 선거 운동 때 여러번 볼 수 있었다. 희망에 차고 꿈에 부푼 11학년의 학생들에게는 몹시도 흥분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주일간의 행사였는데, 나중에 Harvard에 가서보니 그 때 만났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어서 반가웠다고 한다.

또 Junior 가 끝날 때 쯤이면 Boys' State와 Girls' States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학생들과 선생들의 추천, 그리고 특별 과외 활동과 수필에 의해서 Delegates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두명(남녀 한명씩은 Alternate)을 선정하게 된다. 미국의 사회를 알수록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 여름방학이 되면 Lincoln 대학의 기숙사에 여학생, 남학생을 따로 투숙시키고, 각각 모의 정부를 세워 정치연습을 하게된다. 상상의 도시를 몇 개 구상해 놓고, 그 도시의 시장을 뽑고 주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출해서 그것

을 해결해 나가려는 토론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해 나가는데, 일주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 2개의 政黨도 조직하고 그 당의 강령도 결성하여 4일만에 선거운동을 해야하니 큰 싸인, 팻지 등을 만들어 가슴에 달고 이방 지방 뛰어 다니면서 시골에서 온 대표자들을 포섭하러니, 동분서주 바빠 잠자고 먹을 시간이 있을 리가 없었다. Clara는 900여명의 여학생들 중 흑인 대표도 없고, 판 학교에서 온 인도 여학생 하나가 Alternate로 왔고, 그 외에는 유일한 동양인이었는데, Campus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학생들이 모인 강당에서 주최측 담당자가 노래를 몇 개 배워야 되는데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있는냐고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손을 들었고 피아노를 통해서 알게된 주위의 몇몇 사람의 추천으로 금방 이름이 알려졌고, 여러 학생들의 추대를 받아, 선거 운동을 해서 주지사가 되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상원의원으로 뽑혀서 네브라스카 주를 대표하여 Girls' Nation에 참가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물론 우리 돈 하나 쓰지 않고 Washington D.C.에 가서 각 주에서 한명씩 선발되어온 대표들과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경험과 우정을 얻고, 정치에 참여하는 맛을 보았던 것이다. 이 때 또 다시 느낀 것은 이 나라에서는 역시 저만 잘하고 뛰어나면 인종차별의 난관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Kimberly M. Ohr
14212 Eagle Run Drive
Omaha, NE. 68164
H: 402-493-2284
F: 402-493-2284(call before fax)

<사진 위> 미국유수대학에서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교육한 필자와 부군 오태요동문

<7면에서 계속>

1950년대에 유전자의 본체라 할 DNA 구조가 해명되어 분자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고, 근래 유전정보라 할 게놈(genom)의 해독이 진전되어 여러 가지 미지의 소우주 세계가 알려졌다.

사람은 3만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며, 이 숫자는 원숭이(Chimpanzee)등 동물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중 1% 유전자 차이가 인간과 일부 동물(원숭이와 생쥐)을 구분하고 있다니, 참으로 아슬아슬한 일이다. 인간과 동물의 육체는 이렇듯 분자생

물학으로 설명되지만, 정신기능해명은 아직도 먼 훗날에 속한다. 그래서 도네가와와는 21세기는 뇌과학(腦科學)이 생명과학의 주류가 되어 인류역사상 획기적인 시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도네가와와는 사람의 인격이 대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로 결정된다고 여기며 따라서 겁쟁이와 용감한 자가 구분되고 신체능력과 예술재능에도 큰 차이가 나며, 가령 예술재능 없는 사람이 아무리 첼로연습하는데도 요요 마 같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인격이 조

정되어 선천적인 면과 후천적 측면으로 형성되어 합쳐진다고 본다.

마음과 육체현상이 틀린다고 모두들 여겨왔지만, 좋고 싫은 정서 그리고 즐겁다거나 슬프다는 현상을 자연과학으로 설명될 날을 그는 기대한다.

도네가와와는 인간의 기억력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찾기 힘든 장소를 설정하여, 쥐를 정상 쥐A와 유전자 1개를 뺀 쥐B의 2군을 나누어서 관찰한 결과 B군은 장소를 기억 못

해서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찌 보면 가공적이라 할 연구명제를 놓고 여기에 집착하는 도네가와와는 실로 용감한 연구가라 하겠다.

"현재를 이탈한 도전이야말로 새로운 창조를 낳게 한다"고 그는 믿고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도네가와와는 미 국학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미국학계의 장점은 바-존 있는 리더가 많다는 것이다. 리더십이 중요한 능력임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리더가 될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

에 학계에도 용기 있고 능력 갖춘 사람이 많다"고 말한 적이 있다.

도네가와와는 지금 미지의 분야에 용감하게 도전하는 미국과학계의 리더가 되었다.

'뇌의 과학'연구에 몰두하는 그에게 두 번째 노벨상이 찾아올 것이 기대된다.

투고 요청
노벨 상에 근접하는 우리 동문들의 업적을 소개 합시다!

나의 스승

趙淳 (상대졸, 전 모교 경제학과교수)

내가 받은 교육의 과정을 회고해 보면, 대중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다. 첫째는 父母로부터 받은 가정교육이고, 둘째는 소학교 중학교과정에서 日本人 선생으로부터 받은 교육이며, 셋째는 광복후 군에서 제대를 한 후 미국에 가서 받은 學部 및 大學院 과정이다. 한마디로 나는 우리 나라의 傳統教育, 日本教育 및 美國의 專門教育을 다 받은 셈이다. 지금은 가끔은 漢文 책을 읽으며 거의 매일 英語 日語로 쓰인 책을 읽고 있다. 나는 완전히 老衰하기 전에 내 스스로와 세상을 觀照할 수 있도록 私生活를 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다행히 나의 素質이 우리 나라 정치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이제 다시 한동안 멀리했던 책을 대하게 된 것이다.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순수하고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데 대해, 아주 다정스럽게 생각한다.

가끔은 지난 날 내가 받은 세 가지 교육과정에서 나를 가르쳐 주신 先生들을 回想하는데, 英語의 표현을 빌리면 fond memory(그리운 追憶)에 잠길 때마다 人世의 無常을 느끼는 때도 있다.

< I >

나는 미국에서 Bowdoin College라는 작지만 꽤 이름 있는 대학에서 人文科學(liberal arts sciences) 一般을 배우고, 經濟學을 專攻으로 履修했다. 그때 나를 가르쳐준 先生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 教科目的 내용도 좋았다. 그러나 아직도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 있는 것은, 教室에서의 강의가 아니라, Fraternity House에서, 同僚學生들과 宿食을 같이 하던 日常生活의 經驗이다. 미국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民主主義觀 무엇이냐, 그들의 價値觀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에 관해 1부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값진 교육이었다.

Bowdoin College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나는 버클리(Berkeley)

孟子 묘에서 :

1
四書의 기슭엔 落葉이 지고
여기를 지나면서 마음 떨리네
사방을 돌아보니 쓸쓸한 한데
새들은 가지 위에 왜 저리우노

2
바위속 墓所에는 들국화 피고
늦었지만 여기오니 마음이 후련하네
神道の 주변에는 老木이 가득
富貴에 不淫하고, 貪賤에 不移하고,
威武에 不屈하는 丈夫의 마음일세.

3
馬鞍山 기슭에는 먼 하늘 맑고
山勢는 부드러워 마음이 가라앉네
여부터 慈母의 가르침은 많았겠지만
자식 이름 올린 일은 별로 없었네

4
墓域에는 단풍들어 가을이 한창
馬鞍山 기슭에는 옛무덤 늘어섰네
二千三百年의 지나간 세월
老栢이 버들 자른 마음 傳하네

의 加州大學校 經濟學科 博士課程에 들어갔다. 당시 버클리의 經濟學科는 여러 評價機關에 의해, 미국 제일이라는 判定을 받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나이를 많이 먹은 학생으로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必修過程을 밟는데 바빠서 내가 받은 교육의 本質이 과연 어떤 것인지 잘 몰랐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버클리의 經濟學科의 名聲은 높았으나, 내가 과연 무엇을 배웠는지 솔직히 失望스러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特出한 成績을 내지 못한 까닭이었으리라 생각한다.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教授生活를 좀 하다가 서울



에 돌아와서 서울商大의 교수로 採用된 후로, 나는 혼자 열심히 大學院 과정에서

읽지 못한 책을 읽었다. 나의 나이가 좀 더 젊고, 머리가 좀 더 좋았다 라면 지금 정도는 아니었을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限界이니 후회는 없다.

1994년 나의 母校인 Bowdoin College의 開校 200周年 卒業式에서 나는 名譽 法學博士學位를 받았다. 이것은 나의 일생동안 받은 가장 큰 榮光中의 하나였다. 돈 없이 이 좋은 대학에 와서 經濟學을 배워, 學者의 칭호를 받으며 나름대로 著書를 내게 된 것은 오로지 이 학교의 先生들과 同僚학생들의 好意의 덕택이었다. 나에게 돈은 가지고 이 학교의 厚意에 보답할 능력도 제한되어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美國 19세기의 최고의 詩人 롱펠로(Henry W. Longfellow)는 이 학교의 1824년 졸업생이었는데, 그는 그의 졸업 50주년에 즈음하여 아주 멋진 長篇詩를 남겼다. 나의 50周年은 2010년이니 나도 그 때가 되면, 가능하면 英詩 한首를 지어 가지고 그 학교 卒業式에 갈 생각이 다.

Bowdoin과 버클리에서 나를 직접 지도해 주신 先生들은 두 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돌아가셨다. 살아 계신 두 분과는 내가 서울市長을 할 때까지만 해도 가끔 편지의 왕래가 있었는데, 이제는 杜絕됐다. 내가 답장을 소홀히 한 까닭이다. 참으로 죄송한 일이지만, 여기에도 나의 限界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II >

日政時代 때, 나를 가르쳐준 先生들은 대부분 日本인들이었다. 그 당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교육은 大局으로 보면 분명히 殖民地 教育政策이었다. 그 정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하여는 尙山 言及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日本人 教師

중에는 정말로 獻身적으로 나(그리고 나의 級友들)를 가르쳐 준 분도 있었으니, 나의 小學校 6학년 담임 선생이 바로 그런 분이였다. 그 분은 광복 이후 그의 日本고향에 돌아가서 校長을 하다가 定年(日本에서는 定年이라 쓴다)을 했다. 80年代初에 이분이 江陵으로 觀光次 오신 것을 계기로 나오는 가끔 書信의 왕래가 있게 되었다. 지난 年末에 받은 선생의 書信에는 사모님이 交通事故로 돌아가시고 두 아들이 모두 따로 살고 있어서, 80을 넘은 분이 혼자 市內에서 사신다는 사연이 있었다. 나는 이 선생의 電話番號를 안다. 그러나 전화를 걸 생각은 아예 없다. 선생의 기억을 전화소리로 깨기가 싫은 것이다. 또 사실 할 말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편지를 올릴 생각도 없다.

조지 깃싱(George Gissing)이 한 말이 생각난다. '友情의 편지란 기분이 내키지 않는 한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A letter of friendship should never be written save when the spirit prompts)' 무슨 뜻인가. 기분이 내키지 않는데 쓰면 말을 꾸며야 되는데 꾸민 말의 편지는 友情의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장의 좋은 편지, 지금 사람들이 편지 없이 살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는 燕巖 朴趾源이 그의 親友 洪大容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洪大容에게 준 答書에 가장 웅변으로 표현돼 있다. "그대의 편지를 받으니 어찌나 반가운지, 그것은 그대를 잠깐 만나서 맑은 모습을 보다가 곧 헤어지면 다시 그리워지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 나는 깃싱이나 朴燕巖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의 先生에게 함부로 편지를 올리지는 않는다."

< III >

나의 父親은 아주 좋은 분이였다. 좋지 않은 父親이 어디 그리 많겠는가. 나는 父親으로부터 배운 다소의 漢文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가끔 漢文 책을 꺼내서 읽고 있다. 經濟學 책을 읽으면 거기에도 生이 많지만 漢文책속에는 더욱 더 많다. 이를테면 唐宋의 名人들의 詩文을 보면 千年이라는 세월이 그

리 오랜 것 같지도 않다.

언젠가 세배 온 나의 제자가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에게도 선생이 계십니까." "음 물론이지." "누구십니까." "내 선생은 나이가 좀 많아." "몇 살입니까." "약 二千五百살쯤 됐어. 한 분의 姓은 孔씨이고 좀 젊은 분의 姓은 孟씨야." 이것은 우스개 소리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내게 있어 孔씨와 孟씨는 崇拜의 대상이 되는 聖人이라기 보다는 그저 그때 그때 나를 가르쳐주는 친근한 선생들이다. 그들에게도 長短點이 있는 것 같고, 인간이 가지는 限界도 있는 것 같으나, 어쨌든 나는 七十平生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 왔다. 이분들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만도 못했을 것이다.

작년에 나는 처음으로 중국 江蘇省 曲阜를 방문하여 孔先生의 사당과 墓所에 참배한 적이 있다. 그때 거기 못지 않게 가보고 싶은 곳이 孟先生의 사당과 墓所였다. 그러나 日程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단념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작년 10월에 靑島大學에의 經濟에 관한 講演초대가 있어, 강연을 마치고 나니 하루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孟先生의 고향은 거기서 약 600km된다는 것이었다. 하루 갔다 오기에는 벅차기는 했으나, 나의 동료가 적극 권하기도 해서 나는 마침내 당일치기로 江蘇省의 孟先生 고향에 다녀왔다. 목적은 무엇인가. 그저 선생의 묘소에 찾아가 보는 것뿐이다. 孔先生이 正教授면 孟先生은 副教授인데, 正教授나 副教授나 나에게 차이가 없는 것이다.

孟先生의 墓所를 찾았으니 선생의 어머니 墓所를 그냥 지날 수도 없다. 그래서 孟母의 墓所를 찾아서 절을 올렸다. 孟先生 母子의 墓所에 관한 記述은 당시에 지은 七絕 四首로 가름한다. (다음은 조순 교수가 '자작한시' 自作漢詩를 손수 번역한 시임).

조수미 초청음악회 실황 녹음 CD 판매 계속

"Love from Washington"

소프라노 조수미(Sumi Jo) Washington, DC Concert (2001년 8월 25일)에서 실황 녹음하여 제작된 CD를 500개 한정판으로 우선 판매한다. 이 판매 대금은 관악후원회와 母校의 後進을 위한 基金으로 사용된다.

가 격 : CD 1개당 \$15(송리는 첫 한 개에 \$3 복수 구입 시 개당 \$1 추가)

구매수량(1인당): 제한 없으나 500개의 제한된 수량
이므로 선착순 주문 판매하오니 가격과 우송료를 포함한 수표를 아래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맹회 사무국

SNUAA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unaauusa@anuaa.org

* 수표는 Payable to SNUAAUSA로 작성 바람.

투고 요청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는 동문(필자=독자)들의 자발적인 투고로서

이루어지는 知性人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場입니다. 同門여러분의 자유롭게

쓰신 다양한 주제의 玉稿를 모아 풍요로운 동창회보를 만듭시다.

원고 투고처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ameritech.net
website : http://www.snuaa.org

정년퇴임 교수 프로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17명이 지난 8월 30일 정년퇴임을 맞이했으며,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崔承熙교수·국사학

61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문헌사학사 학위. 82년 모교 조교수로 임용, 한국 근세사, 한국 고문서학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조선초기 연관·연론연구」, 「조선고문서연구」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조선시대 사학회장, 모교 규장각 도서관리실장·한국문화연구소장 등을 역임.



金容九교수·외교학

61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국제관계사 연구·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소련국제법이론연구」, 「세계외교사」, 「세계관총론과 한말외교사」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모교 국제문제연구소장·학생처장·사회대학장, 국제정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



朴相大교수·생명과학

60년 文理大卒. 美세인트존스대 이학박사 학위. 67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분자세포생물학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모교 실험동물사육장장·유전공학 연구소장·연구처장, 한국생물과학 협회장, 유전학회장, 대통령과학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분자생물학회 회장, 독성학회 회장 등을 역임.



盧貫楨교수·생명과학

61년 師大卒. 美플로리다주립대 분자유전학박사 학위. 80년 모교 부교수로 부임, 분자유전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신규유전학」, 「필수바이러스학」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美세인트루이스대 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 모교 실험동물사육장장, 한국미생물학회 회장 등을 역임.



金相文교수·수리과학

62년 경북대 師大卒. 美뉴욕주립대 수학박사 학위. 66년 경북대 전임강사로 임용돼 교편을 잡기 시작, 건국대 부교수를 거쳐 76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수학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고 수학 발전에 크게 공헌. 모교 대역해석학연구소 소장·수학과장, 과학재단 수학과 연구심의위원 등을 역임.



李正浩교수·경영학

60년 商大卒. 모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학위. 65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회계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원가회계론」, 「재무회계론」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한국회계학회장, 모교 경영연구소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정보통신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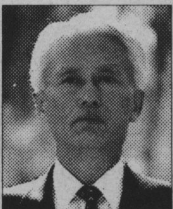
姜春植교수·재료공학

59년 工大卒. 모교 대학원 공학박사 학위. 71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금속 재료의 주조 및 집합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新編鑄造工學」, 「鑄造原理」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상공부 국립공업연구소 연구관, 美위스콘신대 연구교수, 한국주조 공학회 회장 등을 역임.



李華業교수·응용화학

61년 工大卒. 모교 대학원 화학공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촉매공학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유기공업화학」, 「현대산업사회와 에너지」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모교 공대 부속 공장장·연구지원소장·환경안전연구소장, 한국막학회 회장,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등을 역임.



李炳圭교수·식물생산과학

63년 農大卒. 日동경대 농학박사 학위.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원예학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시설원예」, 「채소원예학」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농촌진흥청 검직연구관, 모교 실험농장장·원예학과장,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회장, 한국원예학회 회장 등을 역임.



崔大權교수·법학

61년 法大卒. 美캘리포니아대 정치학박사 학위. 72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헌법과 법사회학, 입법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법사회학」, 「영미법」, 「헌법학」,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모교 법학연구소장·미국학연구소장·법학도서관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



任寅宰교수·교육학

62년 師大卒. 美미네소타대 철학박사 학위. 71년 모교 교수로 부임, 심리측정 및 교육평가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심리측정의 원리」, 「절대기준평가의 원리」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美미네소타주립대 조교수, 교육평가연구회장, 모교 교육학과장·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



申國柱교수·제약학

62년 藥大卒. 日도호쿠대 약학박사 학위.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천연물 성분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8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약학 발전에 공헌. 모교 천연물과학연구소장, 한국생약학회 부회장·편집위원장, 대한약학회 편집위원 등을 역임.



徐桂淵교수·기악

60년 音大卒. 佛파리 에콜 노르 말 음대 석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해 6회의 독주회와 5회의 협연, 다수의 실내악 연주뿐만 아니라 30여회에 가까운 Two Piano연주 등의 활발한 활동과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모교 기악과장·음악대학 부학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



李珍鎭교수·의학

63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 71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연구와 강의·진료를 통해 후학 양성과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임상총론」, 「임상윤리학」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 모교 교육연구부장·교수평의회 위원·발전기금조성추진위원회 위원, 대한폐경학회 회장 등을 역임.



趙斗英교수·의학

61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 74년 모교 조교수로 임용, 연구와 강의·진료를 통해 후학 양성과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 「임상행동과학」, 「프로이트와 한국문학」, 「행동과학」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美뉴욕대 객원 부교수,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장, 중앙일보 논설논평위원 등을 역임.



樞泰堉교수·환경계획학

62년 法大卒. 美뉴욕주립대 정책학박사 학위. 66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정책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분배의 의식화시대」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모교 환경대학원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



金安濟교수·환경계획학

62년 文理大卒. 美신시내티대 지역경제학박사 학위. 72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도시계획 및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지방자치론」, 「지역사회개발론」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내무부 환경계획연구소장,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모교 환경대학원장 등을 역임.

미국 자유주의 철학계의 한

John Rawls, Theorist on Justice

[편집자주] 서양에 있어서 금세기에 가장 영향력있는 정치철학자의 한 사람이며, 미국의 자유주의 정책원리의 근간이 되는 '正義論'의 저자인 John Rawls 가 2002년 11월 24일 별세하였다. 그의 철학이 미친 영향력 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하고 소탈한 학자로서의 동료간의 진지한 대화의 족적을 추모하기 위하여 追慕文 셋을 전재함.

John Rawls, Theorist on Justice, Is Dead at 82 (NYT November 26, 2002) By DOUGLAS MARTIN

John Rawls, the American political theorist whose work gave new meaning and resonance to the concepts of justice and liberalism, died on Sunday at his home in Lexington, Mass. He was 82. The cause was heart failure, his wife, Margaret, said. She said he had been incapacitated in varying degrees since suffering a stroke in 1995.

The publication of his book 'A Theory of Justice' in 1971 was perceived as a watershed moment in modern philosophy and came at a time of furious national debate over the Vietnam War and the fight for racial equality. Not only did it veer from the main current of philosophical thought, which was then logic and linguistic analysis, it also stimulated a revival of attention to moral philosophy. Dr. Rawls made a sophisticated argument for a new concept of justice, based on simple fairness.

Before Dr. Rawls, the concept of utilitarianism, meaning that a society ought to work for the greatest good of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held sway as the standard for social justice. He wrote that this approach could ride roughshod over the rights of minorities. Moreover, the liberty of an individual is of only secondary importance compared with the majority's interests. His new theory began with two principles. The first was that each individual has a right to the most extensive basic liberty compatible with the same liberty for others. The second was that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are just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serve to promote the well-being of the least advantaged.

But how could people agree to structure a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ese two principles? Dr. Rawls's response was to revive the concept of the social contract developed earlier by thinkers like Thomas Hobbes, John Locke and Jean Jacques Rousseau. For people to make the necessary decisions to arrive at the social contract, Dr. Rawls introduced the concept of a 'veil of ignorance.' This meant that each person must select rules to live by without knowing whether he will be prosperous or destitute in the society governed by the rules he chooses. He called this the 'original position.'

An individual in the 'original position' will choose the society in which the worst possible position which, for all he knows, will be his is better than the worst possible position in any other system. The result, Dr. Rawls argued, was that the least fortunate would be best protected. The lowest rung of society would be higher. Though inequalities would not be abolished by favoring the neediest, they would 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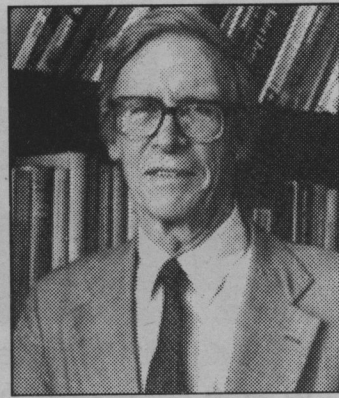
minimized, he argued.

In later works, Dr. Rawls expanded his arguments to suggest how a pluralistic society can be just to all its members. His idea was that the public could reason things out, provided comprehensive religious or philosophical doctrines are avoided. Dr. Rawls, like Kant, whom he revered, believed that as liberal democracies capable of such reasonableness spread, wars would be avoided. Damon Linker in National Review in 2000 spoke for many conservative critics when he called Mr. Rawls's formulation hopelessly utopian. Mr. Rawls, he said, had 'a childlike innocence about the ways of the world.'

The conservative philosopher Robert Nozick likewise considered Dr. Rawls's argument egalitarian nonsense, but its impact is suggested by the 5,000 books or articles that took up the discussion. Many who bought Dr. Rawls's book which sold 200,000 copies, a huge number for an academic work, were dazzled by his intellectual dexterity and moral clarity. Ben Rogers wrote in 1999 in The New Statesman that 'Rawls has been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English-speaking philosopher of his generation.' Mr. Rogers went on to say that Dr. Rawls 'through a mixture of bold thought experiment, conceptual rigor and historical imagination, more or less invented analytic political thought.'

John Bordley Rawls was born the second of five sons in Baltimore on Feb. 21, 1921. His father, William Lee Rawls, did not attend law school but through a clerkship at a law firm learned enough to become a lawyer and argue cases before the Supreme Court. His mother's advocacy of voting rights for women, among other issues, greatly influenced his own political and moral development. He loved family vacations to Maine and would go on long sailing trips in a leaky boat. His love of the outdoors was later expressed in mountain climbing. He graduated from the Kent School in Connecticut and from Princeton University, and planned to become a minister. But after serving as a combat infantryman in the South Pacific in World War II, he gave up his aspiration without explaining why, his wife said. He returned to Princeton and earned a doctorate in philosophy, a decision he always explained by joking that he was not good enough in music or math. His interest in developing a theory of justice began in graduate school.

He taught at Oxford, Cornell and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before settling at Harvard, where his final position was James Bryant Conant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His books included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1993); 'Collected Papers' (Harvard, 1999); 'The Law of Peoples: with The Idea of Public Reason Revisited' (Harvard, 1999) and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Harvard, 2001). A modest, tweedy man, he turned down hundreds of honorary degrees, and accepted them only from universities with which he was associated (Oxford, Princeton, Harvard). In 1999, he won a National Humanities Medal, with the citation noting his success in helping women enter the ranks of a male-dominated field. In addition to his wife, Dr. Rawls is survived by his brother William Stow Rawls of Philadelphia; his daughters, Ann Warfield Rawls of Beverly Hills, Mich., and Elizabeth Fox Rawls of Cambridge, Mass.; his sons, Robert Lee, of Woodinville, Wash., and Alexander Emory, of Palo Alto, Calif.; and four grandchildren.



Dr. Rawls's concern for justice and individual happiness is seen in a story from Harvard. When a candidate was defending his dissertation, Dr. Rawls noticed the sun shining in his eyes. He positioned himself between the candidate and the sunlight for the rest of the session.

자유주의의 논거

Bringing Logic to Bear on Liberal Dogma (NYT December 1, 2002)

By MICHAEL M. WEINSTEIN

THE most influential political philosopher of his generation died last week. But Prof. John Rawls of Harvard, who was 82, was decidedly not a man of the current era. At least not in the United States. In Britain and Canada, where the nature of liberalism still fascinates, newspapers last week ran endless analyses of his legacy.

Starting in the 1950's, Mr. Rawls set down principles for the postwar welfare state, providing intellectual spine to liberals seeking tough-minded defense of their instinct to take from the rich and give to the poor. Professor Rawls's goal was to prove that the case for redistribution of wealth flowed from rational discourse, not sloppy moralizing or ideological froth. As President Bill Clinton said in awarding him a 1999 National Medal of Arts, 'Almost single-handedly John Rawls revived the disciplines of political and ethical philosophy with his argument that a society in which the most fortunate help the least fortunate is not only a moral society but a logical one.' Yet many of the scholars, including economists, who embraced Professor Rawls's vision of a just society found flaws in the analysis. His writing won their hearts if not their heads.

Professor Rawls offered two principles for a just society, as outlined in his 1971 book, 'A Theory of Justice.' First, each person should enjoy equally a full array of basic liberties. Second, public policy should raise as high as possible the social and economic well-being of society's worst-off individuals.

This second principle rules out mindless egalitarianism - policies that, in the name of the poor, drive down living standards across the board. Rawlsian principles could, for example, embrace a conservative policy, say a cut in taxes on capital gains income, if it could be shown that the cut would add some amount to the incomes of the poor. Professor Rawls sought to show that the principle flowed from rational deduction rather than personal taste. To do that, he asked what social contract would emerge by consensus from a group of people not already blinded by accidents of birth and other arbitrary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So he imagined people gathered behind 'a veil of ignorance,' unaware of whether they were rich or poor, talented or inept. What kind of society would they build? He argued that the rule everyone could

agree on would be to maximize the well-being of the worst-off person - partly out of fear that anyone could wind up at the bottom. But critics pointed out that rational people might not behave that way: rather than avert risk, people might instead gamble by calling for society to maximize the income of the richest. Gambling may seem unattractive, but it is not irrational.

Despite the critics, Professor Rawls's ideas have flowered. Thousands of books and articles have injected his brand of liberalism into popular discourse. He won, then, by losing.

政治에 의미있는 哲學

Making Philosophy Matter to Politics (NYT December 2, 2002) By MARTHA NUSSBAUM

CHICAGO

John Rawls, who died last week at the age of 82, was the most distinguished political philosopher of the 20th century. His is not a household name, in part because he disliked publicity. Yet, to a great degree, it is thanks to John Rawls that philosophy has continued to animate politics. He enters philosophy's history alongside Locke, Mill, Henry Sidgwick and Kant. One of his characteristically generous contributions was to insist on the enduring significance of the writings of these historical figures: he constantly taught them in preference to his own.

When Mr. Rawls began his career, these figures and their themes - social justice, free speech, respect for human equality, religious pluralism - were neglected in philosophy. 'Logical positivism' had convinced people that there were only two things that it made sense to do: empirical research and conceptual analysis. Science did the first, philosophy the second. So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became the analysis of moral and political concepts and how language conveyed them.

Mr. Rawls, however, insisted on the importance of asking the big normative questions like, 'What makes a society just?' He used a method of justification that he associated with Socrates, Aristotle and Sidgwick. He argued that, as we set out our ethical convictions, we try to identify those that are deepest and most reliable. (His example is the belief that slavery is wrong.) We then examine these convictions using the ethical theories known to us, seeking consistency and fit in our judgments taken as a whole. Judgments sometimes yield to a convincing theory; and theories often undergo revision or rejection in the light of judgments that they fail to fit.

Mr. Rawls believed that his own writings supplied only one of the theories we should consider in such a process. But he also believed he could show that his theory was superior to some other theories that had held sway: for example, utilitarianism, understood as the pursuit of 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 This theory, he argued, does too little to respond to our conviction that each person's life is in certain ways inviolable. (Utilitarianism cannot rule out slavery as being unjust, only for being inefficient.)

Beginning from this idea about each person's inviolability, Mr. Rawls invented the famous thought experiment called the 'original position,' which represents people choosing principles of justice for the society in which they will live. In the experiment, these people know that they have interests and plans, but they are behind a

'veil of ignorance,' not permitted to know their class, race, sex, religion or the precise content of their plans of life.

Mr. Rawls argues that, under these conditions, they will give priority to a group of traditional religious and political liberties on a basis of equality for all citizens. In the economic sphere they will permit inequalities, but only when those raise the position of the least well off. 'Purity of heart, if one could attain it, would be to see clearly and to act with grace and self-command from this point of view,' says the last sentence of 'A Theory of Justice,' published in 1971.

These famous arguments underwent some revision over time. Mr. Rawls focused increasingly on the issue of religious pluralism, redesigning the theory to show that it could offer principles that all the major religions, and nonreligious people, could accept as a basis for life together in a pluralistic society. Although he seemed to lose interest in defending his economic principles against the criticism they increasingly received - as the Great Society yielded to a few era in which these principles seemed increasingly radical - he did insist that the American system of campaign financing was distorting the right to vote.

Another change was Mr. Rawls's growing interest in justice for women. Unlike some of his younger colleagues - Robert Nozick, for example, who also died this year, a man of constantly surprising perceptions - Mr. Rawls had, at first, little sense of the goals for which feminists were striving. But he understood that many of the proposed changes were just, and he worked constantly to integrate a concern for women's equality into his work.

Although he never questioned the naturalness, in some sense, of the traditional nuclear family, he did much to respond to feminist criticisms, acknowledging that families as we know them are often unjust to women. In his writings on international justice, he repeatedly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women's equal opportunity as a key to global justice.

John Rawls has sometimes been portrayed as a kind of natural saint, who effortlessly put others first. I believe the reality was more complicated and more admirable than that: he had a keen sense of the emotions that make for injustice, yet waged a constant struggle for justice. I recall a conversation with him about Wagner's 'Tristan,' when I was a young faculty member. I made some Nietzschean jibes about the otherworldliness of Wagnerian passion and how silly it all was. Mr. Rawls, with sudden intensity, said to me that I must not make a joke about this. Wagner was absolutely wonderful and therefore extremely dangerous. You had to see the danger, he said, to comprehend how bad it would be to be seduced by that picture of life, with no vision of the general good.

America has increasingly moved away from John Rawls. Inequalities have grown, and the electorate seems largely indifferent to them. But our own greed and partiality can hardly diminish the virtues of his distinguished work. Perhaps we can regard the occasion of his death as a challenge to look into ourselves and identify the roots of those selfish passions that eclipse, so much of the time, the vision of the general good. Purity of heart would be to see clearly what has blocked that vision and to act with grace and self-command toward the general good. <Martha Nussbaum is a professor of philosophy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바람직한 韓國의 大統領

[편집자주] 재미서울대동창회보의 文筆과 論攷란은 韓國의 大統領 선거철을 맞아 특별 편집계획의 일환으로 韓國의 바람직한 大統領상(大統領像)에 대한 투고를 요청해 온 바 있다. 그 주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韓國 대통령에게 기대되는 지도력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정책이 당면한 韓國정치와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나는 어떤 인물을 어떤 이유로 다음 대통령으로 지지하는가? 등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 동창회보는 지난 10월호와 11월호에 이 문제와 관련한 글과 자료들을 게재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911테러사태 이후 전쟁의 위협이 지배하는 국제 정치의 분위기,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및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하여 韓國정치와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 감정과 봉당정치의 극복이란 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갈망하는 국내외의 우리 동문들의 관심사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를 위하여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중 두 주요 후보의 후원 진영에서 나온 지지논거(支持論據)를 수록하여 선출될 조국의 대통령에게 기대되는 지도력과 정책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었다.

깨끗하고 소신있는 지도자

조익현 (LA이회창 후원회 공동회장)

97년도 15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회창 후보를 후원하는 일에 참여해 왔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 부터 "왜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다.

첫째로, 大韓民國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토대로 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뚜렷한 정치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大韓民國은 건국 과정에서 부터 민주, 공산, 양대 사상에 휘말려 수많은 희생을 치렀고 6·25 동란이란 민족 상잔의 비극마저 치러야 했던 이픔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수많은 희생과 피는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도 적화통일이라는 노동당 정책을 해방이후 한번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즐기 차게 주체사상이란 이름 하에 "우리 민족 일은 우리끼리 통일도 외세의 영향 없이 우리 민족끼리 해야한다"는 이론을 계속 펴 학생이나 지식인 중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현혹되어 그 목소리가 大韓民國 내에서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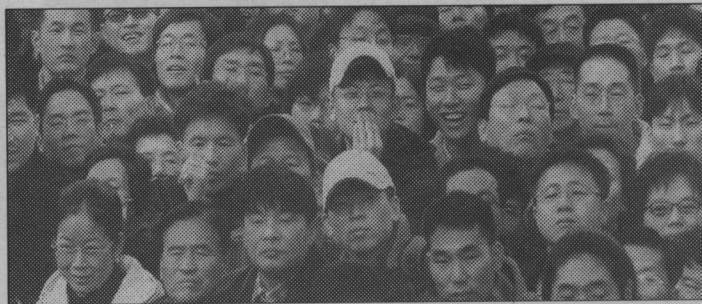
그러는 와중에 "준비된 대통령"은 소위 햇볕정책을 표방하며 "북한 동포가 굶주리며 어려우니 도와야 한다"며 정부財政에 관계없이 민의를 저버린 퍼주기식 정책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세계대회마다 "북한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어떤 형태의 통일도 무방하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어느 누구도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돕자는 데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우리의 도움이 북한 노동당만을 돕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에 회유를 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 정권의 실정은 공산통일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짊어 준과 식자층에 불러 넣어 국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누군가가 막아야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고 천명한 이회창 후보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두 번째로 국가지도자가 되려는 사람 가운데 처음부터 부정 부패를 묵인하려는 이는 없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집권 초기에 모두 부정 부패 척결을 호언하면서 열성적으로 출발했으나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부정 부패의 극대화만 초래했다. 부정 부패의 원천 봉쇄는 집권자의 강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삼권분립의 국가운영은 각 부 간의 견제로 인한 정치 개혁과 정치 부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통치자의 강직한 도덕성은 고질적으로 부패된 사회를 정화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며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 국정 전반에 풍부한 경륜은 정경유착 근절과 지역주의 해소에 필요한 귀중한 체험이 될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경륜과 정치성을 겸비한 인물은 이회창 후보 뿐이라고 확신한다. (미주관 한 국일보 2002년 12월 16일자에서 전제)



신촌로타리에서 선거유세를 경청하는 국민들. <사진제공=중앙일보>

변화하는 세계 / 유연한 사고의 지도력

백준철 (공대 62년입, 시카고지역 노무현 후보 후원회 상임고문)

먼저 미국 이민생활 32년에 시민권을 취득한지 20년이 지난 내가, 왜 본국의 大選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민 1세인 나는 아직도 그 뿌리를 고국에 묻은 채 살고 있다. 祖國은 나의 인생관, 세계관을 형성시켜 주었고 성장과 교육을 도와주었다. 아직도 대부분의 직계가족과 친인척, 친구, 동창들이 고국에서 그 땅을 지키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 親庭이 잘 살아야 맘 편히 잘 살수 있는 出嫁女人의 심정이라 할까? 조국의 번영과 부침(浮沈)은 국제사회에서 韓國의 위상을 좌우하고, 이는 교포 사회에 그대로 반영되어 우리 미주동포의 移民生活 전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MF 환란(換亂)을 겪는 과정에서 家計를 긴축해가며 韓國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 본 교포들에게는 실감나는 얘기일 것이다. 祖國은 우리 이민자들에게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일 뿐 아니라 우리 이민생활을 지탱해주는 근간(根幹)이기도 한 것이다. 5년에 한 번씩 선출하는 대통령의 지도력에 따라서 國運이 좌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외거주 동포라고 해서, 이번 大選을 어찌 강 건너 불 보듯 팔짱을 낀 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결국 大韓民國의 재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어쩔 수 없이 韓國의 大選에 관심과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학연(學緣)은 자연(地緣), 혈연(血緣)과 더불어 韓國사회를 연결시키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해왔다. 건국 이래 치러진 그 많은 선거에서도 학연은 투표성향과 선거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KS 마크를 단 네가 같은 KS 선배인 이회창 후보보다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다. 나는 대답한다. 하바드 출신의 나의 작은 딸에게 "하바드 출신이기 때문에 Al Gore를 찍어야 하고," 시카고 대학출신의 큰딸에게 "꼭 시카고대학 출신의 상원의원 후보만 지지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나친 학연은 건전한 국가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너도 직접 간접으로 德을 볼 터인데

반대로 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나?" 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당면한 國際情勢하에 민족의 숙원인 統一정책과 民主化의 내실화를 추진해 가야한다는 이번 선거에 부여된 歷史的 意義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선출할 대통령 후보자들의 잠재적(潛在的)인 지도력을 평가함에 있어 몇 개의 기준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첫째 기준은 후보자의 개인적인 品性의 문제다. 나는 후보의 인품의 문제를 후보자가 내거는 公約이나 政策보다 훨씬 위에 놓고 싶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선거공약(選舉公約)들이 선거 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다만 득표를 염두에 두고 내건 공약(空約)으로 변질된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후보의 성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화를 추구하고 수용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외부환경 또한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조국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생존이나 번영은 불가능하고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영원히 놓치고 말 것이다. 조국의 사회, 정치, 문화의 제반구조의 "개혁"은 기존의 개념과 발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전환해야만 "변화"도 "혁신"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공산 中國도 변했고 北韓도 최근 많이 변하고 있다. 소련도 변했고 NATO도 변하고 있다. 韓國도 변해야 산다. 어찌면 "단절의 시대"를 쓴 피터 드러커의 말대로 미래는 변화의 시대인지도 모른다. 國政의 최고 책임자요 지도자인 이번에 선출할 우리의 대통령은 개방적인 사고력으로 그 변화와 개혁의 선봉(先鋒)에 서야만 한다.

둘째 기준은 후보자의 政治的 배경이다. 후보자가 오늘의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어느 특정이익집단의 지원을 받고 성장했는가? 그가 재벌이나 언론 같은 특수 이익집단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집권 후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의 운신(運身)의 폭을 좌우할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지원을 받아 國政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 철세 정객들의 離合集散과 朋黨정치로 의곡

된 韓國정당의 역사이지만, 그래도 소속 정당의 주류 구성원들이 지니은 원칙과 이념, 조직의 역사적 변천과 정도 고찰되어야 한다. 시민의 대다수의 최대 복리를 구현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공리의 하나라면, 어떤 정당의 주도적인 성격은 어느 특정 계층의 이익을 편향적으로 옹호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나는 조국의 國政의 초점은 中産層의 확대와 복리 증진에 맞추어야 한다고 믿는다. 중산층의 비중이 커질 때 소수의 부유층이나 빈곤층도 안정되고 평형적인 원칙에 입각한 정책의 實益을 공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째 기준은 世代간의 문제이다.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 지구촌의 정치, 경제, 문화의 변화는 유연한 사고를 요구한다. 현재 경쟁하고 있는 두 주요 후보자의 연령의 차이는 10년 안팎이지만 정치적 성장과정과 그 환경은 두 후보자간에 세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본다. 세대간의 안목의 차이는 변화하는 세계와 역사를 보는 접근법에 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선출될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대강(大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주역국가들인 미국, 소련, 영국,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마저 새로운 세대들의 지도적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네째 기준은 韓半島의 平和문제이다. 작년의 911테러 사태를 TV에서 방영된 World Trade Center의 "격침"과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열혈분자들의 "神風"적인 공격장면을 참담한 심정으로 시청하면서, 우리는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한반도에서 다시는 戰爭은 없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반도의 平和를 확보하는 정책은 맹목적으로 국제적인 분위기에 편승하는데 그쳐서는 아니되며, 제한된 韓國의 國力으로서도, "세계평화의 확보"라는 인류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시기적절하게 구사되어야 한다는 상식(常識)을 세계 강대국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韓國의 차기대통령은 자주적인 외교정책의 여지(餘地)를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유연한 자세로 對北韓 정책을 펼쳐 조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통령 후보자의 道徳性의 문제이다. 지도자의 준법(遵法)정신은 추상적인 法理論의 문제만은 아니다. 公職者는 자신이나 주변의 재산 형성이나 국민의 기본의무의 하나인 병역(兵役)문제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規範은 밀지언정 指揮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투고일 2002년 12월 17일).

필자 백준철(공대 기계과 62년 입학, 66년 졸업)
인디애나 대학 MBA(72)
현 서울컨설팅 대표

수수께끼 같은 北核談話

河英善 (서울대 교수, 국제정치학)

수수께끼 같은 北韓

북한은 의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이래 동결해 왔던 영변 핵 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초 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 특보와의 만남에서 제2의 제네바 핵 협상 유인 카드로서 핵 개발 계획을 시인했으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선 핵 포기, 후 대화'를 강조하면서 이 카드를 묵살했다.

북한은 10월 25일 기왕에 요구해 왔던 북,미 평화협정보다 낮은 단계의 북,미 불가침조약을 두번째 카드로 내놓았으나, 미국은 중유 제공 중단으로 응수했다. 북한은 세번째 카드로서 영변 핵 시설 재가동을 꺼내들었다. 이 때의 의미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수수께끼 같은 의무성 대변인 담화를 조심스럽게 해체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담화에서 북한은 첫번째 카드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조심스럽게 거둬들이고 있다. '미국이 유일하게 들고 다니는 우리의 핵 개발 계획 시인'이란 지난 10월 초 미국 대통령 특사가 우리나라에 왔다 가서 자의대로 쓴 표현으로서 우리는 구태여 그에 대해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북한의 위험한 90년대식 판읽기

이러한 주장은 지난달 2일 같은 의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의 '선 핵 포기, 후 대화' 주장을 배격하면서 발표했던 '사실 조,미 사이에 지금 같은 적대관계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경제형편도 어려운 때에 것처럼 많은 품을 들여 가며 방위력 강화에 힘을 넣고 특수무기까지 만들겠는가'라는 주장과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첫번째 카드에 대해선 핵 포기, 후 대화를 주장하는 미국에 보다 위협적인 협상 유인카드로서 영변 핵 시설 재가동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의선 핵 포기, 후 대화' 요구는 북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별거벗이라는 것이며, 무장해제시키고 먹어 치우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극약처방으로 미국을 제2의 제네바 협상으로 끌어들이려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시도의 밑바닥에는 "현시기 조선반도에 조성된 핵위기가 철두철미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는 데에서는 지난세기 90년대 핵위기 때와 본질상 달라진 것이 없다"(12월 10일, 조

선중앙통신 논평)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라는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입장표명이 미국으로 하여금 당근정책을 취하도록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 '악의 축의 중심국가들인 이라크와 북한을 동시에 다루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상호 비방 끝 외교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간의 여유가 더 있을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이 90년대식 판읽기로 2000년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과거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과거 대북정책이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 운영, 미국 주도의 세계안보질서를 위한 비핵화 정책의 틀에서 짜여졌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9.11적 사고에 기반한 제2단계 테러전의를 틀 속에서 짜여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90년대의 역사적 체험에 기대를 걸고 90년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은 '선 핵 포기, 후 대화'의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외교전, 경제전, 정치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을 잘못 읽을 위험성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한을 잘못 읽을 위험성이 크다.

1994년과 같은 제2 핵危機 가능성은 없나?

北韓은 수령(首領), 주체(主體), 선군(先軍), 우리식경제제도의 독특한 기반 위에 건설된 국가로서 美國이 추진하는 외교전, 경제전, 정치전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 예를 들자면, 수령통치국가인 북한에 대한 정치전은 군사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세번째 협상 유인카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의 오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제2의 제네바 핵 협상이 아닌 제2의 핵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별거벗은 대신, 거의 동시에 체제의 안보와 번영의 위상을 국제적 보증 속에 지원 받으려는 새로운 발상을 보여주는 것이다(2002년 12월 13일 18:08. 중앙일보에서 전재).



美國時論

한국의 새 대통령

The New Face of South Korea (NYT 사설 December 21, 2002)

There is no denying the challenge that the election of Roh Moo Hyun as South Korea's next president poses for Washington. While the Bush administration is pressing its allies to use economic sanctions to induce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 programs, Mr. Roh favors engagement with Pyongyang and more policy independence from Washington. Yet if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proceed sensibly, they should be able to work together toward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problem. Neither country can achieve what it seeks from the North without reinforcing the other's policies.

It shouldn't be surprising that South Korean voters want to avoid military conflict with the North. Even without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s, North Korean artillery could flatten South Korea's cities, devastate its economy and kill large numbers of its citizens. Yet Washington cannot stand by while North Korea builds unconventional weapons that menace Japan and may eventually pose a danger to the United States itself. The only practical answer is coordinated diplomacy that forces Pyongyang to choose between the incentives of engagement and the threat of economic punishment.

North Korea was the most visible issue in the cam-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미국의 對北韓 정책

[편집자주] 지난 1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국내뿐 만 아니라 미국 내에도 충격의 파문을 던졌다. 제 16대 대통령 당선자로 선출된 노무현 후보의 '자유주의'와 '햇볕정책'을 계속하고자 하는 대북한 정책의 大綱은, 911테러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반 테러와의 전쟁과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UN의 이름으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정권을 전복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쟁준비 과정의 외중에 등장한 北韓의 핵무기와 북한의 '비방끝 危機' 정책은 부시행정부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미중 封鎖정책(Tailored Containment Policy)'—북한의 대응에 따라 적절한 경제적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내부붕괴를 유도하고자 함—을 대북한 정책의 대강으로 정한 듯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우리 동포들이 있어서 숙고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계속하여 북한과 대화와 협력정책을 계속하여 南北韓의 分斷 民族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統一의 도정으로 나아가는 방안은 무엇일까이다. 이에 문필과 논고란은, 韓國이 세계의 유일 강국으로 등장한 美國의 強硬政策이란 당면한 국제정치 환경에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의 추진에 도움이 되는 우리 同門 知性人들의 창의적인 논고가 필요시 된다. 이에 동문들의 玉稿를 기다리며 최근의 美國時論 몇 가지를 여기에 자료로서 첨부한다.

paign, but not the only one. Mr. Roh was the candidate backed by Seoul's outgoing president, Kim Dae Jung. Like Mr. Kim, he has a proud history of supporting student and labor opponents of Seoul's former authoritarian military governments. Mr. Kim's popularity has suffered from corruption scandals and North Korea's failure to respond constructively to his offers of reconciliation. But the election results show, encouragingly, that Mr. Kim's basic goals of expanding democracy and reaching out to the North enjoy continued support, especially among an affluent younger generation.

美國이 주도하는 세계 정책에 대한 南北韓의 격정

Two Countries, One Anxiety (NYT December 22, 2002) By DAVE KANG

HANOVER, N.H. - There has long been anti-Americ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xtent of it has long been exaggerated. Roh Moo Hyun, who favors greater autonomy from the United States, was elected president of South Korea last week amid news of North Korea's continued defiance of its nuclear accord with the United States. Events on both sides of the demilitarized zone, however, have been misunderstood.

North Korea's behavior is not unpredictable, and the

lection of Mr. Roh was not simply an outbreak of emotional anti-Americanism. Both countries have deep concerns about United States policy toward the peninsula. It would be a mistake to dismiss South Korea's increasingly tens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s ephemeral, or the North's recent belligerence as irrational. Koreans in both the North and South are concerned about an erratic United States policy that veers between neglect and overattention - and that for the last two years has lacked an overarching vision.

The unraveling of the 1994 accord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ver the North's nuclear weapons was unsurprising. Both countries mistrust each other and are always seeking to confirm their prejudices. Yet the past eight years have seen many positive developments in North Korean behavior: increasing economic ties to other Asian countries, for example, and cooperation with the South to clear part of the demilitarized zone of land mines for a railroad.

But the North has clearly and consistently maintained that it will proceed with reform cautiously and at its own pace - and just as important, it has stressed that it will meet pressure with pressure. When the United States expects it to simply accede to demands that it stop developing its nuclear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13면에서 계속>

So the United States, having chosen to pursue a hard-line policy with the North, has much the same choice as it did in 1994: it can continue to escalate the pressure and hope that a weaker economy will break the North, or it can find some way to negotiate. Complaints about North Korea's "irrationality" entirely miss the point. The Bush administration has done well to avoid overreaction to the North's renewed nuclear threat. But after two years the administration has yet to articulate a coherent policy toward the peninsula - North or South. This has led to a situation in which both North and South Korea worry about American policy.

Viewed in this context, the outcome of the South Korean election is understandable. South Korea has historically been one of the strongest allies of the United States. It is naive to dismiss its concerns as emotional. Certainly American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can cause tension, and there was a strain of anti-Americanism in the recent protest of some 300,000 South Koreans over the acquittal (in an American court martial) of two soldiers accused of accidentally crushing two Korean girls to death while on an armored patr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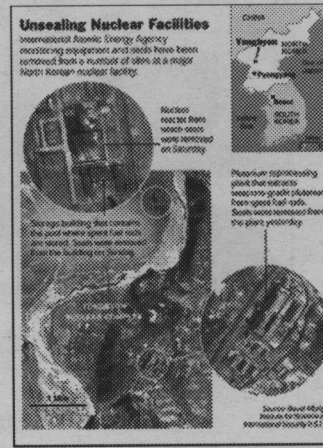
But South Korea's concerns are rooted in a much deeper apprehensions. In large part, the South Korean election came down to a referendum on South Korea's stance toward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Voters resoundingly chose the moderate Mr. Roh, who favors continued engagement with the North, over Lee Hoi Chang, whose stance toward North Korea - suspending assistance until it cooperates on issues like arms control - more closely reflected America's. In electing Mr. Roh, voters voiced their displeasure with the Bush administration's inflexible stance.

Their shared frustration with America may have the effect of driving North and

South Korea closer. These concerns are likely to grow, especially as democratic politics in South Korea matures. As voters increasingly demand more openness with the North, South Korea's elected officials are likely to show relatively less deference to American policy.

For America the implications of these changes in Korean attitudes are clear. Washington must create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resolving the nuclear issue with the North in such a way that responds to North Korea's desire for security guarantees and full normaliz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cannot just hope that North Korea goes away - nor should it risk escalating tensions and creating a geopolitical crisis, like the recent controversy over North Korea's missile shipments to Yemen. To have any hope of resolving th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must pay more attention to the needs and goals of both countries. In recent years South Korea has made major strides in economic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North, only to see those gains jeopardized in the last year by clumsy American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United States troops have been in Korea for more than 50 years, and most Koreans have complicated feelings about America. Some of them are anti-American, to be sure, but many are grateful. Right now, however, the prevailing mood is anxiety - not about North Korea starting a war, but about American policies eroding the slow gains both Koreas have made in the last decade in their relations with each other. A more carefully engaged America would help alleviate tensions in Northeast Asia rather than contribute to them. <Dave Kang, associate professor of government at Dartmouth College, is author of "Crony Capitalism: Corruption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북한 孤立政策을 추진하라
Isolation, Not Engagement (NYT December 29, 2002) By VICTOR D. CHA

WASHINGTON - While the United States prepares its military for a war in Iraq, North Korea has precipitated an equally serious crisis by the unceremonious restarting of its nuclear facilities at Yongbyon. These efforts have created a sense of urgency on the peninsula reminiscent of June 1994. To avert this crisis eight years ago,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igned a non-proliferation accord known as the Agreed Framework. In doing so, they created a broad-based, moderate consensus that engagement with North Korea was effective.

By refusing to negotiate directly with the North after it was found to be in non-compliance with this accord, the Bush administration has rightly fractured this consensus. At the same time, it has shown a willingness, signaled in the last few days, to support measures to deal with the North through the United Nations. Thus President Bush has left open the possibility of allowing North Korea a way out of this crisis without condoning its conduct. The engagement policy the United States followed in 1994 would be ineffective and unfeasible today. Indeed, if the North does not come clean, the true "moderate" position for both Washington and Seoul is isolation and containment.

Engagement's proponents argue that the North's tampering with the Yongbyon nuclear facilities last week - including the unsealing of buildings, disabling of moni-

toring cameras and demanding the removal of international inspectors - is a cleverly disguised attempt to create a crisis and thus coerce a reluctant Bush administration into negotiations. Maybe so. But even if such talks could result in a more comprehensive nonproliferation agreement to replace the Agreed Framework, there is little evidence to believe that Pyongyang could be trusted to comply with it. Given the revelations in October of another secret nuclear weapons program, the credibility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in Washington is less than zero.

There is no denying that palpable anti-American sentiment exists in South Korea. The election of left-leaning Roh Moo Hyun over a conservative, "pro-American" candidate for president is evidence of a perverse domestic dynamic in Seoul in which bad actions by North Korea are seen to be the fault of the "hardlin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Yet the North's illicit nuclear activities started before the Bush administration took office (as did the waning of inter-Korean economic engagement).

Moreover, what is denigrated in Seoul as inflexibility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is in fact surprisingly measured.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maintained that it will not be blackmailed into negotiations, but that it also seeks a peaceful solution to the crisis and has no plans to invade the North. In this regard, North Korea's continued bad behavior plays right into the Bush administration's plans: It reaffirms its policy of isolation and containment. Nowhere was this more evident than in last week's public statement of Mr. Roh, the South Korean president-elect, virtually pleading with Pyongyang to moderate its behavior lest it undercut any credible argument for engagement.

Some argue that greater United States engagement

with the North is a useful interim measure to stem anti-Americanism in Seoul and save the alliance with South Korea. But this view is short-sighted. If North Korean nuclear brinkmanship continues unabated, South Koreans should realize that the threat of war on the peninsula emanates not from Washington's ambivalence but from Pyongyang's truculence. Crises should cause alliances to come together, not split apart. If South Koreans do not realize this, then there is no alliance left to save. As in 1994, going to war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not an option. If Mr. Kim chooses not to make unilateral efforts at resolving international concerns about his nuclear weapons programs, then the only alternative is isolation and containment of the regime.

But won't such a strategy cause Mr. Kim to lash out? Such concerns were justifiably voiced in the crisis eight years ago. But the North Korea of 2002 is very different from the North Korea of 1994. Since 1994, North Korea has won diplomatic ties with the European Union, economic ties with South Korea, a potential normalization settlement with Japan and international food aid. If faced with the choice of complying with its nonproliferation commitments or facing total isolation, the regime's decision will be complicated by one simple fact: It now has much more to lose than it did in 1994.

Different times require different thinking. In 1994, engagement was the level-headed consensus policy option, as any other alternative would have led prematurely to war. Today, engagement is not credible (nor, for that matter is preemption). If Mr. Kim chooses not to cooperate, the only true "moderate" option is isolation. <Victor D. Cha is a professor at the School of Foreign Service at Georgetown University>

SNUA OPINION LEADER

자주적인 외교사 정리가 가장 시급

정년퇴임을 앞두고 모교 金容九교수는 지난 8월 29일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외교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고별강연을 펼쳤다. 이날 그가 강조한 것은 외교사의 재조명, 국제 정치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은 다른 민족의 눈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유목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金교수로부터 외교사의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본다.

비교 문명론 이론에 의한 외교사의 재조명이 필자의 화두다. 수 백년 지속돼 온 「오지 사고」를 탈피하고 21세기 국제 정치 구조에서 어떻게 한국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한국 국제 정치학의 기본 과제다.

국제 정치 문제를 바라다보는 우리의 수준은 아직 유목 민족에 머물고 있다. 유목 민족은 자신의 역사적 기록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해 기록을 가진 다른 민족의 눈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된다. 경제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룩했다고 해 수년 전에는 영국이나 프랑스를 이미 앞질렀다고 선전했고 21세기에 들어서면 세계 3, 4위의 경제 대국이 된다고 국민을 우롱한 나라가 외교 문서집을 아직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만든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한번 들여다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우리 도서관은 정조가 창건한 규장각, 일제가 모아 놓은 자료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수집한 도서들, 모두 3대가 더불어 살고 있다. 이들 도서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역사적 현주소를 곧 알 수 있다.

규장각은 북경의 고궁 박물관에 버금가는 장서로서 실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제의 도서들인 우리 대학교 구간 도서들은 당시의 사정 으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장서들이었다. 물론 이런 장서의 수집은 대륙 침략을 위한 지적 침범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마련한 장서의 수준은 어떤가? 세계 전체를 볼 때 5백위 정도에 그친 초라한 몰골이다.

그러면 외교 문서집이 무엇인가에 그렇게도 필요하단 말인가? 그것은 과거의 국제 경험을 적어 놓은 문자로서 오늘의 외교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문서들이다. 그 속에는 대외 인식의 「정신 구조」가 숨어 있다. 이 「정신 구조」가 바로 수 백년 동안 지속돼 오고 있는 역사적 질병이기도 하다. 국가나 사회는 대외 문제에 대해 무의식적인 충동으로 반응하게 마련인데 그런 반응이 이런 「정신 구조」의 발로라는 것이다. 대외 인식을 결정하는 정신 구조 또는 세계관은 먼 과거, 오래된 믿음과 공포로부터 나온다. 오늘날 대외 문제에 대한 한 사회의 반응은 논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이다.

외교 문서집이 없다는 사실은 자신의 역사적인 반응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자신의 역사적 경험을 외교 문서집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회나 민족의 문서들을 통해 어렵듯이 알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오지 사고」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정신적인 고아로 전락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同文彙考」를 만들었던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문화적 전통을 다시

창조해야 한다.

우리는 1788년 정조 시대에 편찬된 「同文彙考」라는 위대한 외교 자료집을 가졌던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제 이 문화적 전통을 다시 창조해야 한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의 경험을 다시 조명하여 새로움을 준다든 뜻으로 라틴어의 inventio와 같이 「다시 발견」한다는 말이다. 「동문회고」를 만들었던 과거의 경험을 이제 다시 살려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조의 위대성은 그의 대외 인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가 즉위해 보니 중국에 관한 문서들이 상당히 없어지고 承文院의 등본도 정비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 사대 문서들을 모두 정리하고 일본 관련 문서들도 정비하려는 혁신적인 계획을 세우게 됐다. 「동문회고」편찬의 이 역사적인 위업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의 외교 문서집 발간보다 더 힘든 것이었다. 1940년 5월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하기 직전 상당한 분량의 문서를 소각했기 때문에 프랑스 외무성은 기존 문서들에 입각해 소실된 문서들을 재구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외교 문서 발간에 관해 상당한 지적 축적이 쌓인 1960년대의 일이다. 「동문회고」의 발간은 이보다 근 2백년 이전의 일이며 서양 열강들이 외교 문서집을 본격적으로 발간을 시작하기 훨씬 전의 일이다.

「동문회고」의 구성 자체도 매우 과학적이다. 요즘 용어를 빌리면 좁은 의미의 외교 문서는 물론이고 넓은 의미의 외교 문서인 개인 문서들도 망라하고 있다.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런 방대한 외교 문서집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때부터 매 3년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사대-교린 문서들을 보완하기로 했는데 이 속편 작업이 1881년에 그치고 그 후 2002년 현재까지 한국의 그 어느 정권도 이에 관한 문제 의식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실로 한심한 일이다.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 외국의 외교 문서집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열강의 문서집은 그 자체가 국제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그 국가가 어느 문명권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외교 문서집에 함축돼 있는 그들의 「정신 구조」가 다르게 마련이다. 이 엄연한 사실이 은폐돼 있는 이유는 19세기 이래 세계 정치의 중심에 있던 앵글로-색슨 국제 정치학의 영향 때문이다.

「외교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강대국 지식인들은 국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도외시할 것이다. 그들은 유럽 중심주의적인 설명 이외에는 이해하질 못하며 세계 외교사는 유럽 팽창의 역사라는 고정 관념을 탈피할 수가 없다. 사실 이런 고정 관념을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개국」과 「쇄국」, 「근대」와 「전통」, 「서세 동점」, 「서양의 충격」 따위의 용어들이 모두 이런 고정 관념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강대국 이외의 많은 사람들도 외교사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물음을 매우 생소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외교사 서술 체계 속에 담겨진 유럽 중심주의에 탐닉돼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냉전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군사나 경제 요인 분석에 몰입돼 있어서 문명권에 따라 외교 문서의 존재 양식이 다르다는 명제를 이해할 수 없다.

세계 주변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강대국들이 선전하고 있는 외교사 서술 체계 때문이다. 모든 외교사 저서들은 판에 박힌 일정한 순서에 따라 열강의 교섭사를 서술하고 있다. 1814~15년 빈 회의, 동방의 문제들, 크림 전쟁,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전쟁, 동양 진출, 아프리카 분할, 비스마르크 체제, 1, 2차 세계 대전으로 서술은 이어진다.

여러 문명권들의 충돌에 관한 역사는

후손에 물려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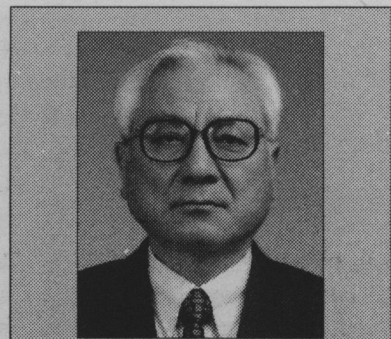
우리 「정신구조」가 담긴

외교문서의 발간이

가장 시급하다.

은닉돼 있다. 이슬람의 문제도 동방의 문제로 간략히 서술되고 팽창의 객체로 취급되고 있다. 15세기 이래 유럽과 이슬람의 충돌 역사는 사라져 있다. 수 백년 동안 교류하면서도 1856년 파리 조약에 이르러서야 오스만 터키가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된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슬라브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술 체계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18세기 초부터 1991년 구 소련이 붕괴 될 때까지 세계 외교사의 중심 과제는 슬라브 문제였다. 슬라브의 서유럽 진출을 저지하는 것이 유럽의 근본 과제로서 슬라브는 오랫동안 유럽 문명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아 왔다. 그런데 슬라브 문명권은 유럽으로 받은 이런 모욕을 아시아 진출로 보상받으려 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아시아를 천시하고 경시한 러시아적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말할 수



金容九

- 1961년 모교 문리대 외교학과 졸업
- 1969~2002년 모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 1985~1995년 모교 학생처장·국제문제연구소장·사회대 학장
- 1988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 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모교 명예교수

있다.

동양 3국에 대한 진출도 강대국 저서들은 특이하게 서술하고 있다. 아편 전쟁을 거쳐 개국(?) 조약들을 설명하고 반식민지의 과정을 설명한다. 개국과 쇄국은 일본의 용어다. 한문에서 개국의 뜻은 나라를 장전할 때 사용하는 날말이었다. 이런 날말이 영어의 opening으로 전환되는데 이 영어 말뜻은 야만의 개화의 차원으로 높여준다는 서양인의 우월 의식이 숨어 있다. 그리고 쇄국은 아예 한문 사전들에는 나타나지 않는 일본식 단어이다. 개국과 쇄국을 말하는 것 자체가 유교 문명권을 경시하는 일이다.

이들 서술 체계의 또 한가지 특징은 국제 사회의 모든 행위자들을 같은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이나 중국, 러시아나 조선을 같은 행위자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외교사는 행위자의 교섭사인데 그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교섭이 달라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지니고 있는 태도는 그들의 오랜 역사적인 구조로부터 나오게 마련이다. 이 간단한 명제가 강대국 저서들에서는 알려고 하지 않으며 비록 인식했어도 은폐돼 있다.

필자는 한국이 아직도 유목 민족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한반도가 여러 문명권들이 충돌하는 세계 외교사의 가장 끝자리에 위치했다는 사실이다. 유럽 문명권, 여기에 속하면 서도 「예외성」을 강조하는 튀르크, 슬라브 문명권, 중국과 일본이라는 독특한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충돌하고 교차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문명권의 외교 문서 속에 담겨진 그들의 한반도에 대한 「정신 구조」를 파헤쳐야만 21세기 국제 정치 구조에서 우리는 한국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충돌에 대처해 왔던 우리 자신의 「정신 구조」를 후손에 물려줄 외교 문서의 발간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한국에서 외교사를 배우고 연구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SNUA OPINION LEADER

유전자 단위서 밝혀진 위암 원인

국내에서 질병 원인유전자 규명과 치료방안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최초의 성공사례인 「RUNX3」유전자 발견을 통해 위암의 발생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위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다. 10년 이상의 연구 개발 기간과 수백억원의 연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위암 발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을 주며,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투자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RUNX3」유전자 발견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유전자가 구체적으로 인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들을 「RUNX3」의 발견자인 충북대 의대 裒錫哲교수에게 들어보았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암은 그 원인이 유전자 이상 때문임은 오래 전부터 밝혀져 왔다. 그러나 과연 어느 유전자가 어떻게 잘못돼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지는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규명된 바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질병의 근본적 발병 원인의 규명은 해당 질병의 치료법 개발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현대 생명과학 연구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위암은 한국·일본·중국에 특히 많은 암으로서 국내에서만 연간 4만명, 세계적으로는 연간 약 1백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사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발병 원인규명 연구가 수많은 연구실에서 수행돼 왔으나 최근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 본 연구실에서는 위암의 발병원인을 유전자 수준에서 밝히는데 성공함으로써 위암치료제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기에 이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유전자 조작으로 질병 규명

지난 50년 동안 생명과학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그 수준이 인간의 생명현상에 대한 호기심 만족 수준을 넘어 생명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 질병의 이해와 극복의 측면에서 볼 때 수많은 기술적 발전 중에서도 인간 유전자의 해독과 유

전자 조작동물 생산기술의 확립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에 의해 최근 인간 유전자 전체에 대한 지도가 작성됐으며 그 결과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갖가지 난치병의 원인을 극

인간 유전자 지도는

생명현상 이해와

난치병 원인규명의

중요한 기초자료

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마련됐다. 과거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해 염색체상의 어느 부위의 비정상화가 어느 질병의 발병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돼 있었다. 그러나 현미경상에서 관찰된 특정 염색체 부위가 실제로 분자수준에서 볼 때는 너무나 광범위해 정확히 어느 유전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밝힐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인체 유전자지도는 이러한 염색체 부위에 어떠한 유전자들이 배치돼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후보들을 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때로는 수백 개에 이르는 후보 유전자 중 어느 유전자의 비정상성이 과연 실제로 해당 질병의 발병원인이 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유전자를 조작한 동물 생산 기술은 이 단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동물에서 후보 유전자를 제거하고 동물이 과연 사람의 질병에서 관찰되는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유전자의 변형이 해당 질병의 원인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팀은 1995년 우연히 「RUNX3」라는 유전자를 발견했으며 이 유전자가 갖는 생물학적인 기능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이 유전자가 무엇 때문에 사람의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중 인간 유전체 지도가 발표됐는데, 이로부터 우리는 「RUNX3」가 존재하는 「1p36」이라고 명명된 1번 염색체의 특정 부위의 변형이

위암의 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다. 즉 「RUNX3」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위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팀은 「RUNX3」유전자가 제거된 생쥐를 생산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만약 이런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RUNX3」를 가지지 못한 생쥐는 위암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생쥐를 탄생시키기 위해 줄기세포(stem cell) 배양, 유전자 조작, 세포내의 유전자 도입, 배아이식 등 다양한 생명과학 기술이 동원됐으며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연구결과 「RUNX3」유전자 조작 생쥐가 태어나게 됐으며 이 생쥐가 보여준 증상은 생명과학자로서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것이었다.

「RUNX3」제거된 쥐 위암 발병

그 생쥐들은 한 마리도 예외 없이 위암과 유사한 증상으로 태어난지 얼마 안 돼 사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RUNX3」의 기능상실이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규명됐다.

이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와 유전자 조작동물 생산기술의 협조에 의한 개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진 다양한 보조적인 연구를 통해 「RUNX3」유전자는 원래 위암을 억제하는 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위암의 발병으로 이어짐을 알게 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다음 단계의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위암 환자에서 나타나는 「RUNX3」유전자의 변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

「RUNX3」발견을 계기로

위암의 공포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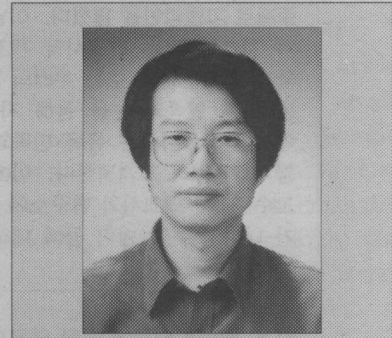
벗어날 수 있을 지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서 변형의 형태에 따라 치료법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되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 개발은 변형된 유전자의 원상복구이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암과 관련된 유전자 변형은 대부분 유전자 상실(deletion) 또는 점돌연변이(point mutation)로서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변형이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질병 발병의 원인이 규명된다고 해서 꼭 치료법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팀은 먼저 다른 암원인 유전자에서 흔히 관찰되는 유전자 상실과 점돌연변이의 가능성을 위암 환



裒錫哲

- 1985년 모교 약대 졸업.
- 1991년 모교 대학원 박사학위
- 1992년~1994년 日교토대 바이러스 연구소 박사연구원
- 1994년~1995년 프랑스 리옹 INSERM 연구소 박사연구원
- 현재 충북대 의대 의학과 교수

자의 조직에서 분석했다. 2백명의 환자 시료를 분석하는 대규모 작업 결과 「RUNX3」의 비가역적 변형은 위암에 극도로 드물며 대부분 유전자 메틸화에 의한 가역적인 변형 때문에 불활성화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RUNX3」의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것이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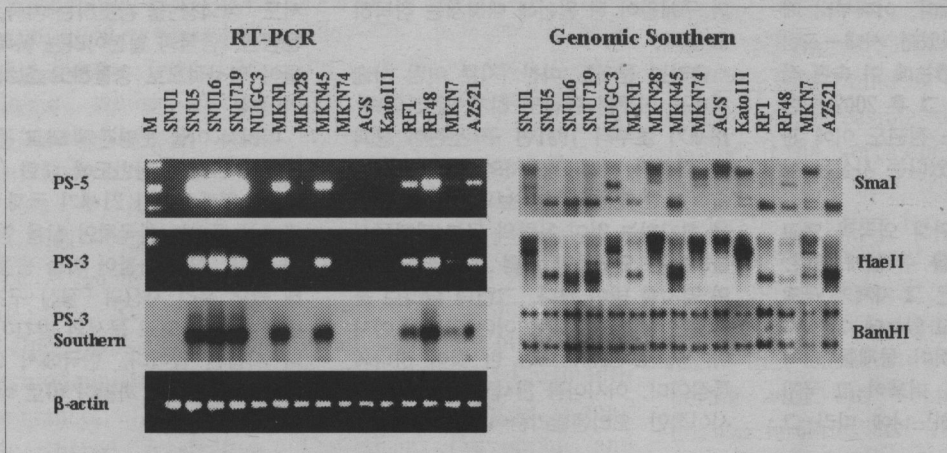
최근까지 알려진 다양한 암원인 유전자 중 화학물질을 이용해 재활성화가 가능한 경우는 비교적 드물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환자의 숫자는 대단히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위암의 경우는 달랐다.

대부분의 위암환자가 「RUNX3」의 재활성화에 의해 치료될 수 있음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계최고의 권위 생물학 학술지인 「Cell」에 실렸으며 「Nature」 등의 학술지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암 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결과가 실용화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위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인지는 우리에게 남겨진 다음 과제이다. 「RUNX3」의 활성화를 표적으로 하는 위암 치료제의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단일 품목으로도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엄청난 생명공학 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수백억원의 연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의 질병 원인유전자 규명과 치료방안 연구에 있어서 본 연구가 최초의 성공사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초과학을 위한 투자는 결국 현실에의 응용을 위한 것인 만큼 어렵게 얻은 중요한 연구 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암원인 유전자 RUNX3가 위암세포에서 불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한 실험결과.

< 基督教人과 聖經 >

The Authority of the Bible

金宗元(문리대 69년입,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troduction

We, believers, acknowledge that the Scriptures are authoritative as the Word of God. On the other hand, the biblical text was written by a human being to other human beings(s). Thus it has a particular historical cultural setting, which inevitably entails the diversity among the entire biblical texts. Now we have the ambiguity between the bible as the timeless divine revelation and the Scriptures as the human writings with own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If we disregard the historicity of the bible, we might have a "docetic Bible" [脚註 #1]; on the other hand, if we ignore the biblical aspect of divine revelation, we might reduce the bible into merely cultural products. Thus we need to find a way to deal with this seeming contradiction of the two aspects of the bible. We will begin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d its historical and cultural particularity. Then we will discuss how to relate the two contradictory aspects of the Bible.

I) The nature of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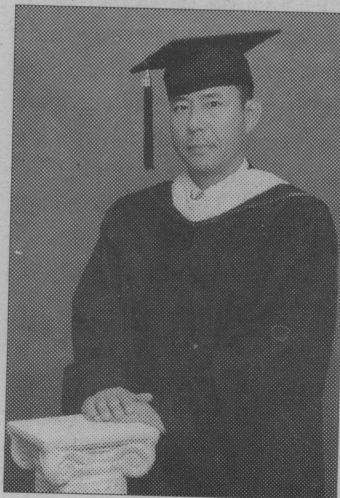
Our confession that the Bible is authoritative as the written divine revelation is contingent upon our faith in God, and in Christ as "the focus and locus of God's revelation" [#2], and upon our Church's recognition of the authority of the Bible. Naturally our faith in God demands us to consider the divine revelation which chronologically precedes the written Scriptures. As all of us know well, God had revealed Himself to His people, before Moses began to write the Scripture. In due course, God appeared to

Moses in the burning bush (Ex 3:2). God became more intimate through revealing His name Yahweh (Ex 33:19-34: 6), making a new covenant, and helping to make the Exodus from the Egyptian bondage. From his own perspective, Moses looked back to Abraham, Isaac, Jacob, and even to Adam and Eve. Out of his retrospection, the Scripture as well as the doctrine of Creation came into being.

We can say the basically same thing for the New Testament. Although Paul did not have the direct access to the historical Jesus, he had his own encounter with the Risen Christ on the road to Damascus (Acts 9:1-9). On the other hand, Paul had the oral traditions about the eyewitness accounts of Jesus' teachings and acts, as well as about his resurrection; on the other hand, he had direct revelation from the Risen Lord. Based on both sources, Paul wrote the so called Pauline Epistles. Also the writers of the Gospel had had either oral or written traditions based on the eyewitness stories about Jesus as God's full revelation (John 1:14), before setting out to inscribe the individual gospels according to their own names. Thus either in the Old or New Testament, there had been the previous divine revelations, before the Scriptures were written down. Therefore we confess that the Bible is authoritative as the written Word

of God, because we believe that is based on the divine revelations, although the human factors were inevitable involved in its actual process of inscripturation.

When we talk about the authority of the Scripture, at least we imply two dimensions; the canon and the text. Whether each text was



to be included in the canon or not was a matter of the human consensus, and we know there were, in fact, not a little controversy in the course of canonizing process. But we believe God's providence influenced to produce the outcome of the canonization. Thus while, in the time of Jesus and the New Testament writers, the Scriptures meant the Hebrew bible or the Septuagint, the New Testament canon came to emerge as the product of the early church.

The canon consists of the particular texts. Therefore there are both particularity and diversity among the texts in the canon, because every text in the Bible was produced in its uniqu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We will discuss biblical particularity and diversity in the next section more fully, but one thing needs to be said here; the cultural condition of each text does not necessarily contradict its divine authority, since God has chosen to reveal himself through a particular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and "in the weakness and limitation of human words" [#3]. It is true that to preserve harmony between the Scripture from above and that from below has been a big problem throughout church history. The Scripture from above stresses the divine inspiration in the inscripturation, while the Scripture from below the human authorship. It is needless to say that our view of Scripture should be formed both from above and from below simultaneously.

[투고요청] 주지하다시피 西洋文化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스 철학과 Judaeo-Christianity의 이해가 필수적이며 현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지대하나, 페르시아 문화, 이집트 문화, 유대교 및 그리스 철학이 로마제국의 土壤 위에서 生成한 기독교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은 단장취의(斷章取義)적인 구호이상으로 어렵다. 기독교의 성탄절을 맞아 기독교인들이 聖經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新約聖經를 전공하고 있는 필자로부터 인간의 언어로 된 聖經를 읽을 때에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논고를 여기에 수록한다. 현대 科學의 '知識'이 갖는 宇宙論과 倫理學이 그 근원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限界에 비추어, 우리 동문들은 각자의 信仰과 宗教가 주는 "知慧"를 서로 나누는 玉稿를 보내시어 世界平和와 人類 文化 발전에 제기되는 근본 문제들을 우리 同門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십시오.

Through its diversity, the bible is able to possess relevance to diverse situations. As long as the locus of authority is in the biblical texts themselve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he canon, we need to consider the particularity and the diversity of the Bible seriously. Since God reaches to us through the written Word in the texts, the particularity and the diversity of the texts are the very way which God has chosen to reveal himself. therefore biblical authority is not diminished by its historical particularity as well as its diversity.

When we talk about the authority of the bible, it is important to differentiate biblical inerrancy from biblical authority. the authors of the bible are not obsessed with the notion that their biblical account should be accurate in every detail. They are content with a moderate level of accuracy, as long as their accounts lead us to the knowledge of God, because the purpose of the Scripture is to give us the knowledge of God, producing our faith and obedience. Also there can be the possibility of the human lapse of memory or other human weakness in the process of inscripturation. For example, Mark quotes from the Old Testament a story about David who enters the house of God and eats the bread of the presence. Mark tells that Abiathar is the high priest (Mk 2:25-26), but in fact the Old Testament mentions only Ahimelech as the priest not Abiathar (1 Sam 21:1-6). In spite of this minor discrepancy, the authority of Mark

s not affected, because Mark's purpose is not to give the exact details of the story, but to emphasize Jesus' teaching that human need is prior to the law. If we believe in the deity of Christ in spite of his humanity, and if we still believe, even in the face of evil and injustice in the world, that God is 'all-powerful and all-good', and if we still regard that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in spite of various problems within and without the Church, then likewise we can uphold biblical authority in spite of some weakness such as scriptural incongruities. Another issue we need to consider is that the Scripture is "God-breathed" (2 Timothy 3:16-7). The Church confesses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because it experiences the power and truth of the Spirit of God through the Bible. While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is a kind of mystery, one thing is clear: it is not the dictation in the mechanical sense. It means that the Scripture is given by God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I) The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settings of the New Testament

When we talk about biblical authority, its authority is to be found in the contents of each text. Fundamentally the meaning of the text is what the author intends to express.

Thus the original meaning of the text is conditioned by the particular historical-cultural setting of the author, which is the context of the text.

< 18면에 계속 >

基督敎人과 聖經
<17면에서 계속>

Therefore we are required to engage in the historical-critical method of interpretation, or "historical-contextual interpretation" [#4]. It is true that this method has been exposed to various critiques, both from the right and the left. Nonetheless most of them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the historical-critical method, as long as we avoid too narrow application of it, which usually results in its departure from interpreting the scriptures within the theological context of the believing community. Dr. Scholer suggests that the appropriate historical-contextual exegesis should seek to find the meaning of any biblical text within several contexts as follows [#5].

(1) its lexical and grammatical characteristics in the original language;

(2) its immediate meaning in the paragraph;

(3) its literary structure or 'flow' and its literary genre;

(4) its significance in the author's life and writings, if possible;

(5) its place within its cultural environments, especially the ancient Near East culture, Judaism and Greco-Roman society; and

(6) its relations to the histories of Israel and the early Church.

In relation to item 3, I would like to add one more: that is to consider the influence on the biblical texts of the contemporary literature of the same or similar genres. Also, besides the author's context in item 4, it may be useful to take into account the contexts of the prospective recipients, at least, in the case of the epistles. Especially item 3 and 5 make it clear that the sound historical approach always include relevant literary and sociological analysis, unless both literary and sociological explorations more away from the text and its historical setting, becoming a historical.

The 'coercion of the text', according to Bravard Childs, expresses the conviction that our proper biblical interpretation should be "coerced" by the original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meaning of the text,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interpret the text in a purely objective sense, because in their interpretation of the texts, the interpreters themselves are also conditioned by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situations. Therefore we need to take all the more seriously the "coercion of the text" [#6] in order to prevent the subjectivity of interpreters, while we engage in the ongoing task of exegesis of biblical texts.

We have already seen that the particularity and the diversity of the texts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While the particularity of the texts inevitably entails the diversity among the biblical texts, the so-called 'left' tends to regard diversity as contradiction, the bible are neglected, openly as the left or subtly in the right. "The reality of the Bible should be likened to a patchwork quilt of many colors and individually patterned squares that displays its total beautiful unity by its very diversity" [#7]. Any facile harmonization disregards the fact that the diversity is the way God has chosen to make it one of the glorious aspects of the Bible. But in order to appropriate the biblical diversity, we need to find a central standard for the interpretation, which is fit both to the historical uniqueness of each text, and to the pluralism in the canon. It is beyond question that, in principle, Jesus as God's complete revelation and the New Testament as the fulfillment of the Old Testament should be the prime interpretive center, but, in the actual interpretation, the diversity of the bible has to be approached by the "canonical interpretation" [#8] with its implied theology. In this way, the canonical interpretation dealing with the diversity complements the historical-critical

cal interpretation which focuses on the particularity.

Also the Church's traditions and the confessions of faith of our believing communities may supply us with important guidelines in our exegesis, as long as we do not allow them to prevail over the "coercion of the text". We have discussed how to approach the biblical particularity and diversity. Closely related to them and to the biblical interpretation is how to differentiate the divine revelation as the absolute theological and normative truths from the relative historical and cultural elements in the bible, because the bible is neither a docetic bible, nor merely human documents. Here Dr. Scholer also suggests useful guidelines to distinguish the former from the latter [#9]. 1) to distinguish the central core of the Gospel from the peripheral material [contrast the holy kiss and the resurrection of Jesus]; 2) to determine the relative amount of emphasis (compare the relative frequency of references to foot-washing and to baptism); 3) to distinguish between normative teachings and descriptive narratives (compare Lk 12:33 and 19:8-9, 1 Cor 14:34 and 11:5); 4)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nsistent witnesses and the different emphases (Jesus' lordship and deity, love, homosexuality-women as teachers, retention of one's material wealth); 5) to distinguish between principles and applications (cf. 1 Cor 11:2-16, 1 Peter 2:18-21, 1 Tim 2:11-15); 6) to determine the reversed principles within the New Testament (Mt 10:5-6 and 28:16-20; 1 Tim 2:13-14/ 1 Cor 14:34 and 1 Cor 11:11-12/Gal 3:28); 7) to know whether there is only one cultural option or not (resurrection, homosexuality-slavery, women's status and role); 8) to compare the culture of the New Testament with ours (cf. Rom 13:1-7, 1 Cor 14:34-5). All these guidelines, in my opinion, might be summarized in two factors: intention and culture. While any biblical rela-

tive particularity seems to be related to the issue of cultural difference, the timeless revelation can be distinguished by means of ascertaining the intention, whether it is God's, or the Lord's, for example, Paul regarded circumcision as a relative obligation, while the ordinary Jews thought that God ordered the Israelites to be circumcised as an absolute injunction. There wa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understanding the divine intention between Paul and the other Jews. The sabbath controversy (Mt. 12:1-8) between Jesus and his stock opponents Pharisees is another classic episode which reveals the different understanding of God's intention. For Jesus, God established the sabbath for human beings, but the Pharisees understood it almost in the opposite sense. Even the Lord's Supper may be understood as belonging to the culturally relative institution, it seen from the standpoint of the Quakers or the Salvation Army, depending upon how they determine Lord's intention concerning it. We might say the similar thing about Baptism (at least about the infant baptism). Therefore, if any one wants to prove the absoluteness of the Sacrament, he or she must provide any evidence, besides the tradition of one's believing community, that the Lord intended it to be an absolute and timeless institution. The history of the Church shows us that the meaning and the practice of the Sacrament, as well as other various issues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Rom 13:1-7) and the status of women in the church (1 Cor 11:5, 14:34-5), have been determined variously [#10] according to the historical situations and the diverse traditions of the denominations concerned. By contrast, the divine command to love God and one's neighbors is a timeless obligation for any human being in any time.

Obviously the questions of

the subjection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and the status of women in the church belong to the cultural issues. The Israelites had been ruled by the Judges, before they began to have the kings. God did not want them to have kings, but they urged God to give them kings. Therefore God reluctantly allowed them to have kings. This episode clearly shows that any form of government is a historical phenomenon. The Roman Empire in Paul's life time was also another stage in the development of history, the master of which god is. Of course there had been the anti-Roman movements of the freedom fighters like the Zealots. Although Paul had known all of these facts, he accepted the Roman hegemony as God's providence to provide him with an appropriate environment to proclaim the gospel. As for women's status, Paul had clearly proclaimed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there is neither male nor female Gal 3:26). When Paul urged women to keep silence in the church (1 Cor 14:34),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women had been prohibited not only from teaching men, but also from tearing from the Rabbi. I think that, since women were admitted to the church without any discrimination, the early church was much more advanced toward the equality of women than other ancient religions including Judaism. So I believe that Paul was more concerned with male newcomers from the patriarchal ancient society into the church, rather than with the ordinary women's role in the church, when he talked about women's silence or the veils on their head (at least women were allowed to prophesy or to pray in the church (1 Cor 11:5), if they were no more able to continue to teach men).

<19면에 계속>

한국의 종교 天道教

찍는 점(點) 하나로

李泰相 (문리대 59년 졸)

"사람이 붓을 어떻게 잡는지
 잘 좀 살펴 보라.
 정신을 가다듬고 고요한 마음으로
 글씨를 쓴다.
 찍는 점(點) 하나로
 글 전체가 크게 달라진다."

위의 말씀은 우리 나라 고유의 종교 天道教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東經大典」에 있는 구절인데 삶과 사람의 붓글씨를 쓰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지침이다. 이 글이 주는 메시지는 인생은 살기에, 운명은 개척하기에 달렸다는 것이리라. 敎主 崔濟愚가 시작한 이 하늘 天, 길 道, 가르침 敎, 천도교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宗教로서 敎勢가 약하기는 하지만 [편집자 주: 천도교의 원래 이름은 東學이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超越的 絕對者에 대한 의존이나 救援보다는 자기 修養과 완성을 통한 地上天

國을 목표로 하는 宗旨이므로, 소외된 현대인의 구원을 갈구하는 宗教性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천도교는 宗教로서의 吸引力이 약한 것이 敎세 쇠약의 원인으로 사료됨], 세계의 모든 종교 가운데서 그 가르침의 내용은 제쳐놓고라도 그 이름 석 자가 그 어느 종교보다 더 사람을 계몽하고 선도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본다. 천도교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는 人乃天이라고, 사람이 곧 하늘이란 뜻으로 小我인 인간과 大我인 神을 동일시, 人間과 宇宙가 하나라는 것, 다시 말해 소우주 인간과 대우주 자연이 함께 하늘의 조화와 신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천도교를 진짜 統一敎라 부를 수도 있으리라. 하늘과 땅, 陰과 陽, 여자와 남자 우리 모두 "반쪽님"들이 결합하여, "하나님"으로 통일될 때 우리 또한 우리의 또 다른 "너와 나"



의 소우주를 창조하는 대우주 곧 창조주 '하느님'이 되는 것일 테니까. 현실적으로 풀이하면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 사이에 높고 낮음이나 自他가 없다는 것, 따라서 물질이 인간의 우상이 되거나 사람이 사람의 주인이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되고 모든 사람은 서로의 分身으로 하늘의 뜻을 따라 사람의 도리를 지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도성덕립(道成德立)으로 우리 각자 자아완성을 통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지상천국(地上天國)이란 "人乃天"의 최고 목표로서 이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만들어보자

는 것이다. 그러자면 첫째로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둘째로 마음문을 열어 모든 이웃과 친목을 도모하며, 셋째로 사회정의와 국제평화를 통한 인류애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 소박한 삶의 지표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같이 이 세상 삶을 가볍게 보라든가 인간은 "原罪"를 타고난 "罪人"으로서 수난이나 신앙을 통해 구원받아 내세에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초월인(超越因)으로서의 神의 자선적인 자비로운 구원이나 허락과는 상관없이 내세가 아닌 현재에서 우리 자신의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천도교의 가르침은 배타적이고 이기적 選民사상에 젖은 다른 종교들의 독선, 독단적인 교리들과는 판이하다. 유대교의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자유나 평등보다 독선, 독단적인 정의를 부르짖으며 유대인 아닌 다른 모든 인종을 異邦人으로 배척했고 기독교의 "福音" 전도자들은 현재에서의 행복보다는 내세에서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신과 '구세주'를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

을 異教徒, 未信자로 낙인찍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천도교 사상은 수 천년 전 희랍의 인도주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빌건대 그야말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불어오는 한줄기 신선한 바람처럼 천도교의 단순, 소박한 가르침이 모든 인류에게 "하늘의 길"(天道)을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리하여 개명된 인류사회 지구촌에서 더 이상 악육강식의 동물들같이 弱者를 수탈하고 무지한 백성의 정신을 혼미하게 마비시켜 우리들의 혼을 뺏는 일들이 하루속히 없게 되기만 간절히 빌 뿐이다.



<18면에서 계속>

Thus the factors of culture and the divine intention are critical to distinguish between the trans-cultural revelation and the historically and culturally relative elements in the texts.

III.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uthority and the Settings of the N. T.

The Scripture has its authority as the divine revelation conveyed through particular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of human writings. Since the Scripture as the divine revelation contains some weakness of human writings, frequently the servant form of the Scripture is thought to parallel the servant form of Christ. It is true that there are certain qualifications in this parallel: first, we can worship Christ, but we don't worship the bible (question of bibliolatry); second, although there are some incongruities in the bible, but Christ is sinless. In spite of these qualifications, I think we can maintain the servant form of the bible

with regard to the relation between its authority and its contingent settings. For some weaknesses of the bible are not sin themselves, if they are defects. Also just as without Christ's humanity we cannot imagine the divinity of Christ, we cannot approach the divine revelation in the bible, if not through the form of human writings. The Word of God the servant form of the Scripture is "treasure in earthen vessels" (2 Cor 4:7). If expressed in Paul's words.

Since the eternal God has chosen to reveal Himself in the mode which we could comprehend, that is, through the particular human history, the authority of the bible as the divine revelation in the human writings, namely "treasure in earthen vessels", is to be appropriated only by our efforts of the historical critical exegesis [#11], once we acknowledge the authority of the bible. Thus the interpretation always involves the text and the interpreter, both of them are always conditioned by the historical-cultural situations. Just as

God approaches us through the Bible written in human languages, an outcome of divine accommodation. So we appropriate the authority of the Scripture as the Word of God through our historical critical interpretation of the texts inscribed in their historical, cultural settings. But in this interpretative efforts, the social, ecclesiastical and personal biases of the interpreter are bound to intervene. Our hermeneutical dilemma is but a reflection of the eternal, transcendent God's revelatory dilemma [#12]. Nevertheless, we cannot help approaching the divine revelation in the bible through the particularity and diversity of the texts, while we try to overcome our subjectivity as the interpreters.

Conclusion

We have seen that the written Scripture is a kind of 'treasure in the earthen vessel'. God's revelation is transmitted to us through the human writings with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particularities. The authority of the bible has any

meaningfulness, only when it is appropriated through our interpretation of the texts by means of the historical-critical exegesis. The biblical diversity, which is the inevitable aspect related to the particularity of the individual text, is to be dealt with the canonical interpretation as a corrective means of the historical-critical exegesis. Whenever we read the bible we must avoid the extreme way, treating the bible as the docetic bible or merely human literature without any divine initiative. The authority of the bible as the Word of God is appropriated through overcoming double particularities, objective and subjective. The objective particularity means the historical-cultural settings of the bible, while the subjective particularity the interpreter's own context. Truly the Bible is an eternal challenge to the human beings, demanding from us the continuous efforts of exegesis.

[脚註]

[#1] D. Scholer, "Issues in Biblical Interpretation" H. Marshall ed., Evangelical Quarterly v.

X:1(1988), 19 ; [#2] D. Scholer, "The Nature of Biblical Authority: A Moderate Perspective", C.R. Blaisdell, ed. Conservative, Moderate, Liberal: The Biblical Authority Debate (St. Louis: CBP Press, 1990), 57 ; [#3] Berkouwer, Holy Scripture (Grand Rapids: Eerdmans, 1975), 207 ; [#4] D. Scholer, "Issues in Biblical Interpretation", H. Marshall ed, Evangelical Quarterly v. LX:1(1988), 9 ; [#5] D. Scholer, "Issues in Biblical Interpretation" H. Marshall ed, Evangelical Quarterly v. LX:1(1988), 9 ; [#6] Ibid. 10 ; [#7] Ibid. 15 ; [#8] Ibid. 17 ; [#9] Ibid. 19 ; [#10] "I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determination about the divine intention inevitably involves certain level of subjectivity on the part of the interpreters. ; [#11] D. Scholer, "Issues in Biblical Interpretation" H. Marshall ed., Evangelical Quarterly v. LX:1(1988), 16. According to Tertullian, "Without Scripture there can be no heresy", Which means that already Tertullian perceived that the scriptural authority was to be appropriated by the triad of text, tradition, and the interpretive struggle. ; [#12] D. Scholer, "The Nature of Biblical Authority: A Moderate Perspective", C.R. Blaisdell, ed, Conservative Moderate, Liberal: The Biblical

뉴욕 藥大동창회 구라과 旅行記

高岡熙(약대 14회, 60년졸)

1. 힘든 여행은 왜 하십니까?

이번 9월 초에 함께 구라과 여행을 하신 28분의 뉴욕지구 약대 동문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하신 몸들이 한 두분이 아니신데 잘 해내셨습니다. 며칠동안 계속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난 경험도 처음이실거고 또 그렇게 장시간의 버스과 걸음을 걸어본 것도 아마 일찌기 경험을 못했을 겁니다. 또 내가 하루에 그렇게 많은 소변을 생산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2시간밖에 안되는구나 생각을 하니 자연히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나만 숙연해지나 하고 좌우를 보았더니 모두 고개를 숙이고 소변을 보고있어서, 나만 그렇게 아니고 모두 같은 사람들이로구나 하면서 자기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여행을 왜 하십니까? 아름다운 명소를 찾아서? 역사의 유적을 보러? 그런 이유라면 미국에도 가 볼만한 곳은 얼마든지 널려 있고 우리가 못 가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시간과 돈을 소비하면서 왜 여행을 하십니까? 물론 여행때나기 전 나름대로 계획을 다 하지요. "이번에 가서 파리에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예술사진을 남겨야겠다", "저녁 세느강변에 앉아 불란서포도주 한 잔을", "본고장의 피자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눈썹 없는 모나리자의 원본을", 베드로성당의 미켈란젤로의 천정벽화를, 또 어떤 분은 <루비똥>에 온 신경이 다 가있던 분도 계셨을 거고 각자 자기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 때문에만 여행을 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여행에서 쓴 돈, 시간, 정력 등등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본인은 여행을 할 때마다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바로 이거다> 하는 답을 현재까지는 못 찾았 있습니다. 어느 분 알고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왜 여행을 하나?] 답이 한 가지일수는 없겠지요. 이 글을 여행사 김미란 사장에게 하나 보내 주었더니, 나보고 글을 쓰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으나 그건 아니고, 그 답중에 제가 갖고 있는 한가지 답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25년을 뉴욕변두리 후진 동네에서 사람도 그 사람, 물건도 그 물건, 얘기도 똑같은 얘기, 장소도 한곳에서 25년입니다. 그러나 25년 동안 매일 내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왜 사니?", "왜

이러고 사니?" 완전히 나를 모르고 살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보면 혹시나 나를 좀 볼 수 있을까 해서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서 사는 3살 짜리 손자가 다녀 왔었습니다. 집에만 있다가 하루는 바깥에 나가서 밥도 먹고 백화점에서 물건도 사고 장난감도 사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잡한 곳에서 같이 갔던 어른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저놈이 말도 못하고 길도 모를텐데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갔던 어른들이 "너 여기서 집이 어디지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모른다"는 답변이 뻔히 나올걸 알면서도 어른들은 괜히 걱정이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얘가 "모른다" 해놓고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본 모양입니다.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물어보는걸 보니 무슨 중요한일이 있는 것 같았는지 별안간 저희 아버지보고 "Cameron을 타러가자"고 그래요. Cameron은 그 아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가용 비행기 이름입니다. 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두번째 만난 남자가 영국남자입니다. 첫번째 결혼에서는 아이가 없고 재혼한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이 있고 집은 런던에서 자동차로 2시간정도 떨어져있는 BATH 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BATH는 한때 로마군인들이 휴양지로 쓰던 온천도시로 약1,000명이 함께 들어 갈 수 있는 공중 온천탕이 있는 도시로 당시에는 ROMAN BATH 라고 하던 것을 지금은 BATH 라고 합니다. 지금은 관광도시로, 영국 중남부지역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BATH지역은 II이 없습니다. 주로 언덕과 평야가 이어지는 전원도시이고 3층 이상은 지을수 없는 단독주택만의 전원도시입니다. 지형조건이 경비행기를 타기 좋게 되어있는 마을입니다.

또 자가용비행기가 있다면 무슨 굉장한 부자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국은(미국도 점점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지만)웬만한 사람이면 자가용비행기가 있습니다. 전원도시인들에게는 필수품처럼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RENT하는 사람도 있고, 몇 년씩 LEASE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맞돈내고 사야 SPORTS CAR 하나값(20만불 내외)정도니까 경비행기를 소유하는 사람이



알프스산을 가는 등반객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비행기로 출퇴근하는 것은 보통이고 먼 곳에 사는 가족, 친구 친척들의 결혼식이나 방문시에도 비행기로 이동하는 편이 자동차보다 비용도 싸고 시간도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건 아니고 어느정도 여유있는 사람들이겠지요. 어쨌든 CAMERON도 영국의 어느 중류사회 가정에서 RE-CREATION용으로 갖고 있는 4인승 PROPELLER 달린 경비행기입니다.

그 CAMERON을 갑자기 타자고하니 어른들이 이번엔 당황해서 한결같이 달래는 거예요. CAMERON은 BATH에 있고 여기는 버지가 있는 NEW YORK이라고. (저희 친할아버지는 영어로 GRANDPA이고 나는 한국말로 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의 할아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른들이 설명을 해도 3살먹은 이놈은 계속해서 CAMERON을 타자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별안간 왜 이러나?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서로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아버지는 그 뜻을 알고있는지 웃고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오르며 집 위를 지나가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기 보이는 집이 우리집이다" 라고 할 때마다 가리켜 주어서 이제는 비행기만 타면 "저게 우리집이야, DADDY 알아?" 하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거였습시다. 어른들이 집이 어디냐고 계속 물으니까 그 길거리에서는 안보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멀리서보면 집을 알 수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를 즐겼던 것이고 편사람들은 모르지만 경험있는 저희아버지는 꼬마의 뜻을 알고 옆에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잠새의 뜻을 봉황이 몰랐던" 거지요. 멀리서보면 자기 집을 볼 수 있다는 3살배기의 생각. "정말, 현재 내가 살고있는 이 위치에서는 내가 안보여요. 매일 똑같은 일, 똑같은 생활, 나를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나를 발견할 수 있기는 커녕 점점 더 묻혀져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

가 버스 안에서 한참 졸고있는데 어떤 안내원이 "여행은 자기환상을 깨는 일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자기환상을 깨는 일이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렇게 찾아헤메던 답이

아닌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 그의 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안내원의 설명은 대강 이러했습니다. 여행이 환상을 깨는 일이란 것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약해서, 팔에 힘이 없어서, 혈압약을 먹는 노인인데, 다리가 약해서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자기보호 환상을 깨는 일이라는 얘기에요. 미리 겁을 먹으면, 앞으로 펼쳐질 알프스산 정상에 오르는 일 또 보통 2-3시간씩 걸어야 볼 수 있는 베드로성당,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이유 궁전, 땡별의 2시간 POPMPEI 관광 등이 모든 힘란한 여행을 자기건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까봐 한 사람이라도 나오자가 없도록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자기환상을 깨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해보니까 또 돼지요? 정말 그의 말대로 "자기환상을 깨버리니까"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관광을 다 하신 겁니다. 안내원이 "내일은 ALPS정상에 올라갑니다." 하니깐 모두가, "아이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일은 ALPS에 와서 묻히는구나."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험난한 산을 오르는 일도 해냈습니다. 만데 가서 자랑 할만합니다. 톱니케도 기차얘기는 쑥 빼버리시고, 눈 위에서 찍은 사진만 몇 장 보여 주시면서, 내가먹는 비타민은 바로 이거야 하시면 그 동안 안 팔렸던 미제비타민 몽땅 처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간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어갔다 나온 얼음동굴 "ice palace"는 해발 3400m에 위치하고 그 위에 있던 "SPHINX VIEWPOINT", "TOP OF EUROPE"이 3500m(백두산 높이는 2744m).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찍은 사진만으로도 말천은 다 뽐으신 겁니다. 우리는 로마군인이 천년이상 걸어다닌 발자취를 약 십여일 동안 따라 다녔습니다. PARIS의 세느강에서 시작해서 RHINE강을 따라 ALPS를 넘어서 곤돌라에 떠있다가 잿더미도 시까지 너무 한꺼번에 보아서 어떤게 어떤건지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게 당연합니

다. 어제 일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본 거, 들은 전부가 2000년 짜리 역사적 유물인데 생각이 잘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못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만족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나마라도 생각이 날 때, 더 잊어버리기 전에 훗날을 위해서, 그 동안 여행하면서 듣고 나눈 얘기들을 여기 씁니다. 또 이 글은 훗날 생각이 잘 안날때 들춰보려는 나를 위해 쓰는 기록입니다. 글을 쓴다는게 얼마나 주저넙는 건지 모르지만 기억을 불러일으키는게는 이 이상 좋은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쓴 글을 그대로 컴퓨터가 발달한 덕에 덤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내 생각이 고 얘기도 내가 들은 얘기만 씁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은 잘 읽고 나서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한 줄도 안 쓰면서 남의 글을 실컷 읽고 나서, 이 얘기는 틀렸고 저 얘기는 어떻게 하며 심지어는 싸움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나는 답변을 안하고 탄소리만 합니다. 옛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계실 때 미군사령관으로 하지 중장이 실질적 통치권을 쥐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간섭을 할 때 얘기입니다. 어느 날 청와대로(당시는 경무대) 하지장군이 들어와서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싫은 소리를 하니깐 한참 듣고 계시던 이 박사가 하시는 말씀이, "요즘 우리 집 강아지가 밥을 안 먹어.. "라고 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 봤자 헛수고란 생각이 들었던지 하지가 그냥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 혹시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이 부분은 잘못됐고 저것은 틀렸고 어쩌고 하면 나는 탄소리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가끔은 동창회다, 주간지다 또 어떤 때는 서울서까지 원고청탁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쪽 사정에 맞게 여기서 최대한도로 줄여서 간단하게 한 두장으로 써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같이 여행했던명단이 밝혀지게 됩니다. 일행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 지상에 올릴 때의 필수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 중에서 틀린 부분은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름, 지명, 숫자 같은 것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써서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가 틀리면 여러분은 아무 죄 없이 같이 물어서 욕을 먹게되니까요.

<21면에 계속>

<20면에서 계속>

<II> 파리의 女人列傳

첫날 도착한곳이 파리. 7시간 비행기를 타고 잠도 자는 동안 마는 등 아침에 DE-GAULLE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구라파를 여러번 드나들었습니다만 파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굉장한 국제공항으로 머리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세계에서 CONCORD가 드나드는 공항은 영국의 HEATHROW, 미국의 KENNEDY, 그리고 불란서의 DEGAULLE 세 곳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공항이 DEGAULLE의 이름만큼이나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입국수속 허러 줄을 섰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GREYHOUND의 버스터미널도 이것보다는 백배나 낫겠다, 이게 무슨 국제공항이 이래." 그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서 한마디씩 다하니가 음지 합창이 저절로 되고 여기저기서 가끔씩 여관에 우는소리도 반주를 더했습니다.

루이14세가 '집이 국가요, 왕이요'하던 쿤데, "내가 세계에서 으뜸이다"하던 NAPOLEON의 배짱, 자존심 빼면 쓰러지는 국민성의 나라가 초입에서부터 보여지기 시작한 거지요. 나중에 생각하니가 즐서기 인내심도 그 때 부터 연습을 시킨 것 같애요. 내리자마자 버스를 타고 {루브르 박물관}으로 갔지요. 그때가 시계를 보니까 미국시간으로 새벽2시.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누가 환갑내기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잠도 자는 동안 마는 등 하다가 아침새벽2시에 박물관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점심엔 뒷쪽지만한 달팽이 딱 여섯개먹고 오후엔 막바로 베르사유 궁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중의 하나라니까 크긴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다 보고 나왔다는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에는 모르고 따라다녔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죽기살기로 한거예요. 그것을 관광심리학에서는 '비교만족'이라고 합니다. "나보다 몸도 약하고 시들시들한 사람도 잘만 따라다니는데 나라고 쳐질 수 있느냐" 바로 그러지요. 또 자기환상을 깨는 작업도 큰 몫을 했습니다. 달팽이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날 누군가가 달팽이를 좀 더 달라고 하니가 식당주인이 뭐라고 그랬죠? 달팽이가 精力에 좋은 것은 사실이나 6개 이상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말에 모두가 몸사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정력이라면 꼭꼭을 못하는 국민의 후예임이 틀림없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식당에서 제일인기요리가 달팽이 요리인데 고급식당에서는 한 접시에 100여불이고 올려지는 달팽이도 많이 주는 데는 백여개 이상이 된답니다. 그것을 혼자서 싹싹 다 훑고 나가는 불란서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도 그것을 자살용으로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식당주인이 6개이상 여쭈구 저쭈구 하는 얘기는 믿지 말았어야 할 것을 그랬습니다.

파리의 세느강, 루브르박물관 모나리자가 웃느냐? 시무룩하냐? 눈썹이 왜 없게 보이느냐? 현지에서 원본을 보고 또 미술을 전공한 머리를 길게 기른 현지 안내원 김시보씨가 연필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던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서 <반고흐>의 자화상도 보았고 조각품이며 너무 본 게 많아서 기억은 안 나시겠



파리 개천문 앞에서. 뒤줄 왼쪽부터 고강희, 서정용, Mrs. 김태호, 손갑수, Mrs. 손갑수, 김태호, 이성구, 김동진, Mrs. 김동진, 이종대, 이종대, 김동환, 김성현, 앞줄 오른쪽부터 Mrs. 송재환, Mrs. 이종대, Mrs. 이종대, Mrs. 이성구, Mrs. 이종수, 이종수, Mrs. 고강희 Mrs. 서정용

지만 나중에 그 근방에서 찍은 사진으로 더듬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습니다. 개천문, 에펠탑, 콩코드광장-이름하여 인류 화합의 광장, 노트담 대성당 NAPOLEON의 대관식을 거행한 곳, 노트담 제로포인트, 화가들이 모이는 지저분한 장소 몽마르트 언덕, 그런데 그 지저분한 것도 文化, 몽마르트 올라갈 때는 꼭대기를 보시고 자신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도 그 높은 곳을 다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쁘게 펼쳐지는 파리스내전경도 보았습니다. 참 목심나는 도시였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비탈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뻘뻘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다음을 위해서 이쯤해서 불란서는 마음을 해야겠는데 한가지 더 하고 기차역으로 갑시다.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아시는 얘기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글은 훗날 생각이 잘 안날 때 들쳐보는 기록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아는 얘기라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루이14세와 얽힌 얘기 중에서 女人열전 하나 들으셨지요? 귀족출신의 사교계의 여왕 [마담 몽테스팡]과 평민출신으로 유치원선생이며 애들을 돌보는 보모 [펄프농]은 루이14세보다 연상의 여인이었는데 [마담 몽테스팡]이 사랑싸움에서 [펄프농]에게 지고 말지요. 베르사유 뒷정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당시상류귀족사회를 주름잡던 힘있는 여자 [마담 몽테스팡]과 보모 [펄프농]과의 유명한 입싸움. 당신은 지금 나를 야단치면서 한발 한 단계씩 내 위치로 내려오고 있지만, 나는 당신이 야단치는 얘기를 잊지 않게 잘 듣기 위해서, 한 단계 한 계단 당신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후에 계단 밑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기를 못쳐던 [펄프농]은 루이14세의 왕비가 되고, 루이14세에게 꼬리를 치지 말라고 큰소리로 독설을 퍼부었던 [마담 몽테스팡]은 계단 밑의 땅으로 내려오는 역사가 <베르사유>궁에 있었다는 얘기도 감명 깊었습니다. 말은 크게하는 목소리보다 조용한 소리가 더 힘을 발휘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약대동기회 14회를 향하여 한마디한다면. 다 좋습니다. 단결도 잘되고, 믿음들도 좋고, 의리도 있고, 우애도 좋고, 좋다는 건 다 갖고 있는데, 굳이 티를 고르라면 옥에도 티가 있듯이 목소리가 좀 큼니다. 서로서로 volume을 줄여서 최고의 모임 만들어봅시다. <펄프농>과 <마담 몽테스팡>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사진

도 한 장 찍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계단 위에서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기에, 뒷배경이 보기 싫으니 계단 밑으로 내려와서 찍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계단 위가 훨씬 그림이 좋았는데 불란서 여인열전 얘기를 듣고 나니까 계단 아래쪽이 나는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또 루이14세는 뉘세를 싫어해서 왕궁 내에는 변소, 주방이 없었고 파리를 하다가 불이 있으면 정원의 나무에 나가 처리를 하게되다 보니 정원의 나무도 잘 자라고 성문화도 개관으로 문란하게된 역사라고 합니다. 또 루이16세 때 왕비 [마리아 앙투아네트]에 의해서 손수건(handkerchief)의 SIZE가 오늘날 우리가 쓰고있는 크기로 통일되었다고 하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III> 독일과 알프스 산맥

그 다음날 아침 THALYS라고 하는 기차로 BELGIUM의 수도 BRUSSEL로 갔지요. 아주 조용하고 빠른 기차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경부선급행열차는 불란서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 THALYS를 타고 가면서 한국 국회에서 일어났던 '기차GATE' 사건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서 쾰른(KOLN)으로 갔지요. 쾰른대성당, 큰 성당들은 너무 많이 보아서 영 헛갈립니다. 그러나 쾰른성당엔 동방박사유골이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는 기억하면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원래 이 유골은 ITALY MILAN에 있던 것을 훔쳐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코블렌스(KOBLENZ)로 가서 라인강유람선을 탔지요? RHINE강 양쪽으로 펼쳐지는 고성가도, 산 위의 성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성주중심의 통치권사회. 그런 성이 130여 개나 되고 강을 따라 양쪽으로 도로가 따라가는 고성가도, 펼쳐지는 풍경도 아름다웠지만 그 당시의 습격도 느끼고 뉘새도 말으면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긴 강에 다리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아름다운 풍치를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수 없다는 국민성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HEIDELBERG로 갔지요. 하이델베르크성에서 바라다본 내카강을 끼고 펼쳐진 하이델베르크 언덕의 풍경은 정말 한쪽의 그림이었습니다. 그곳을 배경으로 <황태자의 첫사랑>이 촬영되기도 했다니 영화감독들이 욕심을 낸만한 곳입니다. 난생처음으로, '왜 하나님은 그림그리는 재주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나'하고 원망도 해 보았지요. 정말 할 장 그리고 싶은

마음이 강물처럼 내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가도 거닐어 봤지요. CAMPUS식이 아니고, 주택가에 여가지기 끼어있는 대학들. 그 대학에서 노벨상이 8개나 나왔답니다. 역시 진리는 교수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대중 속에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2차대전 때 EISENHOWER가 이 도시 만큼은 폭격하지 말라고 해서 옛 모습이 그대로 보존 될 수 있었다는 얘기도 안내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몸이 불편해 보이는 한국의 할아버지를 한 분 보셨지요? 나도 무척 궁금했는데 우리 일행 중에 어떤 분이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금년에 칠순이시고, 자식들이 칠순잔치대신 마렌데드린 여행을 오셨답니다. STROKE를 맞으셨고 보행에 장애가 왔답니다.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고 성에서 내려오는 자갈길은 미끈미끈한 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내리막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한 손엔 지팡이를 짚으셨지만 아무탈 없이 내려오셨습니다. 내 옆에 따라다니던 우리 집사람도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발에 티눈이 박혔다, 별소리를 다 하다가도, 그 할아버지만 보면 조용해지곤 해서, 나는 속으로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습니다. 바로 비교만족이죠.

또 독일남부의 검은 숲에 위치한 TITISEE호수. 그리고 INTERLAKEN 산 속으로 산 속으로 버스가 기어 기어올라가 산중턱 비둘기집 같은 호텔 앞에 멎었습니다. 남자의 산이라 불리우는 EIGER산같은 두개의 거대한 산이 둘러져 있고 그 가운데 포근하게 자리잡은 산중 산장호텔. 그 날 저녁 흰 비단 같은 구름이 호텔하리를 감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그동안 수고하며 살아온 예수를 닮은 노란 괴부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 곳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무 고단해 세상모르게 仙女의 치맛폭판 덮고 꿈잠을 잤습니다. 곤히자는 잠을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분위기 있는 산장호텔에서의 하룻밤.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날 JUNGFRAU 등정을 했지요. ICE PALACE, TOP OF EUROPE(SPHINX VIEWPOINT)도 기억이 나시지요.

알프스는 인근 6개나라(SWISS-AUSTRIA-LIECHTENSTEIN-GERMANY-ITALY-FRANCE)의 지붕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제일 많이 찍은 곳으로 더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뉴욕노신사들의 머리는 백발인지 눈발인지 잘 분간은 안되지만, 우리가 살아온 어렵고 힘들었던 인생은 ALPS산 위에서 찬란한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막바로 AUSTRIA로 넘어 갑니다. 같은 ALPS 산줄거리에 있으니 SWISS와 똑같은데 산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SWISS의 산세는 남성적이고, AUSTRIA산세는 여성적이라고 합니다. AUSTRIA는 MARIA THERESA, EMPRESS (마리아 테레시아에 여왕)을 빼놓고는 얘기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AUSTRIA, 비엔나에서 태어난 마리아 테레시아는 AUSTRIA의 어머니입니다(외국의 지명이나 이름은 영어보다는 우리말로 표기하는 것이 훨씬 원

발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슬하에 1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인접국가의 왕족들과 결혼을 시켜서 세를 불렀고, 그 중에서 대표적 인물이 루이16세의 왕비가 된 마리아 앙투아네트(MARIE-ANTONETTE)입니다. INSBURCK에서는 마리아 테레시아 거리와 만나기때, 황금지붕, 궁정교회도 있었는데 밤에 비동사공간에 지나간 길에서 잘 기억이 안납니다.

<IV> 이태리와 地中海

다음날 우리는 이태리로 넘어가서 지중해의 깃발에 은도시, 물의도시 베네치아(VENICE)로 갔지요. 10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를 생각하시면 기억이 오래갈 겁니다). 170개의 운하가 있고 돌버스, 물탱크가 있는 도시. 소금장수로 시작한 'VENICE의 商人'이 생겨난 곳. 그날 저녁 부페식당에서 일어났던 물전쟁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무슨 얘긴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번데기 주름잡듯이 GREECE식당에서 TABLE NAPKIN을 공짜로 알고 새것으로 9장이나 바꿨다가 돈을 다 내고 나왔다는 구라파의 식당얘기 말입니다. 보기에 아름다운도시인데 점점 침수하고있고 언젠가는 바다로 가라앉을 거라고 합니다. 바다 밑물 때는 우리가 서있던 산 마르코 광장에 물이 넘쳐서 광장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상점들이 모두 피난을 가고 심할 때는 최고 1m 90cm까지 물이 올라왔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우리가 갔을 때도 광장 여기저기 웅덩이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MARCO POLO가 태어난 곳도 VENICE라고 합니다. 또 유리공장에도 갔었지요?

그다음 피렌체(FLORENCE)로 이동했습니다. RENAISSANCE가 시작된 곳으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DANTE가 모두 이 곳 출신이지요! 옛날 학교시절 단테(DANTE)에 심취한시절도 있었는데, 그 단테의 집도 보고, 또 단테가 베아트릭체와 사랑을 나누던 교회에도 들어가 보고 의자에도 앉아보니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여하튼 FLORENCE는 RENAISSANCE= RE-BORN, 神의 중심에서 人間의 중심으로의 인간의 부활, 그것만 알고있으면 역시 합격권에는 들어 갑니다. 꽃의 두오모 대성당도 보았고, 시노리아 광장, 바울이 군중집회로 선교를 하시던 선교의 광장도 건너질서서 걸어갔습니다. 로마로 갑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읽기가 힘드신다고요? 그럼 내 입장은 무어가 됩니까? 밤잠을 아니자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깨트리십시오. 천년역사의 로마.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뜻도 로마의 여기저기를 보면서 아! 그게 그런 얘기였구나 하셨을 겁니다. 로마가 인접국가를 점령하면서 식민지영토를 넓히게 최고40만 HECTAR나되고 (1 HECTAR = 1만 평방마터), 뺏은 점령지에서 물자와 부와 노예들을 거둬드리기 위해서 제일먼저 한 것이 도로를 닦는 일이었고 로마군들이 닦은 도로의 총 길이가 지구를 열바퀴나 도는 길이였다니,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22면에 계속>

<2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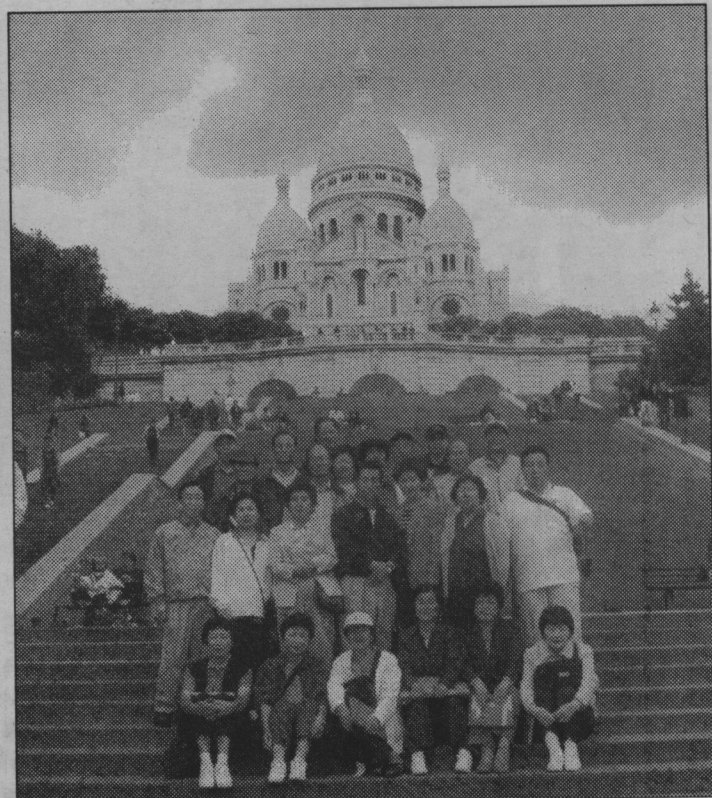
바로 이 도로가 로마제국의 거대한 재정을 뒷받치는 근원이 되기도 하구요. 그런데 또 하나 도로의 특징은 여하한일이 있어도 도로는 直線이 되어야하고 강이나 산이 있어도 돌아가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사방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모두 직선으로 건설이 되어있고 ROME시내를 흐르는 티베르강(TIBER)을 건너지르는 다리는 2000년 된 다리지만 아직도 그 다리들은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다고 있습니다. 최신 중장비를 동원하여 세워놓은 한강교가 10년도 못가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태리 사람들은 무어라고 그랬을까요? 축구는 이겼어도 내가 KOREAN이다 내세우기에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조상을 잘 둔 덕분에 관광수입만으로도 걱정없이 사는 나라(관광수입이 90%가 넘는다니), 조상을 잘못 둔 죄로 후손들이 수난을 당하는 대한민국 꼬레아, 조상이 대통령만 되면 후손들은 졸졸이 형무소로 가는 나라, 어떤때는 우리나라 역사책을 읽다가도 집어던지고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저것 많이 보았습니다만 일일이 다 쓸 수는 없고, 트레비(TREVI)분수에서 자기 소원의 동전도 던졌지요. <NEW 그랜저>를 소망하며 네 번 던지는 사람은 없었고 한번 던지는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한번은 로마에 다시 오게 해달라는 소망이라니 이태리는 관광수입이 점점 더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로마의 개선문은 B.C.315년에 지은 것인데 로마의 유물 중 가장 보존이 잘 된거라고 합니다. '이겼노라, 보았노라, 왔노라'의 CAESAR가 시인자를 정복하고 개선하던 문, 지금은 도시의 중심부로 근방에 시청, 법원, 은행 등의 건물들이 있는데 개선문에서 시청사까지의 개선문로는 2000년 전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었습니. 시내중심부의 금싸라기 땅인데, 옛것 그대로.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개발이다 뭐다하면서 고층빌딩들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인들은 토지에 대한 사상이 달랐습니다. 토지는 물려받는게 아니고 빌려쓰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려받으면 차가 입자가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빌린 것은 빌릴 때 상태로 놓아두고 가야하니가 2000년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게되는 사상이 로마인-이태리인 피속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이태리운전사 MASSIMO는 30명의 생명을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들을 돌리면서 경부고속도로와 똑같이 생긴 이태리남부의 고속도로를 달려 폼페이(pompeii)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달리는 버스안에서, 나는 대학시절 읽어야지, 읽어야지 미루다가 결국은 못읽고 졸음을 한 팔 어거스틴의 참회록도 안내원 김미란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한권 봤습니다. 어거스틴이 팔 어거스틴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아들 정 해오를 얘기가 나왔습니다. 3학년 짜리 아들이 점심시간에 점심먹기엔 앉지도 못하고 2시간동안 구석벽에 기대고 서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 왜 하나님은 강파를 만들었어? 하는 질문에 해오를의 엄마는 피가 개꾸로 흘렀고, 말을 잊지 못하는 김미란이라는 여인과 우리는 다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도 이인생에서 똑같이 지나온 내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은 거지요. 한참 있다가 해오를의 그 후의 일이 궁금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물어보았더니 얘기는 안하고 성명말씀으로 대신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일송달송한 말로 얼버무리고 말았지요?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14년 전에 뉴욕한성교회에서 집사의 안수가 내 머리 위에 얹혀졌고, 그 무렵 미주장로신학대학 2년을 다니다가 바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란 말씀에 걸려서 도중하차한 과거를 가지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모르고 삽니다. 이 말씀을 모른다고 하면, 안수집사가 그것도 모르고 옆에 있던 장로, 목사, 어떤때는 STONYBROOK의 대학교수까지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에 딱 걸려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나이롱 집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알송달송한 얘기로 해오를 엄마는 성 어거스틴의 생애를 결론 맺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해오를의 그 후의 일이 공연히 더 궁금해지는것 있지요?

그리는 동안 MASSIMO는 우리를 POMPEII앞에 내려놓았습니다. POMPEII는 기원후 79년 8월24일 옆에 있는 베스비우스(VESVIUS)산의 폭발로 재(ASH)와 화산력(LAPILL)이 검은 강을 이루어 하루 아침에 66 HECTOR나 되는 도시를 덮어, 잿더미 5 METER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도시는 영원히 잊혀졌습니다. 잿더미에 묻힌 도시는 그후 발굴가들에 의해 1900년대에 옛 도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는 전체의 4분의3정도가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본 ROME은 옛 로마의 형식이라면 우리가 오늘 보는 POMPEII는 옛 로마의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사람들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살았나하는 로마인의 습관, 손길 등, 생활의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단시간만에 보고 와서 글을 쓴다는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서 처음엔 이 POMPEII부분은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쓰다보니 POMPEII 얘기를 빼놓곤 이번 여행의 전체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간단히 몇 군데만 짚어 넘어가고 자세한 것은 <THE BOOK OF POMPEII 에 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원래 POMPEII는 바닷가의 도시로, 도시에서 바닷가까지가 불과 500 METER 밖에 안되던 곳이 화산재와 화산력(LAPILL)에 밀려 지금은 2 KM정도로 밀려나갔다고 합니다. 인구는 8천내지 만명 이었고 귀족, 거상 등 상류층의 로마의 자유인이 60%, 그 나머지 40%는 노예였습니다. NERO의 황금집보다 더 훌륭한 건축물들이 POMPEII에 수도 없이 세워졌고 NERO에게 간택된 여자도 POMPEII출신의 POPAI란 여자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회당, 여러 神廟도 보았습니다. TEMPLES OF VENUS, APOLLO신전, MUNICIPAL OFFICES, 출구는 BRONZE STATUE가 있는 귀족가문 소유주택인 파우니의 집(HOUSE OF THE FAUN), 싸우니, 공회, 목욕탕, 색깔있는 대리석으로 수놓아 그려진 벽화, 모자이크로 그려진 초상화, NARCISSUS, VENUS의 FRESCO기법의 그림 등을 볼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머리를 나도 모르게 좌우로 흔들고 다니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그만 좀 흔들어! 목 다쳐졌다고 하는 바람에 일행이 안보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MODESTO의 풍광장, 公館도 들어가 보았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나왔습니다만 벽에 그려진 48가지 體位도 훑어지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인간의 관심은 괜히 고상한척 하는 거지 다 똑같은것 같습니다. 화산분출 희생자들의 CAST도 있었지요. 대부분 입산부가 얹어져 누워있는 모습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외에 대형야외극장, 경기장, 부호들의 대형별장들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 거기는 보지 못하고



2002년 9월 8일 파리 성심성당 앞에서. 뒷줄 왼쪽부터 김태호, 서정웅, 김동진, 김동환, 고강희, 이성구, 김성현, 이응수, Mrs. 이응대, 이응대, Mrs. 고강희, Mrs. 손갑수, 이종대, 손갑수, 송재한, Mrs. 송재한, Mrs. 이종대, Mrs. 이응수, Mrs. 서정웅, Mrs. 김태호, Mrs. 김동진, Mrs. 김동환, Mrs. 이성구, Mrs. 김성현

POMPEII를 떠났습니다. 기원전2세기 ROMAN-ITALIC 상류층의 흉의 축적을 잠깐 엿보고 POMPEII를 떠나 CAPRI섬으로 향했습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CAPRI섬,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답다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섬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계의 아름다움, 인간의 언어의 한계!! 여기까지로구나하고,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LIFT(혼자 타는 CABLE CAR)를 타고 내려오는데 바로 밑에는 관광객들이 던져 주는 돈으로 하루를 사는 빈민촌도 있었고, 섬 중턱엔 비둘기 집처럼 지어진 대리석건물이 그림처럼 펼쳐져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라는 NAPOLI항도 보였습니다.

<V> 구라파 여행과 나의 삶

별안간, 작년에 교통사고로 다리하나를 잃고 말도 잃으시고 지금은 NURSING HOME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또 뉴욕의 가족들, 멀리 홀로 떨어져 사는 영국의 딸 생각도 납니다. 미국 여기저기에 있는 친구들,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에 이런 곳도 있다는 것을 함께 보고싶은 얼굴들입니다. 지나간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역을하고 쓸뎀 시절도 생각이 납니다. 실수를 한 일, 후회를 한일도 생각이 납니다. 13년 전 이북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상한 눈초리와, 사상을 의심받는 돌팔매질을 맞은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돌을 던지는 사람 중에 누구라 하면 다 아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목사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며定罪하던 사건을, 딱 딱듯이 강단에서 설교하던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울음이 복받쳤습니다. 한번 소리 내어 크게 울고 싶은 울음이었습니다. 정말한번 크게 소리내어 울고싶었는데.. 울고싶어도 한번 제대로 울어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체면 때문에, 가까이 사람 때문에, 애들에게 안보이려고. 그런데 지금 공중전차(lift)를 타고

허공을 내려오면서 울음이 터지고, 끝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앞뒤엔 사람이 멀리 떨어져있고 위아래 허공사이로, 나는 리프트에 봉봉떠서 내려오고 있어 그동안 차렸던 체면은 필요없게 되어서였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니, 그동안 쌓였던 모든 삶이 지중해 위에 섬 위로 하늘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마음은 그렇게 시원하고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리프트가 땅에 닿을 때 발길이 어떻게나 가벼웠는지 뛰어내리다가 넘어질 뻔 했습니다. 단12분간의 리프트였지만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난 몇 십년 동안의 발전이었습니

다. NAPOLI에서 기다리고있던 MASSIMO손에 우리를 다시 맡기고 버스는 로마를 향하여 달리고 있었습니다. 달리는 차 왼쪽 시시이로 로마의 해는 붉은 색으로 지고 있었고 차창 밖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루이 14세보다 연상의 여인으로 후에 왕비가 되는 <팽프농>의 '사랑이 뭐길래?'도 차창 밖으로 지나가고, RHINE강 양쪽으로 펼쳐지던 고성기도, HEIDELBERG 언덕의 한 쪽의 그림, EIGER III으로 둘러싸인 INTERLAKEN 산장 HOTEL에서의 하룻밤, ALPS산에서 은색으로 빛났던 여러분의 모습, ANTE의 집, 베아트릭체와의 사랑이 싹터던 교회도 생각이 납니다. TREVI 분수에서 동전 던지던 일, 로마군이 개선하던 개선문, 그 옆의 금싸라기 땅은 잠초가 무성히 자랐는데도 2000년 동안 그대로 놓아두면서 마음을 옛날 로마로 향하고 있는 이태리인들. 또 해오를의 얘기로 함께 눈물을 흘렸던 일도 차창 밖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노현경의 ALPS산에서 '저놈이 나팔래온이 아닌가봐', 이태리 인사말 '부오나 네 띠포 와 김철수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야 할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고 아버지의 틀리만 돌아왔다'는 등의 얘기로 우리의 잠을 깨우곤 했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또 이태리인은 손동작을 하지 않고서는 말을 못해서 수갑을 채웠다가 풀어 놓았을 때의 상황으로 이태리사람들의 인상을 오래 남겨 해주었

습니다.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서로서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 나이에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한사람도 나오자 없이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어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날 그날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즐겁고 의미있게 열매를 맺어주신 TOUR GENERAL MANAGER 노현경씨에게 감사드리구요, 또 우리를 태우고 ALPS를 넘어 ITALY남부 멀리 NAPOLI까지 갔다가 로마로 입성시킨 잠장 1300마일의 거리를 (참고로 NEW YORK에서 SANFRANCISCO까지의 미국횡단이 3000마일 거리입니다) 안전 운행하신 MASSIMO에게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주시고, 식사, 호텔, 항공편 등 구석구석까지 신경을 써주신 WALKER HILL 여행사의 김미란 사장(로마의 안내자와 同名異人) CHRISTINE에게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식사 때마다 음료수를 해결해주신 이용대씨, 김태호씨, 손갑수씨, 서정웅씨, 이종대씨, 송재한씨, 무명으로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도 계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또 마침 여행 중에 생일을 당하여 케익까지 먹을수 있게 만들어주신 이성구씨에게도 감사드리구요. 그 외에 음료수를 대접해줬다고 자진해서 신청하신 분도 계셨는데 기회가 없어서 성의를 못받아 들인 것 미안하게 생각하며 마음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또 누가 병남과봐 항상 상비약 가방을 들고 다니며 그때 그때 아픈 곳을 해결해 주시던 이응수 '보사부장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계속 공급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시던 '물 오빠' 김동환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행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 여행사 사장이었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 해주었던 이병철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 원손이 하는 일을 비른손이 모르게, 뒤에서 묵묵히 일한 손길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여러분의 협조 때문에 이번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감사 위에 제일 감사해야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ALPS산 정상에 올라있을 때 주시던 찬란한 햇빛, 햇빛이 얼마나 따듯했던지 눈덮인 산 위에서 땀이 다 나올 정도였습니다. 비바람이 쳤던 기차는 아예 처음부터 올라가지도 못했을 거고 바깥에 나가 사진은 무슨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눈보라에 휘말려 조난을 당하게요. 또 CAPRI섬에 올라갈 때 청명하고 바람 한 점 없던 날씨, 만약 비가 왔으면 CABLE-CAR인 LIFT는 운행도 못했을 거고 바람이 불었으면 타지도 못했을 겁니다. 바람부는 날 잘못 타고 내려오다, 지중해위로 날아가게요. 그러지 않아도 어떤 분은 내려오다 독일에서 산 모자가 날아갔다고 뉴욕에 돌아와서도 끝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이 계셨는데.. 또 POMPEII에서의 2시간은 광막한 야외의 걸음이었는데 비라도 왔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울약대라는 이름의 구라파여행'의 막은 서서히 내려지고 있습니다. 감독에 노현경, 진행에 MASSIMO, 해설에 김시보, 김도협, 김미란, 그리고 CAST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의 손은 올려졌고, 막은 내려갔습니다. 막이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있지요?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특별기고

서울대는 지금 개혁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

柳根培(77년 社會大卒)모교 기획실장·지리학과 교수



대학은 수백 년을 이어오는 얼마 되지 않는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어느 체제를 막론하고 그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와 호흡하면서,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는 오늘날, 대학이라는 유기체는 안팎으로 밀려드는 압력으로 숨가쁘다. 서울대도 학내외에서 가해지는 변화의 압력에 대해 사안에 따라서는 전통을 지키기에 노력하고, 때로는 민감하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변화 자체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변화를 수용하는 대학의 체질강화가 더 필요하다. 지난 7월 鄭雲燦총장의 취임 이래 대학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지식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인 목표 아래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조용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글쓰기 훈련강화,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증진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노력은 다음 기회로 돌리고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한 개선노력과 현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우선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제도화하여 정착시키는 일이다. 현재 대의기구라 할 수 있는 평의회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고등교육법과 서울대학교 설치령, 서울대 학칙에서 비롯되는 외적 제한이 뚜렷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실천하려는 학내 구성원의 의지가 빈약했던 것도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다.

현재 대학 교수회의와 학장회의가 실제로 학내에서 중요한 대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수회의가 각 대학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있고, 학장회의의 구성원도 각 대학의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전체의 목표와 운영방향을 위해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평의회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대의기구는 소극적으로는 총장이나 학내의 힘있는 집단의 독주를 막는 등의 견제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내의 의지를 집결하여 지식의 권위를 회복하고 서울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학 운영체제와 함께 총장과 학(원)장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들로 연구팀이 조직됐고, 몇 가지 안이 도출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대의기구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학내외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총학(원)장 선거제도의 개선도 총장의 공약사항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의 혼합 등 다양한 안을 세워 놓고 연구중이다.

학장회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달에 조직된 운영소위원회는 5명의 학(원)장들로 구성돼 있고, 사안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이 참여한다. 서울대 전체의 발전방향과 효율화를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개발하는 등 학장회의에 쌍방향의 의사소통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대학의 민주화는 결국 자율성 확보로 귀결되는데, 대학의 자율성은 입시제도에서 그 정도가 잘 드러난다. 현재 지필고

사나 과거의 본고사를 불허하는 등 대학 입시의 자율성은 심하게 제약받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지망하는 서울대로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변별력을 갖는 전형

대의기구 강화와

선거제 개선 통해

대학의 민주화

정착시킬 것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여 어떻게 가르쳐서 이 사회의 지도자로 육성할 것인가는 대학이 고민해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서울대에는 전국의 수재들이 입학해오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계발된다. 하나에 똑같은 하나를 더하면 둘이지만, 서로 다른 두 개를 더할 때 나오는 답은 둘 이상이다. 이른바 창발성의 발현이다.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National은 국립대학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전국을 망라하는 각 지역의 수재들이 모여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어느 지역 출신의 소위 전문직종 자제들이 주를 이루고, 다양한 지역에서 합격생을 내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재들의 집단이라는 전통적인 「서울대생」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소위 지역할당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주와 서울대 동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많은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결코 적지 않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연구팀이 구성되어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학내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십여 년 전 서울대의 연구능력이 세계적으로 8백등 또는 수백 번째에 불과하다는 등 그 위상이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진 적이 있었다. 그러한 글을 썼던 분이 충격을 주어야 열악한 서울대의 물적·인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노라고 해명은 했지만, 그 잘못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파고들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학을 무슨 잣대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몇몇 지표를 참조한다면 서울대는 세계 일류대학으로 힘차게 내딛고 있다.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순위를 보면 1998년 세계 94위에서 2001년에 40위로 도약했고, 올해 30위권으로 진입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물론 연구성과를 가리키는 지표로서의 SCI를 어떻게 보느냐에는 논란이 있지만, 서울대에 주어진 자원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연구의 질적 성장, 내연적 확장으로 관심을 돌릴 때가 되었다. 서울대의 교수진 한사람 한사람을 살펴보면 매우 우수하다. 특히 몇몇 학과나 학부의 교수진은 세계 유수의 대학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대에서 강의되는 지식은 양에서나 질에서 훌륭하다. 그러나 열악한 도서관과 실험실의 사정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도서관 환경을 보면 서울대의 장서수는 2백만권으로 동경대의 7백만권, 하버드의 1천4백만권에 크게 처져 있고, 서울대 도서관 자료구입예산은 3백80만 달러(약 46억원)로 동경대의 3분의 1, 하버드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고에서 조달되는 도서관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인문계 분야의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이러한 현실,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점차 정교화됨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이공계 실험실의 기자재 형편은 어떠하겠는가? 기술적 지식의 전수는 교수들의 노력으로 보완되지만, 도서관과 실험실의 내실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은 성장되기 어렵다.

지난 10월 BK21 연구사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중간평가에서 서울대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 2개의 사업단이 탈락되고, 몇 개의 사업단은 연구비

강남순환도로 및 나들목의 건설은 교육환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가 크게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연구사업단의 예산이 급년 초까지 소급되어 20%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BK21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각 사업단의 연구성과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전체의 구조조정, 즉 입학생의 모집단위를 최초의 약속대로 광역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대가 평가에서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았고, 대학에 주어지던 교육개혁지원비가 반액이나 삭감되었다. 이 낮은 점수가 다시 각각의 연구사업단 평가에 전이되어 훌륭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단은 낮게 평가되고 말았다. 이중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 사업단 각각의 연구업적은 훌륭하지만, 대학 전체의 구조조정이 미진하여 사업단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

러나 평가원칙과 절차의 적용에서 일관성을 결여하는 등의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노정시켰다.

서울시는 서울대 정문 앞 50미터 지점에 6차선 고속고가도로와 나들목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라고 명명된 이 도로는 서울대 후문의 낙성대를 지나면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에 들어있는 부속 중·고등학교 부지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 정문 앞에는 장기적 발전을 염두에 두고 두산그룹으로부터 구입한 토지에 나들목이 들어서고, 이 구간의 건설은 두산그룹 등이 결성한 민간 컨소시엄이 맡게 되어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을 예로 들면서 고가도로를 구시대의 유물로 평가하고, 이 도로건설 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가 이 도로의 건설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이 도로의 교통효과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의뢰한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L자형으로 굽어있는 노선의 위치가 동서교통의 원활에 적합하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관악산 남쪽의 과천을 지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고속도로와 그 기능이 중복되어 있다. 서울대 정문 앞의 나들목은 외부의 교통량을 유인해 이미 정도를 넘어선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소음과 매연 등은 교육과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고, 정문 앞의 고가도로로 말미암아 경관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대는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설계되었던 당초의 계획노선을 택하거나, 지하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토지수용비가 많이 든 다거나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대안을 의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문제를 한국 대학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범대학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모교를 위해서 동문들께서 지혜를 빌려주고 있다.

서울대는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본연의 자리에서 멀리 벗어났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을치고 있다. 바로 지식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서울대의 의견이 존중되고, 서울대의 구성원이 내는 목소리를 사회가 경청하는 그 자리를 다시 찾으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서울대가 추구하는 개혁의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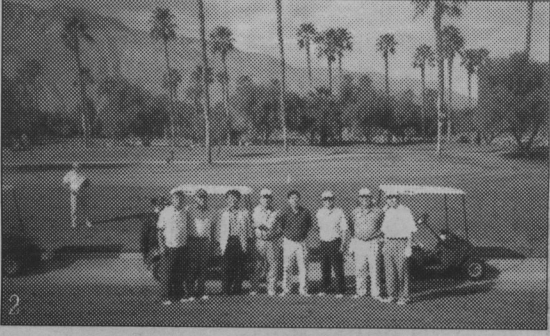
남가주 소식

총동창회 신년 理事會 공고
 2003년 1월 18일 (토) 오후 6시 30분
 장소 : J. J. Grand Hotel
 620 S. Harvard Blvd. LA, CA 90005
 (전화) 213-383-3000

**총동창회 신년 定期總會 및
 신·구회장 이취임식**
 2003년 2월 15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남가주 총동창회
 Website 전문직 상담자 추천 요망**
 Website 사용 가능하신 분으로 각 단과대학
 전문별로 두 분씩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남가주 동창회 사무국 백옥자 사업국장 213-999-5911

<사진설명>
 1. 임낙균회장 위로 동문 친목 골프 대회에 출
 전하는 용사들
 2. Mosquito Golf Club에서 왼쪽부터 김건진
 (문리대), 이명상(문리대), 오홍조(치대),
 지중근(농대), 임낙균(약대), 조성상(상
 대?), (火星人)?, 방석훈(농대)



**올 1년동안 남가주 총동창회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많은 동문
 들께 감사드립니다.**

- *理事會費(상임이사, 선임이사, 각 단과대
 학회장) 납부자
- ◆회장(5000불)-임낙균(약 64)
 - ◆수석부회장(1000불)-곽철(법 64)
 - ◆부회장(300불)-이준배(사60) 권봉성(문 54) 지인수(상59) 이주영(대60) 김정호(농 59) 이창신(법57) 김광철(음59) 한종철(치 62) 이명일(약72) 원광웅(공 60) 이봉수(수 66) 최윤복(간68) 김해인(가69) 임번(의61)
 - ◆상임이사(100불)-이기준(법54) 정원훈(상38) 차중환(사 54) 권길상(음 45) 오형원(의53) 박상길(농 58) 임종문(약52) 손수웅(수 60) 신보남(미 59) 장동호(공 53) 권혁창(법57) 이병준(상55) 전희택(의60) 이명상(문59) 방석훈(농55) 오홍조(치 56) 서영석(의 55) 이정광(상61)
 - ◆선임이사(100불)-최현숙(가73) 강정자(간 61) 김경숙(간 68) 나정자(간 70) 김동근(공59) 한흥택(공60) 김원탁(공65) 김선홍(공65) 노명호(공 61) 한영교(농58) 강세진(농61) 김홍목(문60) 김귀섭(문60) 김상찬(문65) 김창신(문75) 한태호(문75) 김원배(미61) 김다예(미73) 김생철(법54) 윤경민(법55) 김영덕(법58) 이복환(법61) 김영봉(사60) 강신용(사73) 김남철(사55) 이명선(상58) 김은중(상59) 심재강(상59) 황윤석(상66) 임준택(상68) 임중국(상70) 박중수(수58) 김영(수63) 박재인(약60) 최무식(약 66) 허영훈(약64) 심화섭(약61) 김진호(약 64) 김동석(음64) 김옥자(음66) 이현남(의 68) 윤병인(의68) 임남진(의65) 한동수(의 65) 노규상(의66) 전영균(의65) 조동준(의 64) 조한원(의63) 김경옥(의62) 손영진(의

- 62) 이용표(의64) 이근섭(치54) 윤한돈(치 72) 김경순(대 64) 최종혁(대70)
- ◆단과대학 동창회장(100불)-윤순재(가 60) 김수향(간 69) 정환(공64) 지중근(농56) 김건진(문62) 김옥경(미59) 유선희(미76) 이태로(법57) 주영세(사59) 심상은(상54) 문홍식(수65) 김정선(약65) 임선영(음53) 강명식(의65) 이수남(치63) 최추봉(대)
- *봄, 가을 골프대회 광고협찬비
- ◆600불-육중훈(상, 한미은행) 김선홍(공, 중앙은행) 심상은(상, medical Aid Supply House)
- ◆300불-벤처은행(문, 나라은행) 현윤석(법, P.U Bank) 이병준(상, Busan Pipe) 권중규(치, Beverly Dental) 이태로(법, 북정동순두부) 손수웅(수, South Hills Animal Hospital) 정환(공, Cal State University Fullerton 교수) Charles Rim (CPA) 김규정&윤희원CPA, 강신용(사, CPA)
- ◆200불-김광철(음, 세계보석) 이장길치과, 김종표(법, S.Y. Spipping Co) 김동근((공, Inertial Science, Inc) 김재영(농, CPA) 최무식(약, Gilbert Pharmacy) 김원탁(공, Panarex Electronics) 김영(수, Roswinn Pet Hospital) 신혜원변호사(사) 이기준(법, Silla America Inc) 노명호(공, Lee & Ro Inc) 서동영(사, A.P.W.) 이승우(농, Health Mate Sauna) 정만영(약) 양민(공, Dr. 양 교육센터)
- ◆100불-김진호(약, Ks Pharmacy) 한중철치과, 이병희(수, menifee Valley Animal Hospital) 이봉수한방병원, 이수남치과, 최추봉(대, 남가주 한국여비어, 기독교장교회(O.C.U.)
- *Website 기금 출연자
- ◆1000불-오홍조(치) 고 김영기(공) 사모

癸未年 새해를 맞이하며

동문여러분, 12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의 직분으로 일해온 이 한 해가 주옥같이 값진 가장 보람된 해 이었나 봅니다.

행사 하나 하나마다 동문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됐지만 혹시 부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은 서울대 Website(www. snua. net) 개설로 인해 남가주 동창회가 구체화 된 것과 앞으로 마음을 연결해 주는 끈끈한 역할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2003년 2월 15일(토)은 레디슨 호텔에서 서울대학교 정기총회 및 객 철 신입회장님과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또한 전 미주 총동창회가 남가주로 이전되어 오홍조 회장을 선두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도약의 해로 신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손의 손을 잡고 연결되는 정으로 하나가 되어 모교를 위한 서울대인으로 자랑스럽게 신년을 행복하게 맞이하는 기쁨모임의 장으로 만들면서 새해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 보내온 2003년도 수첩을 동봉하오니 새해에도 다독하시고 평강과 모든 사업의 번영과 항상 축복이 임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장 임 낙 균
 총무국장 김 지 영
 재무국장 성 주 경
 사업국장 백 옥 자 올림

워싱턴 DC 同門 동정

문성길 동문 한미장학재단에 1만5천달러 출연

◇ 문 성 길 (의학, 63) 동문은 지난 11월 중순 경 어머니님 별세 40주기를 맞아서 어머니를 기리는 의미에서 한미장학재단(KASF)에 영구장학금 5천달러를 기증하였다. 이 장학금은 문 동문 어머니의 이름으로 2003년부터 매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한 명에게 전액씩 수여하게 된다.

◇ 박윤수(물리, 48) 동문이 지난 9월에 미시간 대학에서 사회봉사상을, 그리고 12월 1일에는 재미

한국계 시민연합(LOKA-USA) 만찬에서 커뮤니티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박동문은 교통사고로 오른 발을 다쳐 대수술을 하고 앞으로 2-3개월간 캐스트와 브레이스를 해야한다고 한다.

◇오인환(천문, 63) 동문은 지난 9월 27일 한미장학재단(KASF) 동부지역 회장으로서, 2002년도 장학금 시상식과 만찬을 통해 84명에게 7만 9천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워싱턴 인근 지역에서 240여명이 만찬에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동창회에서는 매년 천달러 장학금으로 기증하는데 금년에는 이영목 회장이 참석하여 함께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오기창, 조봉완 동문 주미 한국대사관사 발간

오기창 박사(법대, 50)와 조봉완 박사(법대, 53) 공저의 "駐美 韓國大使館史"가 한림사(서울과 New Jersey)에서 발간될 예정이다. 오박사와 조박사가 각각 대학원생과 학부생일 때 언젠가는 함께 책을 쓰자고 한 약속이, 이제 45년간 정치학계와 역사학계에서 활동해 오다가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조박사는 "Korea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1945-1948" (New York, Praeger)를 편집하였고, 워싱턴 정신대 문제 협회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오박사는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산하의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의 유일한 한국계 이사로 활약 중이다.

하트랜드 소식

모교 음대 순회 연주단 순회공연 성황리 개최 캔사스시 2002년 8월 17일을 서울대 동창회 날로 선포 공연실황 녹화 비디오 및 CD 제작

하트랜드 지역동창회(회장 李相文)는 지난 8월 17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여 동안 University of Missouri at Kansas City의 The Conservatory of Music의 연주장인 Performing Arts Center(White Hall)에서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母校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재정지원하여 주관한 미주순회 연주단(단장 金洞培 교수 및 10명의 단원과 주

무 權淇씨)의 제 2차 공연을 320여명의 동문과 지역내의 음악애호가들이 청중으로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화보 사진 17장참조) 하트랜드 지역동창회는 청중들의 절찬을 받은 이번 공연을 보존하기 위하여 현장 실황 공연을 녹화 비디오와 음악 CD로 제작하였다. 이번의 성공적인 공연으로母校의 음악교육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미주 사회에 발휘하

이상문동문 태국서 명예박사학위 수여

하트랜드지부 회장인 李相文 박사(상 57)는 11월 22일 태국을 방문하여 Bangkok University로부터 同校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수여한 경영학 명예박사학위(Honorary Doctorate in Business)를 받았다.

여 동문들에게母校의 긍지를 드높인 연주단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휘근(4학년, 대금), 조환희(음대졸, 오브에), 박선영(4학년, 피아노), 문주원(음대졸, 첼로), 송윤신(3학년, 바이올린), 김윤경(대학원, 피아노), 김형석(3학년, 가야금), 손지혜(4학년, 소프라노), 정호윤(음대졸, 테너), 이자람(대학원, 판소리)

<사진>①연주단 일행이 시카고에서 Kansas City에 도착하여 Royal-China 한국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광경 ②Marriott Hotel에서 김형배 단장과 동문들 기념촬영 ③서울대음대 순회연주회 팸플릿 표지 ④Kansas City 상록회에서 이자람 동문에게 꽃다발 증정 ⑤Kansas City 한국학교 학부모 회장이 남성 연주단을 대표하여 정호윤 동문에게 꽃다발을 증정 ⑥하트랜드 동창회에서 여성 연주단을 대표하여 손지혜 동문에게 꽃다발 증정 ⑦Kansas City 한인회에서 김형배 단장에게 꽃다발 증정 ⑧Kansas City 시장을 대신하여 시의원 Troy Nash 가 Heartland 서울대 동창회 날을 선포하고 기념촬영. (오른쪽부터 이상문 회장, 시의원 Troy Nash, 김호원 이사장, 김형배 단장) ⑨Kansas시의 선포문 원본 ⑩공연 후 단원들과 하트랜드 동문들이 함께 촬영 ⑪공연 후 만찬회를 가졌던 김호원(치대 56졸) 동문 집에서 Kansas City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선물로 받고 기념촬영. ⑫ 순회공연단 주무 권기씨가 김호원 동문에게 성공적인 연주회 준비에 감사 선물을 전달.

모교 音大 연주단 Kansas 공연을 마치고 金好元 (치대 56년졸, 하트랜드 동창회 이사장)

미주 총동창회로부터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드디어 母校 음대 순회연주단이 드디어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는 소식이 우리 하트랜드 모든 동창들은 기쁨과 함께 모교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움과 초조한 마음이 마음 한 구석에 없지 않았다. 이 점은 의례 그러하듯 이번에도 모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정치적인 名士들의 경우나 이틀있는 藝術團처럼 大都市를 중심으로 방문 또는 공연계획을 짜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였다. 그리고보니 이번 모교의 순회음악공연도 예외없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공연 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그러나 재미총동창회의 특별한 배려로 中小都市인 미국의 "Heartland" Kansas City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또 다른 걱정은 혹시나 이 공연단의 연주가 성공적인 공연이 되고 강행군을 하는 이 연주단의 후배 음악도들을 어떻게 공연기간 중 불려없이 영접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및 특히 어느 정도의 청중들이 올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실제로 지난 6월 15일 시카고에서 있었던 재미총동창회 제 11차 정기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비로서 공연계획이 확정된 것을 알고 난 뒤, 8월 17일(토) 공연날짜까지의 시간이 촉박하여 별로 이를 광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이다. 그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우수한 연주장의 확보문제였다. 이용 가능한 아주 좋은 音樂殿堂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배망으로 알아본 결과 마침 본인이 14년간 재직하여 교수를 지냈던 University of Missouri, Conservatory of Music at Kansas City의 Music Hall (White Hall)을 확보할 수 있게 되자 비로서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다. 공연 일을 앞두고 많은 관중을 동원하기 위해 이곳 Heartland 동창회에서는 짧은 시간이나마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당일 청중이 약 320 여명이 되고, 이중 55%는 미국인들이 공연장을 꽂차게 하였다. 이 미국인들 중에는 한국인 入養者협회, 韓國參戰勇士會, International Relations Council 회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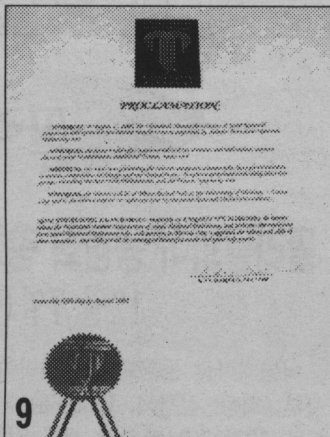
이 날 공연은 정말로 성공적이었다. 비록 재학중에 있는 학생 음악도였지만 그들의 연마한 기량으로 연주한 우리 전통 국악과 서

양과 동양의 가곡으로 편성된 연주순서는 관중들에게 "신선한 和音의 충격"(뉴욕 박상원 동문)을 주었고 격조높은 음악을 동문들과 미국인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준 기회였다. 공연이 끝난 후 물론 며칠 후에 들리는 청중들의 소감에 의하면 "과연 서울大學校이군" 하는 평가가 드높이 들렸고 내년에도 다시 또 방문공연이 기대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송을 하였다. 미국인이나 동포들은 모두가 우리 後輩 음악도들의 技倆은 직업적인 전문 음악가들에 조금도 못지 않는 좋은 공연이었다고 하여 우리 서울대 同門들의 긍지와 자존심이 하늘을 치솟는 듯 하였다. 참석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共感이 갖지 못할 일이다.

공연이 끝난 후 연주단원들과 청중들이 함께 하는 성대한 歡迎宴이 있었다. 또한 이번 공연을 통하여 뜻깊었던 것은 Kansas City의 市長 Kay Barnes가 공연 중간에 市議員인 Troy Nash를 통해 8월 18일 공연일을 "하트랜드 서울대학교 동창회 날"로 선포한 것이었다. 이 공연은 하트랜드 동창회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한 목적을 겸하였다. 공연 후 연주단원과 동문들은 본인의 집에서 한밤에 만찬을 하였으며 동문 선�후배간에 친목을 두텁게 하였다. 이 날 인주인 박정자 여사(Mrs. 김호원)는 준비한 Kansas City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연주단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이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는 공연장 및 청중 확보와 연주단의 영접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하트랜드 동문들의 크고 작은 수고에 힘입은 바 크므로 여기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상문 회장부부, 이교락, 오계숙 동문부부(화환 증정), 김계윤(의대) 동문부부, 이재명(의대) 동문부부, 배규태(상대) 동문, 배규영(사대), 오명순 동문부부, 구명순 동문, 이치현(약대) 동문부부, 함완균(공대) 동문, 이준기 동문, 장명우(치대) 동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의 훌륭한 공연내용은 UMKC의 Audio Technician이 녹화 비디오 및 CD로 제작하여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역시 같이서는 이 테이프와 CD를 이번 모교음대 연주단의 공연을 놓친 미주의 모든 동문들과 나누어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다(2002년 12월 20일).



시카고 소식

정기총회 110명의 동문참석으로 성황 장학생 5명 시상 22대 회장에 張基南 (문리대 62년입) 동문

시카고 지역 동창회는 다사다망 하였던 2002년도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정기 총회 및 송년회를 11월 30일 오후 6시에 Radisson Hotel-Lincolnwood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약 110명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회장 황치용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시카고 지역 대학원에 자매를 진학시키고 있는 학부모인 조시호 동문(문리대 63년졸, 전 텍사스 동창회장) 가족이 참석하여 시카고 동문들과 친교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李起春 (약대 45년졸) 동문의 축배로 즐거운 만찬이 있었고 8시 30분에 우렁찬 교가제창으로 총회는 시작되었다.

한재은 회장의 지난 1년간의 동문들의 협조에 감사하는 인사에 이어 이용락 재미총동창회장으로부터 시카고 지역동창회의 발전을 축하하며 지난 2년간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시카고 동문들과 지역동창회에 감사하는 인사가 있던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모든 보고서와 안건은 임원들의 치밀한 업무수행과 준비로 참석 동문들로부터 만장일치로 가결 및 채택되었다.

- ▶사업보고 - 이승자 총무
- ▶재무보고 - 김 영 재무(이승자 총무가 보고)
- ▶장학금 보유 현황 보고 - 박종희 관리위원장
- ▶감사보고 - 전현일, 이수인
- ▶장학생 선발보고/장학금 수여 - 한재은 장학위원장
- ▶차차기 회장(차기 수석부회장) 전현일 동문 - 한재은 회장의 이사회의 선출결과 보고와 인준
- ▶차기 부회장(2003년, 최희

수, 강영국) - 장기남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의 이사회의 선출결과 보고와 인준

▶차기 감사(2003년, 이철주, 한의일) - 장기남 수석부회장의 이사회의 선출결과 보고와 인준

▶조대현 20대 회장에게 감사장 증정 - 한재은 21대 회장

▶22대 회장(2003년도) 인사 - 장기남 신임회장

▶특별 피아노 연주 - 양범모 (Wheaton College, Music) 장학생

약 9시 30분경에 총회가 끝나고 제 2부 무도와 여흥 순서로 들어가 참석 동문들은 흥겹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카고 지역동창회가 격년제로 발간하는 시카고 동창회보인 冠岳 14호 (2002년 11월 발행, 28면)가 배포되었으며 이 발간을 위하여 陸吉元(사대 63년졸), 李勝子(사대 64년졸) 동문이 수고하였다. 이 관약지에는 2002년도의 시카고 지역동창회의 주요 행사일지와 임원 및 이사명단, 회계보고, 사업보고, 이사회비 출연자(68명) 명단과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쓴 허원무(문리대 사회학과졸, 웨스턴 일리노이대 교수) 동문의 글 "새 이민후세와 새로운 민족성", 육길원 동문의 "100년의 삶, 100년의 꿈" 이란 글과 동창회 1년을 기록하는 畫報를 수록하고 있다. 이번에 관약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추가로 필요한 동문들은 한재은 회장(전화 847-428-4929)에게 연락하면 무송이 가능하다.

- ◇장학생 김세영<미국 육군사관학교, International Diplomacy>
- ◇강석민<시카고대학, 심리학>
- ◇고대웅<시카고대학, 컴퓨터>
- ◇양범모<위튼 칼리지, 음악>
- ◇이선영<시카고대학, 공공정책학>

사진 ①인사말을 하는 한재은 회장 ②송년총회를 사회하는 황치용 부회장 ③축사를 하는 이용락 재미총동창회장 ④ 한재은 회장이 전임 20대 조대현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⑤한재은 현회장과 장기남 신임 회장이 장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 ⑥인사말을 하는 장기남 차기 회장 ⑦내년도 시카고 지역동창회를 이끌 기수들(이철주 감사, 최희수 부회장, 장기남 회장과 강영국 부회장) ⑧"萬年財務"의 功德을 쌓아 차차기 회장에 선출된 전현일 동문 ⑨지난 1년간 수고하신 Mrs. 한재은 회장, Mrs. 황치용 부회장, 이승자 총무, 육길원 편집간사 ⑩좌로부터 김정주, 육길원, 구경희, (?), (?), 선지자 서승환 동문 ⑪총회에 온 동문들 ⑫만찬장에서의 동문들 ⑬동창회에 오신 사모님들 ⑭회기애애한 분위기의 총회장



11월 30일
오후 6시
Radisson
Hotel



모교소식

기술이전 전담 특허법인 설립

「산학협력단」 내년 1월 출범

朴鍾根연구처장은 지난 11월 18일 교수들이 개발한 기술 등의 지적재산권을 소유, 관리하기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특허법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내년 1월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공립대 교수가 획득한 특허를 국가가 아닌 학교측이 갖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이전촉진법」이 개정된 이후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and Transfer Office)이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교는 지난 9월 공대 재료공학부 洪國善교수를 단장으로 「서울대 지적소유권 전담법인 설립 추진 실무단」을 구성했다. 이어 「기술이전 전담조직 재단

법인 서울대 산학협력단 설립안」을 마련했고 지난 11월 14일 학장회의에서 확정됐다.

洪단장은 모교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T.L.T.O.는 기술 공급자인 대학과 수요자인 기업 간의 유통망을 형성해 줄 것이며, 사실상 음성적으로 이뤄진 교수의 연구업적에 대한 기업의 보상을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로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었던 모교는 이로써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사업을 통해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학협력단은 鄭雲燦총장이 이사장을 맡게 되고 사무운영, 기술사업, 창업지원 등 3개 본부로 구성된다. 특허출원 및 업

체와의 기술이전 계약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물론 특허 관련 비용도 지원해줄 예정이다.

기술이전으로 얻는 수익은 액수에 따라 연구자에게 일정비율로 배분된다. 5년 안에 산학협력단이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도록 매년 발전기금에서 5억원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T.L.T.O.가 구성된 MIT·스탠포드대는 1996년 각각 1천10만달러, 4천3백80만달러의 수익을 얻었고,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해 와세다대 기술이전조직, 게이오대 지적자산센터 등 지난해 23개로 증가했다. 중징대는 연구결과를 기업체에 전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업화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국·공립대 교수들이 창출한 기술이 특허권을 획득했을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발명은 국가가 소유한다」는 특허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특허청에서 관리했다.

올해의 「훌륭한 공대교수상」

文相翕·李商郁·洪國善교수

공과대학(학장 韓民九)은 지난 10월 30일 모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올해의 「훌륭한 공대교수상」 시상식을 열고 응용화학부 文相翕교수와 전기·컴퓨터공학부 李商郁교수, 재료공학부 洪國善교수에게 시상했다.

1968년 모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文교수는 산업계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주관, 교육상 수상자로 뽑혔다. 1973년 모교 전기공학과를 졸업, 통신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李교수는 영상의 영역화를 위한 효율적인 기법을 개발해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洪교수는 1980년 요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유전체 세라믹 조성물 개발로 국내외

특허를 획득, 기술상 수상자가 됐다.

한편 공대는 지난 10월 29일 기계항공공학부 李長茂·劉丁烈교수가 미국기계학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펠로우(Fellow)」로 각각 추대됐다고 밝혔다.

진동학 분야의 탁월한 업적으로 종신명예직인 펠로우로 추대된 李長茂교수는 1967년 모교 기계공학과를 졸업, 공과대학 학장,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1969년 모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劉丁烈교수는 유체공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연구성과를 냈으며, 현재 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대입 지역할당제

2005학년도 입시부터 실시

모교는 지난 11월 12일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5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 정원의 10~20%인 4백~8백명 정도를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鄭雲燦총장이 교육불평등 구조의 완화 등을 위해 도입의사를 밝힌 지역할당제의 실시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이다.

구체적인 전형방법으로는 「1백여 명을 선발하는 농어촌자녀 특별전형 대상 확대」, 「지역할당제 대상 수험생에게 가산점 부여」, 「기존의 입시체제인 수시모집 또는 정시모집에 지역할당제 도입」 등 10여 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모교 관계자는 「지난 3월 입학 1학년 재학생 가운데 서울성동구와 중구, 경북 봉화군,

전남 무안군 등 전국 70여 개 시·군·구에서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원자격을 확대해 국립대로서 공적인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모교는 12월 1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안을 확정된 뒤,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모교는 각 부처논의와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입시관리 개선팀을 가동해 왔다.

국어교육과

첫 외국인교수 채용

사범대학 국어교육과(학과장 尹汝卓)는 지난 11월 5일 미국 선교사 출신인 크레이그 메릴(Craig Merrill·43·사진)씨를 1년 임기의 초빙교수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모교가 외국인 교수를 채용한 사례는 많지만 우리말을 가르치는 국어교육과에서 외국인 교수를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릴교수는 모교 국어교육과·국어국문학과 대학원과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학을 배우는 외국유학생 등 석사과정 2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론」을 강의하고 있다.



지난 1978년 한국에 선교사로 2년간 체류한 뒤 美UCLA에서 한국어교육학을 공부한 메릴교수는 1987년 국내 영어교재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한국인과 결혼한 뒤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UCLA에서 한국어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던 메릴교수는 국어교육과에서 외국인 교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행을 택했다.

음악대학

문화관서 22회 정기오페라 공연



음악대학(학장 金旻)은 지난 11월 6~9일 모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오페라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2회 정기오페라에서 마스카니(P. Mascagni·1863~1945·이탈리아)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공연했다.

음악대학 정기오페라는 역량 있고 훌륭한 예술 재원을 바탕으로 한국 예술 문화의 선구자적 역할과 참되고 올바른 예술 창달을 위해 1959년 제1회 「라

트리비아타(춘희)」를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이래 올해 22회를 맞이했다.

연출과 기획을 맡은 성악과 朴世源교수는 「유럽중심의 문화에 비해 다소 부족한 아시아 문화가 아시아 대학간의 교류를 통해 세계 전반의 문화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연의 의미를 밝혔다.

특히 교류협정을 맺은 日동경대 예술대 재학생 3명이 함께 출연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

모교 병원

제4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수상

모교 병원(원장 朴容晔)은 지난 11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어린이병원학교를 운영한 공로로 기획예산처 장관상을 수상했다.

2백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백99개의 혁신사례를 수집, 그 중 12개가 최종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 가운데 모교 병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암투병 어린이 및 만성 신장 질환 어린이 등 장기간의 투병으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1999년에 개교한 모교 어린이병원학교(교

장 申熙永교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교사진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주말 공개강좌

말기암 환자·가족 대상

모교 병원은 지난 11월 2일 B강당에서 「진행 및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주말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모교 병원 호스피스실과 암상담팀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강좌는 「의료문제」, 「통증과 약」, 「식사 관리」, 「간호 관리」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김미라 호스피스 전문간호

사는 「이번 강좌를 통해 말기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여러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방암 상담센터 개설

모교 병원은 지난 11월 7일 간호실무교육실 102호에서 유방암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교육을 실시한다.

유방암 상담센터는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건강 증진과 수술 후 회복운동 및 영양관리법, 자가검진법, 합병증 관리 등을 상담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朴容晔원장, 유방암 상담센터장인 외과학교실 盧東榮교수 등 상담센터 관계자와 유방암 수술 환자 모임 「비너스회」 50여 명이 모여 개설을 축하했다.

미식축구부

서울지역리그 우승

미식축구부(지도교수 黃錫鎬)가 지난 11월 17일 서울시립대

운동장에서 열린 2002 추계 미식축구선수권 서울지역리그 5차전에서 중앙대에 15대7로 이겨, 5전 전승으로 서울 지역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

한 미식축구부는 南成男(95년 農大卒·삼성화재)감독이 감독상, 조한범(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4년)군이 최우수 선수상, 김동백(응용화학부 4년)군이 우수 수비상을 받았다. (鎬)

동정

수상

▲李雲植(61년 美大卒·강원대 명예교수·한국 조각가협회 고문)=지난 10월 19일 국립 중앙극장에서 열린 「2002 문화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미술부문)을 수상함.

▲張潤宇(62년 美大卒·성신여대 박물관장)=지난 11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7회 영랑문학대상을 수상했으며, 기념시집 「形骸의 삶」(순수문학사刊)을 펴냄.

▲李炯均(64년 文理大卒·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本會副會長·本報論說委員)=지난 11월 26일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가 주관한 제4회 담배소비자보호대상 시상식에서 매너상을 수상함.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지난 11월 12일 국제라이온스클럽 353-C지구로부터 공로패를 받음.

▲鄭忠始(76년 工大卒·오미아코리아 사장·本會副會長)=지난 10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02년 전기안전축전대회에서 전기안전관리 최우수업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

▲金石鉉(81년 醫大卒·모교 산



부인과학교실 교수)=지난 11월 22일 열린 대한불임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받음.

▲趙泰玄(83년 大學院卒·중소기업청 서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배재대 겸임교수)=지난 11월 16일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김영희선생 추모사업회 주최 제8회 전국 남녀 중고교 대학 일반 김영희선생 추모문집 독후감 현상공모에서 일반부 대상을 수상함.

▲朴贊秀(85년 經營大卒·고려대 교수)=최근 고려대 경영대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에 의해 수여하는 Teaching Excellence Award를 수상함.

▲朴炳權(94년 大學院卒·마산대 교수)=지난 11월 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는 전국대학교수법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11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함.

▲安鎬元(6기 EPHPM·미국시인협회 회원)=최근 미국에피포도문화회에서 주관하는 제6회 에피포도 문학상(수필부문) 본상을 수상함.

▲朴奉植(55년 文理大卒·모교외교학과 명예교수)=지난 11월 7일 충청남도 논산에 건립된 금강대 초대 총장에 선임됨.

이동·선임

편집주간석

2002-111 VISION PLAN 보고

범례 : 목표/실적, 단위 : 억원, 부, %

| 연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목적 |
|---------------------|-------|---------------|-------|--------------|--------------|-----------|
| 1.기금 (동창회+관악회) | 58 | 67 | 77 | 88 | 100 | 재정안정 |
| | 58.5 | 67.8 | 73.9 | 77.6 | 90 | |
| 2.동창회보 (발행·배포 부수) | 8만3천 | 8만7천 | 9만1천 | 9만6천 | 10만 | 조직강화와 활성화 |
| | 8만3천 | 국내 8만 3천+미주7천 | 9만3천 | 9만 6천+온라인 8만 | 9만 6천+온라인 8만 | |
| 3.장학금 (재학생수 대비 지급률) | 0.7 | 0.75 | 0.85 | 0.92 | 1.0 | 모교지원 증대 |
| | 0.72 | 0.8 | 0.92 | 0.92 | 1.0 | |

* 2002년도 기금실적은 연말 기준 추정치

2002-111 VISION PLAN : 2002년말까지 기금 100억원, 회보발행 10만부, 장학금 지급률 1% 달성

우리 동창회는 1997년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2002-111 VISION PLAN을 수립,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의 달성을 위해 동문 여러분과 함께 매진해 왔습니다. 이에 목표년도인 올 세모를 맞으면서 그 추진실적과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다만 동창회의 재정안정과 회무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기금부원은 달성목표인 100억원에 미달하는 90억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함께 노력했었다면...」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동안 본 계획의 추진에 음으로 양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주신 서울대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劉永珠(61년 家政大卒·경희대 교수)=지난 11월 15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가족학회 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선임됨.

▲沈相明(64년 法大卒·변호사)=지난 11월 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됨.

▲金宗善(66년 醫大卒·모교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17차 세계이비인후과 학회(IFOS) 총회에서 실행이사에 선임됨.

▲金豊明(67년 醫大卒·명피부

과의원 원장)=지난 10월 18일 대한피부과학회 회장에 선임됨.

▲朴哲圭(67년 醫大卒·모교 성형외과학교실 교수)=지난 10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태평양두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明魯昇(69년 法大卒·대전고검장)=지난 11월 15일 법무차관에 임명됨.

▲金石華(78년 醫大卒·모교 성형외과학교실 교수)=지난 10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태평양두총회에서 이사에 선출됨.

▲白樂院(51년 醫大卒·인제학원 이사장·本會顧問)=지난 11월 26일 인제대 서울캠퍼스 인당관에서 제4회 仁濟人性大賞 시상식을 개최함.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

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11월 29일 하얏트호텔 로터스룸에서 모교 생화학교실 박相哲(73년 醫大卒)교수를 초청, 「새 시대의 건강생활」을 주제로 제103회 정책토론회를 가짐.

▲金鍾星(54년 工大入·서울건축 대표)=2002년 베니스비엔날레 개최 제8회 국제건축전람회 한국 커미셔너로 9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시된 한국파빌리언 전시 7개 건축작품을 선정, 전시기획, 전시설치, 개막 행사를 주관함.

▲李升煥(59년 法大卒·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지난 10월 13~17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GA-STECH 2002(세계가스기술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함.

▲朴煥允(59년 師大卒·한국사 진작가협회 회원)=지난 11월 1~7일 전주 예술회관, 11~16일 충무로2가 후지포토살롱에서 고회기념 지리산 사진전을 가짐.

▲金載姪(60년 美大卒·한국여류화가회 회원)=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훈동 백송화랑에서 작품전을 가짐.

許文會·全武植·金承業·李賢九 동문 제3회 한림원상 4개 분야 석권

지난 11월 21일 모교 관악 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림과학기술훈(원장 韓仁圭·56년 農大卒) 정기총회에서 제3회 한림원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모교 농생

대 농학과 許文會(54년 農大卒)명예교수가 신설된 「농수산학상」을 수상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全武植(54년 文理大卒)명예석좌교수가 이학분야의 「청암과학상」을 받았다. 또 이주대 의대 뇌질환센터

金承業(60년 醫大卒)소장과 모교 공대 응용화학부 李賢九(62년 工大卒)교수가 각각 의약학 분야의 「GSI의약학상」과 공학분야 「덕명공학상」을 수상했다. 일진그룹과 (주)진생사이언스의 후원으로 1999년 제정된 한림원상의 올해 수상은 모두 동문이 차지했다.

(鎭)



許文會



全武植



金承業



李賢九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 지역 번 | 지부명 | 명 단 |
|---------|---------------------------|--|
| 01 | 남가주 | 226 <p>허영진(문리대 62입) 최왕욱(공대 69입) 이채진(문리대 55입) 박진득(농대 67입) 송정자(의대 73졸) 윤용길(공대 55입) 최재윤(문리대 54입) 김태윤(법대 53입, 전년도 납입, 추가납입) 이창신(법대 57입) 김선기(법대 59입) 이상욱(치대 66입) 민희숙(간호대 74졸) 정만영(약대 66입) 김창덕(약대 53입) 최영순(간호대 69입) 최희봉(상대 56입) 김진호(약대 64입) 김동훈(의대 71입) 김선주(사범대 49입) 박정모(문리대 66입) 정중훈(치대 74입) 전희택(의대 60입) 박남수(문리대 74입) 김재무(상대 58입) 최수명(문리대 59입) 장동호(공대 53입) 남홍범(공대 59입) 김정화(미대 63입) 김성환(의대 71졸) 김광은(음대 56입) 주 훈(음대?) 김준일(공대 62입) 김종표(법대 58입) 신정식(상대 64입) 박희규(수의대 55입) 김현직(농대 58입) 박제인(약대 60입) 이정규(농대 69입) 이승희(간호대 47입) 김두희(문리대 58입) 최종권(문리대 59입) 김영배(미대 61입) 이기재(사범대 52입) 이종희(공대 53입) 박재덕(상대 52입) 강봉창(약대 50입) 선우동훈(문리대 54졸) 권처균(공대 51입) 김순길(법대?) 서재섭(상대 53입) 신광재(공대 73입) 김태호(상대 57입) 이 승(공대 59입) 임낙균(약대 64입) 민경탁(의대 61입) 호기원(치대 70졸) 최순자(약대 53입) 박영근(상대 56입) 박철(법대 64입) 최준호(치대 58입) 신정현(미대 59년입) 서관석(미대 67년입) 이양구(상대 57입) 이홍표(의대 60입) 방윤자(문리대 59입) 임재영(공대 59입) 박익순(\$50 수의대 74입) 김창섭(\$100 약대 44년입) 최예섭(치대 45년입) 강항운(농대 52년입) 김옥권(미대 76년입) 배희식(문리대 52년입) 이병선(상대 58입) 오인근(약대 59입) 유진형(상대 48입) 이범식(공대 61입) 최명룡(음대?) 김재신(음대 60입) 이동성(의대 53입) 박태호(치대 66입) 탁해숙(음대 67입) 이효경(치대 63입) 홍훈정(음대 70입) 이병희(수의대 75입) 노봉식(음대?) 오형원(의대 53입) 송길장(사범대 58입) 홍경삼(문리대 61입) 이정옥(공대 52입) 강배영(상대 54입) 황봉찬(문리대 48입) 김창무(음대 53입) 김은희(치대 50졸) 고재천(공대 57입) 김동익(법대 57입) 김광자(약대 62입) 조민연(상대 58입) 김혜인(가정대 69입) 김종원(문리대 69입) 이호일(의대 60입) 강영만(상대 72입) 서동영(사범대 60입) 이동희(공대 63입) 김태웅(의대 63졸) 배재호(공대 58입) 니민주(음대 65입) 정현진(간호대 72졸) 황석우(의대 53입) 윤병인(의대 64입) 박범순(가정대 70입) 윤진수(의대 57입) 노병일(경성법학전문 41졸) 김생철(법대 54입) 김성복(공대 59졸) 임선영(음대 57졸) 안승호(공대 71입) 이완규(공대 54입) 김일선(사범대 67입) 정기정(상대 69입) 권대원(대학원 59입) 윤방현(사범대 53입) 최재현(수의대 66입) 이상학(공대 59입) 김학천(치대 71입) 노명호(공대 61입) 고용규(의대 67입) 김윤걸(자연대 77입) 임용오(의대 57입) 탁의용(상대 58입) 김상익(공대 46입) 조정시(공대 60입) 박명근(상대 63입) 정황(공대 64입) 김원탁(공대 65입) 신동국(수의대 76입) 김정협(치대 59입) 도영미(사범대 52입) 김병자(치대 57입) 하기환(공대 66입) 이경호(공대 67입) 심상은(상대 54입) 이권택(경영대 72입) 서경만(의대 51입) 윤경민(법대 55입) 박취서(약대 60입) 이승재(상대 67입) 한원민(의대 59입) 홍성애(의대 60입) 신한경(약대 56졸) 김정애(간호대 69입) 김원경(약대 59입) 장동석(문리대 66입) 이해란(미술대 72입) 장진성(약대 66입) 양은석(음대 70입) 김상엽(공대 57입) 김선주(사범대 50입) 신우식(치대?) 신무수(치대 63입) 백만일(공대 64입) 강신호(사범대 49입) 김세담(법대 55입) 정동구(공대 57입) 고석규(치대 65입) 신우천(치대 64입) 양은혁(상대 56입) 정복근(\$100, 사범대 69입) 차민영(의대 78입) 김동호(치대?) 이강훈(치대 65입) 손학식(공대 61입) 김동산(법대 59입) 정경화(의대 70입) 박계영(공대 57입) 김은종(상대 59입) 이정재(수의대 45입) 김건진(문리대 62입) 오재인(치대 33입) 최호준(의대 77졸) 권길상(음대 46입) 이호준(공대 55입) 오길평(치대 61입) 이현세(법대 68입) 김선명(공대 75입) 김희재(사범대 66입) 최복영(사범대 56입) 이성호(의대 72졸) 김영(수의대 63입) 조성윤(법대 46입) 홍진(간호대 55입) 김용채(문리대 61입) 신정자(사범대 63입) 박인창(농대 65입) 김희봉(공대 72졸) 노상규(공대 60입) 송두빈(사범대 57입) 김영기(의대 54입) 김근빈(법대 56입) 이난경(음대 66입) 남정우(치대 48졸) 이권섭(치대 54입) 우원섭(치대 65졸) 김일영(의대 65입) 한종철(치대 62입) 강동순(법대 59입) 한홍택(공대 60입) 신상화(공대 58입) 박인하(치대 56입) 박해욱(간호대 69입) 이근원(공대 67입) 임문빈(상대 58입) 조종웅(공대 45입) 엄세욱(간호대 69입) 권기상(경영대학원 72입) 육중훈(상대 67입) 강경수(법대 58입) 정원훈(상대 38입) 임택선(공대 52입) 김석구(공대 66입) 최숙규(간호대 65입) 문덕수(공대 73입) 최승륜(상대 53입) 서치원(공대 69입) 지인수(상대 59입) 이환진(상대 68입) 임택선(공대 52입)</p> |
| 02 | | 1 김항자(약대 61입) |
| 03 | 새프라스스쿨 | 3 박세록(의대 57입) 황동하(의대 65입) 정조웅(공대 60입) |
| 04 | 뉴욕 (NY, NJ, PA일부CT) | 198 <p>강충무(\$100, 사범대 65졸) 김종현(법대 61졸) 김창수(약대 64입) 이영재(상대 58입) 조달훈(사범대 66입) 최태식(\$50, 의대 74졸) 이진구(농대 60입) 허병렬(사범대 42입) 이준행(공대 47입) 최일단(미대 55입) 박승규(의대 55입) 김순자(\$50, 약대 63졸) 김영만(상대 59입) 윤인숙(간호대 63입) 현영수(음대 61입) 임건식(음대 54입) 최일단(미대 55입) 손주현(의대 61졸) 석창호(의대 66입) 김문경(약대 65졸) 김재민(약대 57입) 조희재(음대 58입) 강 효(음대 63입) 손영철(공대 68입) 이태상(문리대 55입) 유숙현(간호대 61입) 강영선(공대 50입) 홍선경(의대 58입) 한용진(미대 56입) 문미애(미대 56입) 정연희(미대 64입) 변영석(의대 65입) 신남철(인문대 81입) 김현기(공대 62입) 민준기(\$50 공대 59입) 배상규(약대 61입) 김학수(상대 65입) 장기선(약대 61입) 윤영섭(의대 63졸) 최영혜(간호대 64입) 김태호(약대 63입) 서종웅(약대 70졸) 조상근(법대 69입) 박대규(법대?) 윤준식(법대 58입) 유택상(문리대 58입) 박경원(미대 66입) 박성일(상대 58입) 박진수(의대 58입) 강우정(음대 62입) 조시래(문리대 57졸) 고석원(문리대 50입) 최승웅(의대 61입) 이명혜(의대 79졸) 김영덕(공대 53입) 이봉상(약대 59졸) 연봉원(문리대 61입) 최정애(간호대 66입) 김관준(약대 46입) 최재홍(의대 67졸) 박선섭(공대 61입) 김익성(상대 52년입) 윤봉균(사범대 54년입) 이영숙(간호대 56년입) 최형무(법대 69년입) 이유찬(의대 58년입) 윤여민(상대 60년입) 김규화(상대 63년입) 김훈일(공대 60년입) 윤갑석(공대 53년입) 권영대(공대 69입) 송관호(의대 58입) 배명애(간호대 45입) 윤현남(공대 63입) 노경희(간호대 66입) 문길용(음대 45입) 소무영(상대 65졸) 유재은(미대 71입) 반영철(\$100 약대 58졸) 차국만(상대 56입) 김현중(공대 63입) 조대영(공대 61입) 정진우(의대 72졸) 서병선(음대 65입) 송웅길(신문대학원 69입) 김원복(문리대 50졸) 손갑수(약대 59입) 임문수(공대 72졸) 백윤자(간호대 64입) 김양호(의대 57졸) 이기준(\$100 문리대 66입) 선우지민(약대 54입) 조문혜(약대 59입) 김학자(간호대 63졸) 임석태(법대 48입) 이정애(미술대 57입) 이영연(상대 58입) 성백문(공대 61입) 선종철(의대 57입) 이대영(문리대 64입) 최석진(사범대 54입) 전재우(공대 75졸) 이종성(의대 58입) 정택수(문리대 45입) 김양수(미술대 69입) 김석식(의대 56입) 박상원(음대 69입) 강상진(의대 59졸) 남상래(간호대 65입) 백영복(간호대 69입) 이필영(사범대 54입) 장미숙(치대 85입) 황문하(수의과대 76입) 박건호(의대 57졸) 한승원(미술대 60입) 전병삼(약대 54입) 김용재(의대 60입) 오정환(의대 55입) 이재원(법대 60입) 홍명희(간호대 61입) 이연찬(의대 52입) 허재순(사범대 54입) 김정빈(약대 54입) 조정현(보건대학원 64입) 현건섭(공대 55입) 이경태(공대 63입) 조정호(의대 66입) 리준국(공대 47입) 조성무(공대 56입) 김현희(간호대 63졸) 이승호(상대 63입) 이경림(상대 64입) 조총열(의대 60입) 한호(상대 66졸) 조숙자(간호대 59입) 남일우(법대 57입) 이명희(의대 60입) 최창식(의대 61입) 변광록(간호대 72입) 김광호(의대 72졸) 정일화(상대 55입) 김영용(치대 60졸) 조규웅(의대 66졸) 이정은(의대 58입) 박순영(법대 56입) 김영일(의대 69졸) 최수용(상대 55입) 오준영(상대 49입) 최한용(농대 58입) 이홍제(의대 68입) 전성진(사범대 58졸) 탁명양(약대 56졸) 서상철(의대 56졸) 최구진(약대 54입) 송재한(약대 61입) 윤정옥(약대 50입) 김우영(상대 60입) 송영순(사범대 60입) 이기영(농대 70입) 장동만(문리대 63졸) 나연수(사범대 53입) 유호근(법대 71입) 김충정(상대 64입) 김주은(공대 71입) 강재현(상대 70입) 김한중(의대 56입) 이재덕(법대 60입) 권후열(상대 73졸) 최한선(공대 56입) 이충호(의대 63입) 윤순철(사범대 44입) 김상각(상대 57입) 이정자(간호대 63졸) 강석권(법대 61입) 이견미(문리대 60입) 변찬의(상대 63입) 나찬국(의대 64졸) 김진승(문리대 53입) 성기호(약대 57입) 심정섭(의대 53입) 김기훈(상대 52입) 김희국(약대 54입) 최취웅(문리대 64입) 김병술(약대 52입) 조종수(공대 64입) 이국진(사대 51입) 전민욱(간호대 66입) 이정순(법대 53입) 최영태(문리대 67입) 노용면(의대 55졸) 한용호(법대 52졸) 이문휘(문리대 54입) 김세환(공대 65입) 박창익(농대 64입) 전희근(의대 54입) 이덕인(미술대 56입) 허선행(의대 58입) 김영두(농대 61입)</p> |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 지역 번호 | 지부명 | 명 단 |
|-------|-----------------------------|---|
| 05 | 시카고(IL, IN, WI, MO, MI, OH) | 132 신석균(문리대 54입) 박장만(공대 56입)문조훈(약대 62입) 곽영로(수의대 76입) 임영신(의대 52입) 정승규(공대 60입) 이인선(미대 72입) 이범세(의대 57입) 최희수(\$100, 문리대 67입) 김현규(의대 47입) 정남재(사범대 56입) 조 철(공대 49입) 홍규식(문리대 64입) 이윤모(농대 57입) 제현수(사대 65입) 이범구(공대 59입) 이소희(의대 61입) 이수인(\$120 의대 56입) 조형원(약대 54입) 김정일(의대 57입) 육태식(의대 61입) 김택수(의대 57입) 장 철(의대 71입) 남상용(공대 52입) 강태수(의대 65입) 최호승(작년도 선납) 한재은(의대 59년입) 지명식(사범대 65년입) 구자원(법대 55년입) 이영모(의대 59년입) 이태석(의대 67년입) 이한중(의대 61년입) 장병호(의대 66년입) 한경희(간호대 67입) 이권정(공대 73입) 이규달(의대 68입) 이종일(의대 71입) 윤희윤(의대 63입) 이한홍(의대 68입) 임현채(의대 59입) 황치룡(문리대 65입) 박영준(문리대 67입) 최순분(간호대 56입) 구행서(공대 69입) 엄무광(문리대 61입) 오상현(의대 71입) 김정근(의대 61입) 한성수(의대 56입) 최인갑(작년도 선납, 공대 61입) 김영호(의대 77입) 장재찬(의대 59입) 장세근(의대 57입) 박정일(의대 61입) 조중행(의대 63입) 박숙(의대 64입) 이설희(간호대 73입) 최순강(음대 65입) 이순자(간호대 66입) 전현(문리대 60입) 이정일(농대 57입) 이소정(음대 84입) 고성서(경성사범 38입) 배건재(공대 53입) 김일훈(의대 51입) 이재풍(의대 58입) 정길화(의대 65입) 신영규(의대 57입) 이상일(의대 54입) 김승희(법대 55입) 김택수(의대 57입) 곽노균(상대 55입) 송용덕(의대 57입) 김형수(농대 68입) 김유식(의대 64입) 이종기(농대 55입) 서영일(의대 68입) 강영국(수의대 67입) 김용성(상대 54입) 백영구(행정대학원 61입) 김현석(문리대 69입) 한의일(공대 62입) 김상기(문리대 61입) 배병섭(의대 54입) 임재일(농대 64입) 안정희(간호대 75입) 장시경(약대 58입) 진보린(약대 56입) 서상현(의대 64입) 김앤드류(상대 50입) 백준철(공대 62입) 김현옥(문리대 67입) 박준환(의대 57입) 박종수(수의대 58입) 이영웅(의대 62입) 장홍(문리대 61입) 고영철(의대 45입) 성홍환(\$160, 수의대 75입) 김윤화(음대 72입) 서승환(치대 61입) 손기용(의대 55입) 김한철(사범대 61입) 김세종(경영대 79입) 김용우(공대 58입) 박홍근(공대 64입) 허서룡(의대 60입) 정병욱(의대 59입) 김병윤(문리대 65입) 이용락(공대 48입) 전영자(미대 58입) 하계현(공대 64입) 계명수(의대 69입) 박연희(간호대 65입) 김정주(문리대 64입) 임근식(문리대 56입) 이승자(사범대 69입) 김갑중(의대 57입) 정의철(의대 55입) 유준석(의대 53입) 조 철(\$50 공대 49입) 정 태(\$100 의대 57입) 이덕수(\$100 문리대 62입) 최승정(공대 60입) 이진주(문리대 55입) 송재현(의대 48입) 안창현(의대 55입) 유석홍(상대 61입) 서경원(공대 53입) 구경희(의대 59입) 안은식(문리대 55입) 유효명(\$100 의대 58입) 김정수(문리대 69년입) 홍혜례(사대 76년입) 도상탁(\$100, 의대 56년입) 최애옥(간호대 47입) 김재동(인문대 70입) 김영기(법대 50입) 임필순(의대 54입) 진금섭(\$61, 약대 57입) 김국(농대 75입) 오기창(법대 50입) 장윤희(사범대 54입) 남광순(음대 64입) 심준보(상대 55입) 이재승(의대 55년입) 김기봉(공대 63년입) 조남현(의대 64년입) 문홍숙(간호대 55년입) 변만식(사범대 49년입) 고무환(법대 57년입) 소속영(간호대 64년입) |
| 06 | 워싱턴 DC (MD, VA) | 48 이내원(사범대 58입) 석규범(문리대 61입) 김충규(의대 60입) 박성대(문리대 71입) 이정섭(의대 48입) 오광동(공대 52입) 신상균(의대 52입) 김용덕(의대 53입) 김창호(법대 56입) 김창웅(법대 60입) 곽홍(의대 45입) 이정의(의대 59입) 배병권(상대 55입) 김훈진(치대 ?) 홍인희(공대 58입) 엄승용(농대 57입) 박명일(농대 69입) 장병규(사회과학대 76입) 최동현(문리대 50입) 조병선(의대 71입) 곽태조(음대 64입) 오인환(문리대 63입) 안미애(가정대 81입) 박은희(미대 72입) 강경구(사범대 49입) 김정환(문리대 60입) 최경수(문리대 58입) 박홍우(문리대 65입) 박명영(의대 66입) 전정철(공대 55입) 유개일(의대 60입) 주 일(의대 46입) 이경희(\$80 약대 82입) 황수택(의대 65입) 이혜숙(문리대 65입) 서공주(음대대학원 59입) 윤재명(의대 65입) 김영일(공대 53입) 이대원(사범대 58입) 유성렬(공대 72입) 전계상(공대 40입) 맹병규(문리대 70입) 채태용(법대 55입) 최두환(공대 83입) 허윤환(사범대 57입) |
| 07 | 워싱턴주 (WA) | 13 이신광(약대 77입) 전중희(공대 56입) 신용선(공대 55입) 박승균(의대 59입) 탁순덕(사범대 57입) 조시호(문리대 59입) 유금영(법대 50입) 김성철(의대 61입) 최광욱(문리대 73입) 이은실(문리대 53입) 노인규(의대 57입) 이규진(약대 60입) 명인성(공대 50입) 박민자(사범대 58입) 김충열(의대 5입) 최관일(공대 54입) 강영빈(\$120 문리대 58입) |
| 08 | 휴스턴 (HOUSTON) | 17 김태훈(공대 57입) 김인호(공대 47입) 이병규(약대 61입) |
| 09 | 달라스 (DOLLAS) | 3 권승림(공대 52입) 김태환(의대 58입) 권학주(치대 59입) 왕규현(의대 56입) 박상빈(공대 71입) 문일지(공대 61입) 김권식(공대 61입) 남세현(공대 67입) 조형준(문리대 62입) |
| 10 | 미네소타 (MN) | 9 계광무(공대 63입) 김용자(사범대 64입) 김용건(문리대 48입) 오경호(농대 60입) 김만복(문리대 72입) 유우영(의대 61입) 조덕성(공대 71입) 장병건(보건대학원 64입) 이철남(의대 50입) 백성식(약대 58입) 이관호(공대 45입) 유민자(음대 65입) 오덕경(의대 58입) 박성숙(간호대 59입) 이은수(경영대학원 73입) 서기권(공대 70입) 박양세(약대 48입) 이용길(의대 62입) |
| 11 | 조지아 (GA) | 12 김 연(\$50 문리대 54입) 이정민(문리대 48입) 김인기(문리대 58입) |
| 12 | 아리조나(AZ) | 6 임양수(\$50 사범대 62입) 김승태(의대 63입) 구자현(사범대 53입) 구해근(문리대 60입) 최치덕(법대 59입) 김용진(공대 50입) 신동인(공대 58입) |
| 13 | 유타 (UT) | 3 김동림(사범대 55입) 박성재(상대 49입) |
| 14 | 하와이 (HI) | 9 최태인(사범대 59입) 성성모(사범대 67입) 한영준(사범대 ?) 김상만(음대 46입) 나제관(공대 72입) 장윤자(공대 50입) 이태호(문리대 61입) 김상수(상대 67입) 최동근(문리대 50입) |
| 15 | 오레곤 (OR) | 9 이학은(약대 57입) 박종익(사범대 83입) 류광현(문리대 58입) 최원웅(약대 62입) 안동욱(자연대 72입) |
| 16 | 기타 (서부) | 9 이수환(의대 53입) 김갑경(의대 54입) 박용호(의대 59입) 홍지호(공대 53입) |
| 17 | 기타 (중부) | |
| 18 | 기타 (동부 & 캐나다) | 13 박종선(공대 60입) 이종진(공대 55입) 김주웅(의대 63입) 윤영옥(의대 57년입) 김정권(의대 55입) 김수산(의대 52입) 김연국(수의대 74입) 오인석(법대 58입) 김기욱(공대 79입) 조무정(약대 62입) 조동림(의대 56입) 김미현(문리대 52입) 손정호(의대 53입) |
| 19 | 플라델피아(PA) | 38 김용국(의대 58입) 김사영(약대 56입) 주기목(수의대 68입) 강영배(수의대 59입) 김태영(약대 55입) 정학량(약대 56입) 이승환(공대 56입) 문상규(의대 62입) 임광상(공대 57입) 장 호(문리대 69입) 박장생(의대 54입) 지재원(사범대 68입) 이만택(의대 58입) 최 환(공대 68입) 송영두(\$100, 의대 56입) 오진석(치대 56입) 이규호(공대 56입) 이윤성(수의대 81입) 김희섭(의대 55입) 김영우(공대 55년입) 심기련(상대 57년입) 이재희(상대 88입) 이성숙(가정대 74입) 조영호(음대 60입) 이삼민(문리대 58입) 윤정나(음대 57입) 김세경(미대 62입) 김주진(법대 54입) 안지영(문리대 71입) 문대욱(의대 73입) 전방남(상대 73입) 김중규(치대 69입) 진병학(의대 57입) 서진석(의대 62입) 유창남(의대 58입) 전무식(\$50, 수의대 61입) 역극용(의대 60입) 김형달(의대 70입) 도운희(농대 61입) 최인섭(의대 72입) 김성빈(문리대 59입) 강경식(문리대 55입) 김경석(문리대 70입) 박현자(음대 62입) 김문소(농대 61년입) 두선자(간호대 75년입) 한병의(문리대 60입) 인준식(사대 55입) 김중성(경영대 76입) 배성호(의대 65입) 박종근(의대 62입) 채도경(의대 59입) 권이덕(공대 68입) 이희규(공대 69입) 윤상태(수의대 62입) 김호영(약대 52입) 문형성(의대 65입) 김영일(사대 59입) 이재신(공대 57입) 김제호(상대 56입) 김유경(음대 ?) 김병국(공대 71입) 노인규(의대 52입) 김장태(문리대 53입) |
| 20 | 뉴잉글랜드 (MA, RI) | 26 박혜송(음대 68입) 이상강(의대 70입) 오명순(가정대 69입) 배규영(사범대 68입) |
| 21 | 하트랜드 | 12 박세화(의대 76년입) 지일성(의대 61입) 신두식(의대 58입) 김호원(치대 52입) 임하진(의대 79입) 이상문(상대 57입) 구명순(간호대 66입) 오태오(의대 56입) |
| 22 | 펜실베이니아 | 1 이수경(자연대 81입) |
| 23 | 캘리포니아 | 4 정양수(의대 60입) 박태진(의대 62입) 한광수(의대 57입) 정일환(의대 63입) |
| 특별기부금 | | |
| 계 | | 782 |
| | | 48,251 |

금년에도 재미총동창회와 동창회보 100호 간행을 후원하여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2. 7. 1 ~ 2003.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부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주소 : _____
5. 새 자택 주소 : _____
6. 새 자택 전화번호 _____ Fax. _____
7. 직장주소 : _____
8. 직장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10. 동문 자료 은행구축과 모교와 조국을 위한 지적 봉사단의 자료를 위하여 귀 동문의 자세한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6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자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2002. 7. 1 ~ 2003. 6. 30 구독료 \$6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No.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수표 보내실 곳 : SNUA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2. 소속 지역동창회 이름 : () 지역동창회

1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구독료 \$60(2002.7. 1. ~ 2003. 6. 30 회계년도)을 납부합니다.

2 미주 관악후원회 4차년도 후원 이사회비 出捐書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지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매년 불입 후원이사

-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3 母校와 後進을 위한 기금 出捐書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 ◎총액(금액명기 \$)
- ①일시불 ()
- ②3년 분할 납입 ()
(\$)씩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Check Payable to :

SNUAAUSA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